


"나라와 민족의 강태를 위해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



2014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 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사회발전연구소
- 책임연구원 :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 김경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박사)
: 이미란 (방정환재단 연구위원 박사)
- 연구보조원 : 이진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2014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연구진

책임연구자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경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박사)

이미란 (한국방정환재단 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박사)

이진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 설문조사기관

(주)현대리서치연구소 (대표이사 이상경)

본 보고서는 한국방정환재단이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에 의뢰하여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유니세프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모델로 한 국제비교 연구 조사결과로, 올해에는 스마트폰 및 게임이용과 행복감, 학교폭력경험에 관한 문항을 추가로 포함하여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재단 연구위원 1분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행복지수 이외 몇가지 주제에 대해 최근 몇 년간의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해 주셨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청소년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방정환재단은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당면한 문제의 개선방안을 위해 본 조사를 제안하여, 현대리서치연구소의 후원을 받아 매년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조사하여 그 변화하는 양상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작은물결이 되겠습니다

발행처 한국방정환재단 | 발행일 2014년 7월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33 (신문로2가) 내자빌딩 5층
전화 02-322-5515 | 팩스 02-322-5452 | 이메일 happy365@korsofa.org | 홈페이지 www.korsofa.org



2014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제1장 연구방법 및 내용	14
A.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15
1. 연구목적	15
2. 주요연구내용	15
B. 연구방법	16
1. 설문조사	16
1) 조사설계	16
2) 표본 특성	17
2. OECD 자료	17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20
제2장 연구결과요약	22
A. 2014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23
B. 생활양식과 행복가치관	23
1. 주관적 행복	23
2. 행복 가치관	24
1) 행복할 때와 행복하지 않을 때, 행복을 느끼는 장소	24
2) 행복의 요건	25
3. 가족과 친구관계	26
1) 부모자녀관계	26
2) 교우 관계	27
4. 학교생활 및 사교육 실태	28
1) 학교생활 성실도와 성적 스트레스	28
2) 사교육 실태	29
5. 스마트폰 및 게임 이용 실태	29
1) 스마트폰 이용률 및 스마트폰 의존도	29
2) 게임 행태 및 의존도	31
6. 주관적 미래 전망 : 기대학력 및 미래직업	32
C. 학교폭력과 일탈행동	33
1. 학교폭력	33
2. 기출 및 자살	33

제3장 한국과 OECD 행복지수 구축	35
A. 행복지수분석 : 한국과 OECD 비교	36
1.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가비교	36
2. 2014년도 OECD 국가 행복지수 영역별 비교	37
3. 2009-2014 한국 행복지수 변화추이	38
B. 물질적 행복	39
1. 상대적 빈곤	39
2. 미취업 가정	40
3. 빈곤	41
4. 문화적 결핍	43
C. 보건과 안전	43
1. 영아건강	43
2. 예방접종	45
3. 사고사	48
D. 교육	49
1. 학업성취	49
2. 교육참여	52
3. 학업열망	54
E. 가족과 친구관계	55
1. 가족구조	55
2. 부모관계	57
3. 친구관계	59
F. 행동과 생활양식	60
1. 건강행동	60
2. 위험행동	64
G. 주관적 행복	72
1. 건강	72
2. 학교생활	73
3. 개인 행복	74
제4장 생활양식과 행복 가치관	78
A. 행복도 및 행복가치관	79
1. 주관적 행복	79
1) 주관적 행복도	79
2) 세부 요소별 주관적 행복 수준	81
2. 행복에 대한 의식	83
1) 행복을 느끼는 경우 및 상황 (2013년-2014년)	83
2) 행복 준거집단 및 장소	84
3) 행복하지 않을 때 (2013년-2014년)	85
4)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87
B. 가족과 친구관계	89

1. 부모와의 관계	89
1) 부모자녀 관계	89
2) 부모와의 대화 내용 (2013년~2014년)	91
2. 친구관계	92
1) 친구관계	92
2) 친구관계 변화 추이 (2011년~2014년)	93
C. 학교생활 및 사교육 실태	94
1. 학교생활 성실도	94
1) 학교생활 성실도	94
2) 성적 스트레스	94
2. 사교육 실태	95
1) 사교육 이용률	95
2) 사교육 이용 기관 및 서비스 수	95
3) 사교육 시간	98
D. 스마트폰 및 게임 이용 실태	101
1. 스마트폰 이용실태	101
1) 스마트폰 보유율 변화 추이 (2013년~2014년)	101
2) 하루 평균 스마트폰 평균 이용 횟수	101
3)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102
4)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주관적 행복	103
5)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기출충동 경험	106
6) 스마트폰 이용과 일상생활	109
2. 게임 이용 실태	111
1) 게임 이용률	111
2) 최근 6개월간 게임 빈도	111
3) 최근 6개월간 하루 평균 게임 시간	112
4) 게임이용 시간과 주관적 행복	113
5) 최근 6개월간 주 게임 장소	115
6) 게임이용과 기출충동	116
7) 게임이용과 일상생활	119
E. 용돈 및 소비 실태	121
1. 월 평균 용돈 규모 (중고생 대상)	121
2. 월 평균 지출 규모	121
3. 지난 1년간 수입명품, 유명 브랜드 구매 지출 규모	122
F.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미래 전망	122
1. 기대학력	123
1) 기대학력	123
2) 기대학력 변화 추이 (2011년~2014년)	124
2. 장래 희망직업	125
1) 희망직업	125
2) 2011~2014 희망직업 변화 추이	125

3. 멘토 및 역할모델	125
제5장 학교폭력 및 일탈행동	127
A. 학교폭력	128
1. 학교폭력 인식 수준	128
1)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	128
2)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	129
2. 학교폭력 피해 실태	131
1)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131
2) 최근 1년간 당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횟수	132
3) 학교폭력 피해 당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기관	134
3. 학교폭력 가해 실태	135
1) 학교폭력 가해 경험률	135
2) 최근 1년간 행한 학교폭력 가해 경험 횟수	135
4.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특성	138
1) 학교폭력 경험별 유형	138
2) 학교폭력 경험별 유형별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횟수	140
3)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경제수준	141
4)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수준	142
5)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구와의 관계	142
6)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부모와의 평소 대화 내용	145
7)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5
B. 가출 및 자살	147
1. 가출	147
1) 가출충동 경험	147
2) 가출충동 발생 이유	149
3) 가출시도 경험	151
2. 자살	153
1) 자살충동 경험	153
2) 자살충동 발생 이유	155
부록 1 :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영역별 통계표	158
부록 2 : 설문지	161



<표 1-1> 주요연구내용 15

<표 1-2> 설문조사의 개요 16

<표 1-3> 표본 특성 17

<표 1-4> 행복지수 영역 구성 및 지표 측정 자료 18

<표 1-5> 2014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연구(KCWI)의 각 지표별 표준점수 21

<표 2-1> 2009년~2014년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변화 23

<표 2-3> 2011년~2014년 세부 요소별 주관적 행복 수준 변화 추이 24

<표 2-4> 행복을 느끼는 장소 및 집단 25

<표 2-5> 행복의 요건 26

<표 2-6> 2011년~2014년 부모와의 관계 변화 추이 26

<표 2-7> 친구관계 27

<표 2-8> 학교생활 성실도 28

<표 2-9> (학교)성적 스트레스 28

<표 2-10> 사교육 실태 29

<표 2-11> 스마트폰 의존도 30

<표 2-12> 게임 행태 31

<표 2-13> 게임 의존도 32

<표 2-14> 장래 희망직업 33

<표 3-1> 2014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국가비교 36

<표 3-2> 2014년도 영역별 OECD 국가 행복지수 37

<표 3-3> 2009년~2014년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 변화 38

<표 4-1> 주관적 행복도 79

<표 4-2> 세부 요소별 주관적 행복 수준 81

<표 4-3> 2011년~2014년 세부 요소별 주관적 행복 수준 변화 추이 _ 전체 82

<표 4-4> 2011년~2014년 세부 요소별 주관적 행복 수준 변화 추이 82

<표 4-5> 2013년~2014년 행복을 느끼는 경우 및 상황 변화 추이 83

<표 4-6> 행복을 느끼는 장소 및 집단 84

<표 4-7> 2011년~2014년 행복을 느끼는 장소 및 집단 변화 추이 _ 전체 85

<표 4-8> 2011년~2014년 행복을 느끼는 장소 및 집단 변화 추이 86

<표 4-9>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 87

<표 4-10> 행복의 요건 88

<표 4-11> 2011년~2014년 행복의 요건 변화 추이 89

<표 4-12> 부모자녀 관계	90
<표 4-13> 2011년~2014년 부모와의 관계 변화 추이	91
<표 4-14> 2013년~2014년 부모와의 대화 내용 변화 추이	92
<표 4-15> 친구관계	92
<표 4-16> 학교생활 성실도	94
<표 4-17> 성적 스트레스	95
<표 4-18> 학습 중인 사교육 기관 및 서비스 수	98
<표 4-19> 2011년~2014년 사교육 이용 기관 및 서비스 수의 변화 추이 1	98
<표 4-20> 2011년~2014년 사교육 이용 기관 및 서비스 수의 변화 추이 2	99
<표 4-21>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	99
<표 4-22> 2011년~2014년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 변화 추이 1	100
<표 4-23> 2011년~2014년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 변화 추이 2	100
<표 4-24>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횟수	102
<표 4-25>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102
<표 4-26> 최근 6개월간 게임 빈도	112
<표 4-27> 최근 6개월간 하루 평균 게임 시간	112
<표 4-28> 최근 6개월간 주 게임 장소	116
<표 4-29> 월 평균 용돈 규모	121
<표 4-30> 월 평균 지출 규모	122
<표 4-31> 지난 1년간 수입명품 및 유명브랜드 구매 지출 규모	122
<표 4-32> 최종 기대학력	123
<표 4-33> 2011년~2014년 최종 기대학력 변화 추이 _ 전체	124
<표 4-34> 장래 희망직업	125
<표 4-35> 2011년~2014년 장래 희망직업 변화 추이	126
<표 5-1> 가출충동 발생 이유 (가출충동 경험자 대상)	150
<표 5-2> 2011년~2014년 가출충동 발생 이유 변화 추이	150
<표 5-3> 자살충동 발생 이유	156
<표 5-4> 2011년~2014년 자살충동 발생 이유 변화 추이	157



<그림 2-1> 주관적 행복 변화추이	24
<그림 2-2> 행복할 때	25
<그림 2-3> 행복하지 않을 때	25
<그림 2-4> 2013년-2014년 스마트폰 사용률 변화 추이	29
<그림 2-5> 최종 기대학력	32
<그림 2-6> 가출충동, 자살충동, 가출시도율 변화추이	34
<그림 2-7> 가출충동 및 자살충동 이유	34
<그림 3-1> 2013년 어린아청소년 행복지수 OECD 국가비교	36
<그림 3-2> 2009년-2014년 한국 어린아청소년의 행복지수 변화	38
<그림 3-3> 국가별 상대적 빈곤 : 중위수입	39
<그림 3-4> 미취업 가정	40
<그림 3-5> 교육여건	41
<그림 3-6> 문화적 결핍	42
<그림 3-7> 영아사망율	43
<그림 3-8> 저체중아	44
<그림 3-9> 홍역 예방접종	45
<그림 3-10> 소아마비 예방접종	46
<그림 3-11> DPT 예방접종	47
<그림 3-12> 아동사고사	48
<그림 3-13> 읽기시험 점수	49
<그림 3-14> 수학시험 점수	50
<그림 3-15> 과학시험 점수	51
<그림 3-16> 학업유지	52
<그림 3-17> 실업상태	53
<그림 3-18> 학업열망	54
<그림 3-19> 홀부모가정	55
<그림 3-20> 의붓가정	56
<그림 3-21> 함께 식사하기	57
<그림 3-22> 함께 대화하기	58
<그림 3-23> 친절한 급우관계	59
<그림 3-24> 아침식사	60
<그림 3-25> 과일섭취	61
<그림 3-26> 과체중	62
<그림 3-27> 운동	63

<그림 3-28> 흡연	64
<그림 3-29> 음주	65
<그림 3-30> 마약	66
<그림 3-31> 성관계	67
<그림 3-32> 콘돔사용	68
<그림 3-33> 임신과 출산	69
<그림 3-34> 싸움	70
<그림 3-35> 왕따 경험	71
<그림 3-36> 주관적 건강	72
<그림 3-37> 학교생활 만족	73
<그림 3-38> 삶의 만족	74
<그림 3-39> 소속감	75
<그림 3-40> 어울림	76
<그림 3-41> 외로움	77
<그림 4-1> 2011년~2014년 주관적 행복도 변화 추이	80
<그림 4-2> 2011년~2014년 친구관계 변화 추이	93
<그림 4-3> 사교육 이용률	96
<그림 4-4> 2011년~2014년 사교육 이용률 변화 추이	97
<그림 4-6>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주관적 행복 _ 초등학생	103
<그림 4-7> 부모관계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과 주관적 행복 _ 초등학생	104
<그림 4-8>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주관적 행복 _ 중학생	104
<그림 4-9> 부모관계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과 주관적 행복 _ 중학생	105
<그림 4-10>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주관적 행복 _ 고등학생	105
<그림 4-11> 부모관계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과 주관적 행복 _ 고등학생	106
<그림 4-12>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가출충동 경험 _ 초등학생	106
<그림 4-13> 부모관계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과 가출충동 _ 초등학생	107
<그림 4-14>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가출충동 경험 _ 중학생	107
<그림 4-15> 부모관계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과 가출충동 _ 중학생	108
<그림 4-16>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가출충동 경험 _ 고등학생	108
<그림 4-17> 부모관계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과 가출충동 _ 고등학생	109
<그림 4-18> “스마트폰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109
<그림 4-19>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가족이나 친구와 있는 것보다 더 즐겁다”	110
<그림 4-20>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 노력해 보았지만 실패한다”	110
<그림 4-21>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10
<그림 4-22> 게임이용 경험	111
<그림 4-23> 게임이용 시간과 주관적 행복 _ 초등학생	113
<그림 4-24> 부모관계에 따른 게임이용과 주관적 행복 _ 초등학생	113
<그림 4-25> 게임이용 시간과 주관적 행복 _ 중학생	114
<그림 4-26> 부모관계에 따른 게임이용과 주관적 행복 _ 중학생	114
<그림 4-27> 게임이용 시간과 주관적 행복 _ 고등학생	115
<그림 4-28> 부모관계에 따른 게임이용과 주관적 행복 _ 고등학생	115

<그림 4-29> 게임이용 시간과 가출충동 _ 초등학생	116
<그림 4-30> 부모관계에 따른 게임이용 시간과 가출충동 _ 초등학생	117
<그림 4-31> 게임이용 시간과 가출충동 _ 중학생	117
<그림 4-32> 부모관계에 따른 게임이용 시간과 가출충동 _ 중학생	118
<그림 4-33> 게임이용 시간과 가출충동 _ 고등학생	118
<그림 4-34> 부모관계에 따른 게임이용 시간과 가출충동 _ 고등학생	118
<그림 4-35>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지만 게임을 계속하게 된다”	119
<그림 4-36>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생각하며 보낸다”	120
<그림 4-37> “게임을 할수록 점점 오랜 시간 해야 직성이 풀린다”	120
<그림 4-38>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120
<그림 4-39> 멘토 및 역할모델	126
<그림 5-1>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_성별	128
<그림 5-2>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_학교급별	128
<그림 5-3>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_학년별	129
<그림 5-4>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	129
<그림 5-5>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_성별	130
<그림 5-6>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_학년별	130
<그림 5-7>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	131
<그림 5-8>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_학교급별	131
<그림 5-9>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횟수	132
<그림 5-10>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횟수_성별	132
<그림 5-11>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횟수	133
<그림 5-12>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입힌 가해자 명수_성별	133
<그림 5-13>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입힌 가해자 명수_학년별	134
<그림 5-14> 학교폭력 피해 당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기관	134
<그림 5-15> 학교폭력 피해 당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기관 _ 성별	135
<그림 5-16> 학교폭력 피해 당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기관	135
<그림 5-17>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	136
<그림 5-18>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 _ 성별	136
<그림 5-19>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 _ 학년별	136
<그림 5-20>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횟수	137
<그림 5-21>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횟수 _ 학년별	138
<그림 5-22>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대상 명수	138
<그림 5-23> 학교폭력 경험별 유형	139
<그림 5-24> 학교폭력 경험별 유형 _ 성별	139
<그림 5-25> 학교폭력 경험별 유형 _ 학년별	139
<그림 5-26>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횟수	140
<그림 5-27>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횟수	140
<그림 5-28> 가정경제수준별 학교폭력 경험 유형 _ 초등학생	141
<그림 5-29> 가정경제수준별 학교폭력 경험 유형 _ 중학생	141

<그림 5-30> 가정경제수준별 학교폭력 경험 유형 _ 고등학생	141
<그림 5-31>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수준	142
<그림 5-32>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친구과의 관계	142
<그림 5-33>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친구의 수	143
<그림 5-34>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친구의 특성 _ 성적	143
<그림 5-35>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친구의 특성 _ 피해의 경험	144
<그림 5-36>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친구의 특성 _ 가해의 경험	144
<그림 5-37>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친구의 유형	145
<그림 5-38>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부모와의 평소 대화내용	145
<그림 5-39> 학교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로지스틱 회귀분석	146
(값은 오즈비, 진한 막대는 95% 수준에서 유의함)	146
<그림 5-40>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로지스틱 회귀분석	146
(값은 오즈비, 진한 막대는 95% 수준에서 유의함)	146
<그림 5-41> 가출충동 경험률	148
<그림 5-42> 2011년~2014년 가출충동 경험률 변화 추이	149
<그림 5-43> 가출시도 경험	151
<그림 5-44> 2011년~2014년 가출시도율 변화 추이	152
<그림 5-45> 자살충동 경험률	154
<그림 5-46> 2011년~2014년 자살충동 경험률 변화 추이	155
<그림 6-1> 물질적 행복	159
<그림 6-2> 보건과 안전	159
<그림 6-3> 교육	159
<그림 6-4> 가족과 친구관계	160
<그림 6-5> 행동과 생활양식	160
<그림 6-6> 주관적 행복	160



2014년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제1장 연구방법 및 내용

A.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측정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하고, 나아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구체적으로,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삼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안전, 주관적 행복 등 6개 영역에 대한 한국과 다른 OECD 국가의 행복지수를 측정한다.
- 행복지수 조사가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됨에 따라 OECD 국가간 횡단 비교에서 나아가, 시간 흐름에 따른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 2012년도부터 학교폭력 연구를 새로이 추가했다. 학교폭력 문제가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을 분석했으며, 올해(2014년)는 스마트폰과 게임이용, 친구관계 등을 새로이 추가해서 연구했다.

2. 주요연구내용

〈표 1-1〉 주요연구내용

영역	세부내용	
한국과 OECD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비교	1. 물질적 행복	◦ 상대적 빈곤, 미취업 가정, 결핍 등
	2. 보건과 안전	◦ 영아건강, 예방접종, 사고사 등
	3. 교육	◦ 학업성취, 교육참여, 청소년실업 등
	4. 가족과 친구관계	◦ 가족구조, 부모관계, 친구관계 등
	5. 행동과 생활양식	◦ 건강행동, 위험행위 등
	6. 주관적 행복	◦ 주관적 건강, 학교생활, 개인행복 등
생활양식과 행복가치관	1. 생활양식	◦ 부모와의 관계 ◦ 교우관계 ◦ 사교육 실태 ◦ 일상생활
	2. 행복도 및 행복 가치관	◦ 행복 수준 ◦ 행복에 대한 의식
학교폭력 및 일탈행동	1. 학교폭력 경험 및 유형 분석	◦ 학교폭력 인식 수준 ◦ 학교폭력 피해 실태 ◦ 학교폭력 가해 실태 ◦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특성
	2. 일탈행동	◦ 가출 및 자살 충동 경험 실태

B. 연구방법

1. 설문조사

1) 조사설계

- 2014년 설문조사는 2014년 3월 11일에서 4월 7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표본은 시도교육청의 2013년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를 기초로 학급을 표집단위로 했으며, 교급별,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을 고려한 크기비례확률추출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 무작위로 추출된 학급이 소속된 학교의 조사 허락을 받은 후 각 학교에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효표본 수는 총 6,946명으로 초등학교생 1,726명, 중학생 2,572명, 그리고 고등학생 2,648명이다.
- 이 설문조사는 학급을 표집단위로 했기 때문에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 비율이 실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가중치의 산출방식은 첫 번째, 이 설문조사에서는 학급을 표집단위로 했기 때문에 조사된 학급의 학생 수를 동일적으로 맞추는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두 번째, 권역내의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의 비율을 맞추는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세 번째로는 권역내의 성별의 비율을 맞추는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표 1-2〉 설문조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조사지역	전국 (제주도 제외)
표 본 수	총 6,946명 (초등학교생 1,726명, 중학생 2,572명, 고등학생 2,648명)
표본추출방법	크기비례확률추출법(PPS : Probability Propotional to size Sampling) - 시도교육청의 2013년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학급을 표집단위로 하여 교급별,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을 고려하여 크기비례 확률추출
조사방법	배포-수거방식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기간	2014년 3월 12일 ~ 2014년 4월 9일
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
조사분석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 표본 특성

〈표 1-3〉 표본 특성

구분		전체		초		중		고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6,946	100.0	1,726	100.0	2,572	100.0	2,648	100.0	
성별	남	3,685	53.1	903	52.3	1342	52.2	1441	54.4	
	여	3,261	46.9	823	47.7	1230	47.8	1207	45.6	
거주 지역	수도권	3,594	51.7	879	50.9	1354	52.7	1360	51.4	
	강원도	186	2.7	46	2.7	68	2.7	71	2.7	
	충청권	668	9.6	172	10	242	9.4	254	9.6	
	영남권	1,801	25.9	452	26.2	654	25.4	695	26.2	
	호남권	697	10.0	176	10.2	253	9.8	268	10.1	
지역 규모	대도시	3,472	50.0	817	47.3	1247	48.5	1408	53.2	
	중소도시	2,801	40.3	735	42.6	1063	41.3	1004	37.9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673	9.7	174	10.1	263	10.2	236	8.9	
학 교 급	초등 학교	4학년	1,726	-	593	34.4	-	-	-	-
		5학년			570	33.0	-	-	-	-
		6학년			563	32.6	-	-	-	-
	중학교	1학년	2,572	-	-	-	836	32.5	-	-
		2학년			-	-	870	33.8	-	-
		3학년			-	-	866	33.7	-	-
	고등 학교	1학년	2,648	-	-	-	-	-	837	31.6
		2학년			-	-	-	-	919	34.7
		3학년			-	-	-	-	892	33.7

2. OECD 자료

- 행복지수의 영역별 지표 자료는 OECD 국가의 관련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수집했다.
- 대표적으로 OECD 데이터베이스,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자료, HBSC 서베이(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 세계은행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 등을 이용했다.

〈표 1-4〉 행복지수 영역 구성 및 지표 측정 자료 1)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2014년	
					외국자료	한국자료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학생의 비율	0~17세	OECD 2008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가족의 성인이 직업이 없는 학생비율	19세 이하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4 KCWI)
	결핍	교육여건	교육자재를 4개미만 보유하고 있는 비율	15세	OECD/PISA 2009	
		문화적 결핍	집에 책이 10권 미만 있는 아동의 비율	19세 이하	OECD/PISA 2006	
보건과 안전	영아 건강	영아 사망률	사망한 영아의 비율 (출산 1,000명당)	0~12개월	WDI 2011 OECD Health data 2011	
		저체중아의 비율	저체중아의 비율	2500g 이하		
	예방 접종	질병 예방접종 여부	홍역 예방접종	12-23 개월	WDI 2011 UNICEF 2011	
			소아마비 예방접종			
DPT3 예방접종						
사고사	아동사고사	최근 3년 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학생의 비율 (10만명당)	19세 이하	WHO mortality database 2008		
교육	학업 성취	15세 학업성적	읽기 수화 과학 시험점수	15세	OECD/PISA 2009	
	교육 참여	15-19세 아동의 학업유지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비율	15~19세	OECD Education data 2012	
	청소년 실업	실업상태인 청소년	학교, 다른 훈련기관, 직업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	15~19세	OED	교육개발원 2010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기대하는 일자리가 미숙련 일자리인가?	15세	PISA 2006	

1) 교육자재 : PISA(2009)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곳', '학습을 위한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인터넷 연결', '자기만의 계산기', '사전', '학교교과서' 로 총 8개의 항목이 조사된 결과를 보여준다.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2014년		
					외국자료	한국자료	
가족과 친구 관계	가족 구조	홀부모 가정	홀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HBSC 2012	본 연구 설문지 (2014 KCWI)	
		의붓 가정	의붓 아버지/어머니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부모 관계	함께 식사하기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15세	PISA 2000		
		함께 대화하기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학생의 비율				
친구 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급우가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11, 13, 15세	HBSC 2012			
행동과 생활 양식	건강 행동 (증진 행위)	아침식사	학교가기 전에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HBSC 2012	본 연구 설문지 (2014 KCWI)	
		과일섭취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과체중	체질량지수(BMI) 25 이상 비율	13, 15세			
		운동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한 일 수	11, 13, 15세			
	위험 행위	흡연/음주/마약/섹스	흡연/음주 경험 비율	11, 13, 15세	15세		
			마약사용 경험 비율	15세			
임신과 출산	십대출산율	15-19세 (여)	WDI 2011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자신의 건강상태가 ‘전혀 좋지 않다’, ‘별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HBSC 2012	본 연구 설문지 (2014 KCWI)	
	학교 생활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개인 행복	삶의 만족 척도	자신의 삶에 ‘다소’,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15세		PISA 2003
		부정적 생각	소속감을 ‘별로’,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주변상황에 ‘별로’,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다소’, ‘매우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 자료처리 방법

- 올해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in Programming** 과정을 거쳐 전산화했다.
- 올해 설문조사 데이터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했다.
 - ① 지역별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 ② 지역 규모별 : 대도시, 중소도시,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 ③ 교급별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전문 고등학교
- 전산화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TATA SE**와 **SPSS**를 활용해 분석했다.

2) 행복지수 산출 방법

- OECD 자료의 경우 모든 점수를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분포가 되도록 표준화해 사용했다. 개별지표를 표준화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을 구해 지표별 점수를 계산하고, 각 지표의 점수를 더해 다시 산술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구성요소를 점수화했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의 점수를 더해 산술평균을 얻는 방식으로 각 영역의 점수를 구했다. 원자료 가운데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준점수(Z-score)로 전환할 때 부호를 바꿔주었다. 측정질문, 지표, 구성요소, 그리고 영역에 이르는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 한국과 다른 OECD 국가의 행복지수를 비교 연구하는 과정에서 각 영역의 구성요소와 지표는 다음과 같은 표준화 과정을 통해 얻어졌다. 먼저, 각 영역을 점수로 나타내기 위해 구성요소와 지표를 점수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산술평균을 얻는 과정에서 단위가 서로 다른 다양한 수치의 단순 합산은 단위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영역에서 학업성취 점수와 교육참여 아동의 비율을 직접 합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수 사이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모든 점수를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분포가 되도록 표준화해 사용했다. 만약 점수가 70이라면 모든 국가의 평균치에서 약 3개의 표준편차만큼이나 낮은 점수이다. 즉, 개별지표들을 표준화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을 구해 지표별 점수를 계산하고, 각 지표의 점수를 더해 다시 산술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구성요소를 점수화 한 것이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의 점수를 더해 산술평균을 얻는 방식으로 각 영역의 점수를 구했다.
- 원자료 가운데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준점수(Z-score)로 전환할 때, 부호를 바꿔주었다. 예를 들어 영아사망률, 저체중아 비율을 합쳐 어린이의 ‘영아 건강’을 측정하는 경우, 영아 사망률과 저체중아 비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국가는 표준화 점수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도록 표준화 점수의 부호를 바꿔주었다. 그리고 측정질문, 지표, 구성요소, 그리고 영역에 이르는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한 가지 측정 질문이 지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다른 측정 질문보다 클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배제하고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표 1-5〉 2014년 한국 어린아청소년 행복연구(KCM)의 각 지표별 표준점수 2)3)

영역	구성요소	지표	조사대상	OECD 평균	한국 표준점수		
					원점수	구성요소별 표준점수	영역별 표준점수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0-17세	11.5	10.2	102.7	111.9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아동	19세 이하	4.3	3.4	106.5	
	결핍	교육여건	15세	1.8	1.8	107.2	
		문화적 결핍	19세 이하	9.1	5.1		
보건과 안전	영아건강	영아 사망률	0-12개월	3.6	3.0	109.0	111.1
		저체중아 비율	2500g 이하	6.6	4.9		
	예방접종	홍역	12 ~23개월	94.1	99.0	109.3	
		소아마비		96.0	99.0		
		DPT3		95.9	99.0		
	사고사	아동사고사 (10만명당)	19세 이하	23.7	22.4	103.2	
교육	학업성취 (PISA 표준화 점수평균:500)	읽기	15세	503.9	536	120.4	122.2
		수학		501.8	554		
		과학		508.9	538		
	교육참여	15-19세 아동 학업유지	15-19세	85.6	86.0	100	
	청소년 실업	실업상태인 청소년	15-19세	7.2	8.5	105.3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15세	28.7	15.4	115.0	
가족과 친구 관계	가족구조	홀부모 가정	11, 13, 15세	15.0	7.5	121.3	98.9
		의붓 가정	15세	9.5	1.9		
	부모관계	함께 식사하기	15세	78.0	59.6	79.1	
		함께 대화하기		61	44.2		
친구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11,13,15세	67.9	66.0	98.1		
행동과 생활 양식	건강 증진행위	아침식사	11,13,15세	65.5	82.2	135.9	128.8
		과일섭취	11,13,15세	38.8	63.0		
		과체중 (BMI 25 이상)	13, 15세	14.3	6.8		
		운동 (평균 일 수)	11,13,15세	4.0	5.9		
	건강 위협행위	흡연	11,13,15세	24.5	1.5	110.5	
		음주		98	7.5		
		마약		18.0	0.3		
		섹스	15세	24.8	0.7		
임신과 출산	15-19세 (여)	11.7	5.0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주관적 불건강	11,13,15세	14.0	20.0	85.8	74.0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	11,13,15세	27.7	37.6	114.2	
	개인행복	삶의 만족	15세	85.8	67.6	76.7	
		비소속감		6.7	13.0		
		어울림		9.2	5.7		
		외로움		7.4	18.0		

2) 생활과 행동양식영역에서 '폭력의 경험' 은 한국에서 유니세프 연구와 같은 지표화와 측정이 쉽지 않았으므로 제외되었다. 행동과 생활양식 영역에서 콘돔사용에 대한 질문은 한국 청소년의 성행위 경험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표산출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3) UNICEF의 원지표는 '지난 1주일간에 한하여 음주여부' 를 묻는 질문인데 반해, 본 연구 설문지(KCM)는 '지금까지 두번 이상 음주경험' 을 물었기 때문에 한국의 비율이 과대측정 되었다



2014년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제2장 연구결과 요약

A. 2014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 2014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지난 5년간의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교육’과 ‘생활양식’ 영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물질적 행복’과 ‘보건과 안전’ 영역도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 ‘주관적 행복’ 지수의 세부영역인 학생들의 ‘주관적 건강’, ‘학교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어울림’ 향상으로 인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올해도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 2009년~2014년의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 2-1〉 2009년~2014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변화

구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2009년	89.1	110.5	123.4	91.6	95.1	64.3
2010년	96.9	104.2	109.6	99.4	129.2	65.1
2011년	110.7	102.6	127.8	96.1	129.3	65.98
2012년	110.1	102.6	133.9	96.7	126.6	71.4
2013년	110.8	108.4	122.9	95.1	129.1	72.5
2014년	111.9	111.1	122.2	98.9	128.8	74.0

주 : OECD 국가의 평균은 100점, 표준편차는 10점

* 2009년에는 '행동과 생활양식' 측정에서 과일섭취, 운동 지표가 포함되지 않아 낮게 측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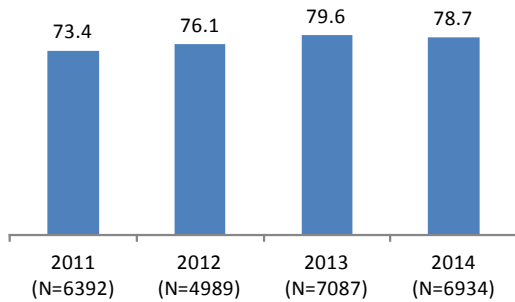
B. 생활양식과 행복가치관

1. 주관적 행복

- 2014년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 2013년 대비 0.9% 포인트 감소한 78.7%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성적과 가정경제수준이 낮아질수록 주관적 행복감 떨어짐.
- 5개 항목별 삶에 대한 만족감 확인 결과, ‘외로움’ 항목을 제외한 전 요소에서 전년 대비 소폭의 긍정적인 변화 나타남.

〈그림 2-1〉 주관적 행복 변화추이

(단위 : 매우 그렇다+그렇다, %)



〈표 2-2〉 2014년 집단별 주관적 행복

(단위 : 매우 그렇다+그렇다, %)

변수	집단		
	학교급	초등학생 87.2	중학생 78.8
성적	상위집단 89.0	중간집단 78.6	하위집단 57.0
가정경제 수준	상위집단 85.8	중간집단 81.5	하위집단 71.4

〈표 2-3〉 2011년~2014년 세부 요소별 주관적 행복 수준 변화 추이

(단위 : 5점 척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사례수	6,410	5,000	7,104	6,946	
건강하다고 생각	4.03	4.08	4.09	4.11	▲0.2
학교생활 매우 좋아함	3.69	3.72	3.75	3.87	▲1.2
내 삶에 만족	3.57	3.66	3.70	3.75	▲0.5
준거집단 소속감	3.54	3.63	3.56	3.68	▲1.2
주변에 어울림과 적응	3.91	3.95	3.96	4.0	▲0.4
외로움 안느낌	3.83	3.86	3.84	3.8	▽0.4
종합평균	3.76	3.82	3.82	3.87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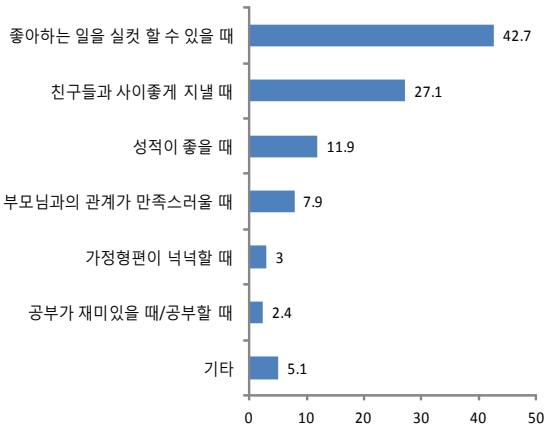
2. 행복 가치관

1) 행복할 때와 행복하지 않을 때, 행복을 느끼는 장소

- 행복할 때 : 좋아하는 일을 실패할 수 있을 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행복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0% 이상 차지.
- 행복하지 않을 때 : 성적에 대한 압박, 학습부담이 너무 클 때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4% 수준.
- 성적이 좋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응답은 11.9%에 불과 : 부모세대가 강조하는 공부와 성적이 청소년들 스스로에게 행복의 핵심 요소가 아님을 보여줌.
- 행복을 느끼는 장소나 집단 : 친구와 모이는 장소 및 집이 차지하는 비중 압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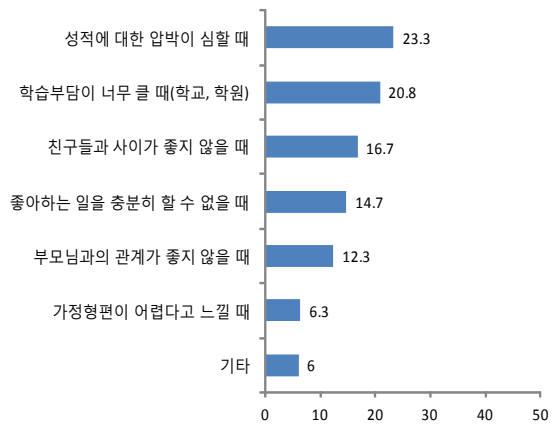
〈그림 2-2〉 행복할 때

(N=6,925, 단위(%))



〈그림 2-3〉 행복하지 않을 때

(N=6,901, 단위(%))



〈표 2-4〉 행복을 느끼는 장소 및 집단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주관적 행복	
		초	중	고	남	여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사례수	6,934	1,725	2,569	2,640	3,677	3,257	5,449	979
친구와 모이는 장소	35.3	25.8	38.7	38.1	35.1	35.5	35.1	38.7
집	32.3	48.2	27.2	26.8	33.2	31.3	35.8	17.3
학교	12.0	10.0	13.0	12.4	11.8	12.3	13.5	6.5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	7.7	4.4	8.2	9.2	6.5	9.0	5.2	17.7
학원	1.8	1.9	1.8	1.7	1.8	1.7	1.8	2.2
동아리	1.1	1.0	1.2	1.0	1.3	0.8	1.1	1.0
기타	4.1	2.8	4.4	4.7	4.8	3.4	3.7	5.4
특별히 없다	5.8	5.8	5.4	6.1	5.6	5.9	3.8	1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행복의 요건

-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화목한 가족 26.2% > 성적 향상 14% > 자유 13.8%
- 학교급별 차이
 - 초등학교 : 화목한 가족 43.6% > 건강 20.6% > 자유 13%
 - 중학생 : 화목한 가족 23.5% > 성적 향상 15.4% > 자유 15.2%
 - 고등학생 : 돈 19.2% > 성적 향상 18.7% > 화목한 가족 17.5%
- 주관적 행복감 정도에 따른 차이
 - 행복집단 : 화목한 가족 29.3% > 건강 14.3% > 성적 향상 13.5%
 - 행복하지 않은 집단 : 돈 22.1% > 자유 19.8% > 성적 향상 16.6%

〈표 2-5〉 행복의 요건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주관적 행복	
		초	중	고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사례수	6,914	1,711	2,561	2,641	5,429	978
화목한 가족	26.2	43.6	23.5	17.5	29.3	13.4
성적 향상	14.0	4.6	15.4	18.7	13.5	16.6
자유	13.8	13.0	15.2	13.0	12.4	19.8
돈	13.4	5.6	12.8	19.2	11.4	22.1
건강	12.7	20.6	11.1	9.0	14.3	5.5
동성 친구	8.5	4.9	11.2	8.3	8.4	8.1
이성 친구	5.4	2.4	5.5	7.2	5.2	6.5
자격증(기술 등)	1.5	1.7	1.1	1.7	1.4	1.5
종교	1.0	0.9	0.7	1.4	1.2	0.5
기타	3.5	2.6	3.6	3.9	2.9	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가족과 친구관계

1) 부모·자녀 관계

-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모·자녀간 친밀감에 대한 조사결과를 비교한 결과,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모두 근소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점수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 추세를 나타냄

〈표 2-6〉 2011년~2014년 부모와의 관계 변화 추이

(단위 : 5점 척도)

구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사례수	6,410	5,000	7,104	6,946		6,410	5,000	7,104	6,946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4.21	4.18	4.22	4.26	▲ 0.4	4.53	4.53	4.56	4.58	▲ 0.2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	3.69	3.74	3.83	3.87	▲ 0.4	4.12	4.18	4.23	4.28	▲ 0.5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3.66	3.69	3.76	3.8	▲ 0.4	4.04	4.10	4.14	4.16	▲ 0.2
부모님에게 어떤 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	3.25	3.34	3.43	3.47	▲ 0.4	3.77	3.87	3.89	3.96	▲ 0.7
종합평균	3.70	3.74	3.81	3.85	▲ 0.4	4.12	4.17	4.21	4.24	▲ 0.3

- 전반적으로 어머니와의 친밀감이 아버지와의 친밀감보다 높은 편임.
- 세부 항목별 전년 대비 변화 추이 :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4개 항목 모두 지난 해보다 0.4점씩 증가함.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4개 항목 모두 전년 대비 증가를 보였으며, ‘어머니에게 어떤 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항목이 0.7점으로 가장 많이 상승함.

2) 교우 관계

- 어린아청소년들의 교우관계는 3개 항목, 5점 척도로 측정함. 2014년의 경우 3개 항목 중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매우 그렇다 + 그렇다) 응답률이 전체 9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 특성 : 초중고생 모두 90% 이상의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고 응답함. 중고생의 경우 초등학생에 비해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거나 ‘친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학교급이 올라가 성장해가면서 친구관계의 의미가 보다 내면적인 동질성과 유대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숙해짐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성별 차이 :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같은 생각과 감정 공유’ 및 ‘고민을 나누는’ 등의 내면적 교류 경향이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친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53.8%인데 비해 여학생은 71.3%. 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여겨지는 정서적 공감능력이 친구들과의 관계형성 및 유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주관적 행복 수준에 따른 차이 : 3개 항목 공통으로 ‘행복하다’는 집단에 비해 ‘행복하지 않다’는 집단의 긍정 응답률이 낮게 나타남.

〈표 2-7〉 친구관계

(단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주관적 행복	
		초	중	고	남	여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사례수	6,665	1,643	2,495	2,527	3,491	3,174	5,277	916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95.1	94.7	95.4	95	94.2	96.1	96.5	89.3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72.1	65.7	74.5	73.9	69.9	74.6	73.6	66.0
내 고민을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62.1	49.2	63.6	69.1	53.8	71.3	63.9	57.3

4. 학교생활 및 사교육 실태

1) 학교생활 성실도와 (학교) 성적 스트레스

- 학교생활 성실도 :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성실도를 측정한 결과, 3개 항목의 5점 척도 종합 평균은 2.99점. 초등학생이 종합평균 3.18점으로 중고생에 비해 학교생활 성실도가 높은 편임. 행복집단, 성적과 가정경제수준 상위 집단의 학교생활 성실도가 높은 편임. 행복감, 성적, 경제수준 등 생활 전반의 안정성이 청소년들의 성실한 학교생활의 밑바탕이 되어 주고 있음을 시사함.
- (학교) 성적 스트레스 : 전체 응답자의 45.1%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함.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주관적 행복 수준이 낮은 집단이 ‘행복하다’는 집단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2-8〉 학교생활 성실도

(단위 : 5점 척도)

구분	전체	학교급			주관적 행복		성적			가정경제 수준		
		초	중	고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상	중	하	상	중	하
사례수	6,946	1,726	2,572	2,648	5,457	979	1,431	2,828	2,005	1,216	5,054	539
몸이 아프거나, 핑계가 있어도 매일 학교에 가려고 노력 한다	3.24	3.27	3.17	3.30	3.29	3.05	3.49	3.24	3.10	3.33	3.24	3.11
학교수제나 시험을 위해 좋아하지 않는 과목까지 최선을 다한다	2.89	3.15	2.89	2.73	2.97	2.58	3.38	2.95	2.52	3.14	2.86	2.64
모든 숙제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들여 최선을 다한다	2.82	3.12	2.76	2.69	2.89	2.53	3.19	2.88	2.52	3.08	2.79	2.51
종합평균	2.99	3.18	2.94	2.91	3.05	2.72	3.35	3.03	2.71	3.18	2.97	2.75

〈표 2-9〉 (학교)성적 스트레스

(단위 : %, 5점 척도 평균)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주관적 행복		성적		
		초	중	고	남	여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상	중	하
사례수	6,884	1,718	2,548	2,619	3,649	3,235	5,407	971	1,425	2,818	1,989
그렇지 않다	31.3	58.7	27.9	16.6	35.1	27.0	34.8	17.5	44.1	32.8	22.3
보통	23.6	21.4	26.7	22.1	24.1	23.1	24.9	16.9	21.2	25.4	23.4
그렇다	45.1	19.9	45.4	61.3	40.8	49.9	40.3	65.6	34.8	41.8	5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점 평균	3.13	2.33	3.18	3.59	3.01	3.26	2.98	3.72	2.75	3.06	3.41

2) 사교육 실태

- 사교육 이용률 : 전체 초중고생의 72.3%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학교급이 낮을수록,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사교육 이용비율이 높아짐.
- 사교육 이용 기관 수는 1인당 평균 2개 정도이고, 학교급이 낮을수록,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사교육 이용 개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주당 사교육 시간은 전체 평균 9시간 정도로 나타남.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가장 높고, 성적에 따라서는 상위집단일수록 사교육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표 2-10〉 사교육 실태

(단위 : %, 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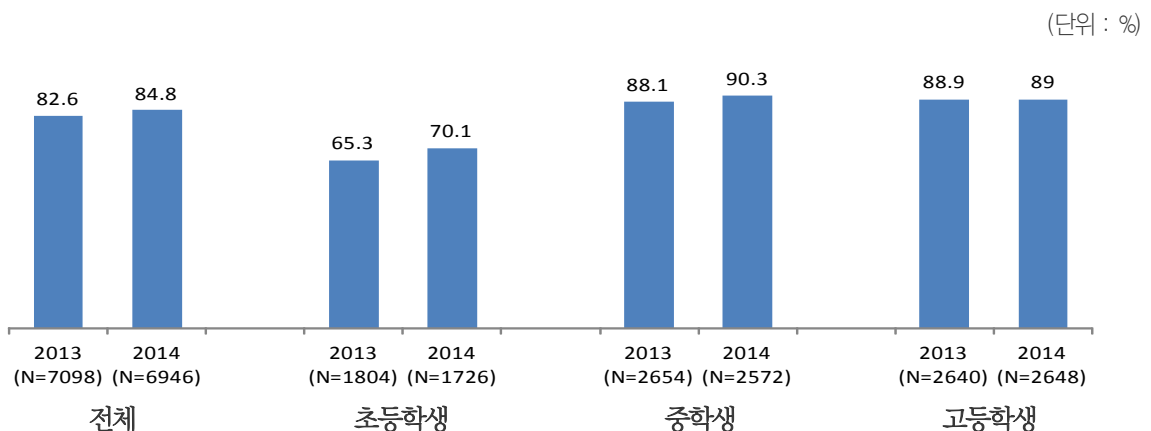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교급			성적		
		초	중	고	상	중	하
사교육 이용률 (%)	72.3	87.9	76.1	58.6	84.9	78.8	56.0
1인당 평균 사교육 종류 (개)	2.01	2.68	1.85	1.55	2.52	2.02	1.51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 (시간)	9.05	8.90	9.71	8.36	10.14	9.10	7.81

5. 스마트폰 및 게임 이용 실태

1) 스마트폰 이용률 및 스마트폰 의존도

- 초중고생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초등학생의 이용비율이 지난해 대비 증가함.

〈그림 2-4〉 2013년~2014년 스마트폰 사용률 변화 추이



- 6개 항목(5점 척도)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1.78점으로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성적이 낮은 하위집단으로 갈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경향이 발견됨.

〈표 2-11〉 스마트폰 의존도

(단위 : 5점 척도 평균)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사례수	6,946	1,726	2,572	2,648	3,685	3,261	1,431	2,828	2,005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1.78	1.41	1.8	1.96	1.74	1.82	1.48	1.72	2.03
가족/친구와 함께하기보다 스마트폰 사용이 더 즐겁다	1.55	1.33	1.61	1.61	1.52	1.59	1.45	1.48	1.67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1.98	1.56	2.02	2.17	1.91	2.07	1.78	1.91	2.18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봤으나 실패했다	1.86	1.60	1.90	1.95	1.77	1.95	1.70	1.81	1.99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학원수강)을 하기 어렵다	1.87	1.43	1.91	2.05	1.76	1.98	1.69	1.79	2.03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64	1.29	1.66	1.80	1.54	1.74	1.49	1.56	1.81
평균	1.78	1.44	1.82	1.92	1.71	1.86	1.60	1.71	1.95

- 스마트폰 및 게임 이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크게 네 가지 부문 - 이용 현황, 주관적 행복, 가출충동 경험, 일상생활 영역 - 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스마트폰 보유율은 초등학생 70.1%, 중학생 90.3%, 고등학생 89%로 높은 수준이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중학생 185분, 고등학생 167분, 초등학생 111분으로 나타남.
 -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1시간 이하일 때 53.1%로 가장 높으며,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면 이 비율이 37.5%로 감소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은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관계없이 60% 이상이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하루 3시간 넘게 사용할 때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크게 높아짐.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들은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관계 없이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전체 평균(19.4%)보다 낮았음.
 - 중학생 10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사용이 가족이나 친구와 있는 것보다 더 즐겁다’고 생각함.
 - 학생 10명 중 9명 이상이 게임이용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생각하며 보낸다’고 답함.

- 초등학교의 경우 게임이용 시간이 증가할 때 주관적 행복감이 감소하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은 게임이용 시간이 늘어도 행복감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음.
- 게임이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기출충동을 경험하는 비율 역시 높아졌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초등학교 학생은 게임이용 시간이 하루 세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출충동 경험 비율이 전체 평균(19.4%)보다 크게 낮았음.

2) 게임 행태 및 의존도

- 최근 6개월간 게임 이용경험률, 게임 빈도, 1일 평균 게임 시간 등을 조사함. 전체 초중고생의 92% 정도가 게임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게임빈도와 게임시간을 고중저로 구분해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생보다는 중고생집단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성적 상위집단보다는 하위집단으로 갈수록 게임을 자주, 장시간 하는 것으로 확인됨.
- 게임 의존도는 5점 척도 평균 1.8점 수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행복하지 않은 집단, 성적이 낮은 집단일수록 게임에 대한 의존도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표 2-12〉 게임 행태

(단위 : %)

구분 (최근 6개월간의 경험)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게임경험률 (%)			92.3	93.0	93.7	90.3	95.5	88.6	91.5	92.9	92.9
게임 빈도	고	매일	14.2	14.3	17.1	11.1	17.6	9.9	10.4	13.1	18.1
		1주일에 5-6회	14.6	14.7	16.5	12.6	17.4	11.2	10.6	14.9	16.9
	중	1주일에 3-4회	21.5	20.8	23.4	20.0	24.7	17.5	20.5	22.3	22.0
		1주일에 1-2회	25.7	29.3	23.4	25.7	28	22.9	28.6	26.4	22.7
저	거의 하지 않았다	24.1	20.9	19.7	30.6	12.3	38.5	29.8	23.3	20.3	
하루 평균	고	4시간 이상	6.4	6.0	5.8	7.3	8.6	3.7	4.1	6.0	8.7
		3-4시간 미만	8.5	6.0	8.8	10.0	11.6	4.7	4.7	7.9	12.1
게임 시간	중	2-3시간 미만	16.0	10.7	18.0	17.6	22.0	8.8	10.3	15.9	20.0
		1-2시간 미만	26.8	26.9	29.9	23.7	32.8	19.5	26.7	26.3	27.8
	저	1시간 미만	42.2	50.4	37.6	41.3	24.9	63.2	54.1	43.9	31.4

〈표 2-13〉 게임 의존도

(단위 :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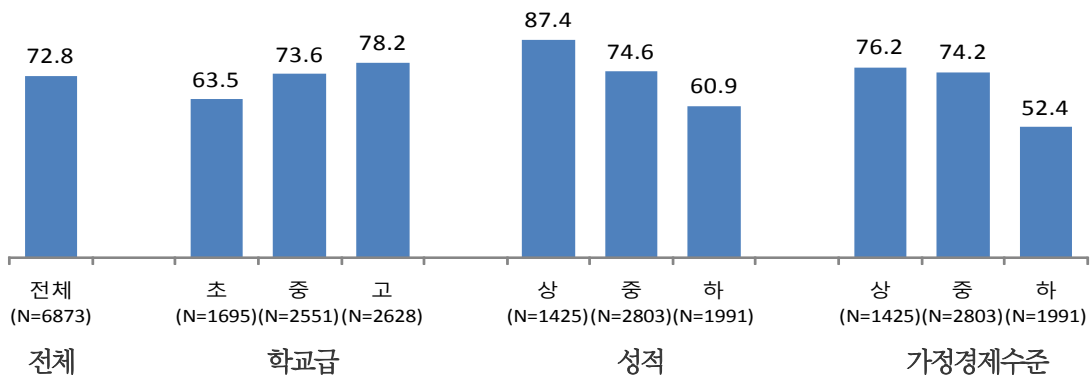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주관적 행복		성적		
		초	중	고	남	여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상	중	하
사례수	6,946	1,726	2,572	2,648	3,685	3,261	5,457	979	1,431	2,828	2,005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짜증과 화가 난다	1.77	1.54	1.86	1.82	2.0	1.48	1.72	1.97	1.64	1.72	1.92
원래 계획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	2.10	1.74	2.14	2.30	2.36	1.78	2.05	2.33	1.92	2.03	2.30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생각하며 보낸다	1.65	1.52	1.72	1.66	1.91	1.33	1.60	1.85	1.45	1.61	1.82
게임을 할수록 점점 더 오랜 시간동안 해야 직성이 풀린다	1.71	1.5	1.78	1.78	1.97	1.39	1.66	1.91	1.51	1.68	1.87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지만 게임을 계속하게 된다	1.79	1.49	1.84	1.94	2.06	1.47	1.73	2.06	1.53	1.73	2.04
게임 의존도 (종합평균)	1.80	1.56	1.87	1.90	2.06	1.49	1.75	2.02	1.61	1.75	1.99

6. 주관적 미래 전망 : 기대학력 및 미래직업

- 전체 응답자의 72.8%가 4년제 및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학력 기대비율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함. 반면, 성적이 낮을수록, 가정경제수준이 좋지 않을수록 고학력 기대 비율이 낮아짐.
- 전체 응답자의 67.9%가 사무/전문관리직, 이른바 화이트칼라 직업을 자신의 미래 희망직업으로 선택함. 성적이 낮은 하위집단으로 갈수록 사무/전문관리직 선택 비율이 낮아짐.

〈그림 2-5〉 최종 기대학력

(4년제 대졸 + 대학원 이상) 기대 비율 (%)



〈표 2-14〉 장래 희망직업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사례수	6,867	1,696	2,542	2,628	3,637	3,230	1,424	2,801	1,988
사무/전문/관리직	67.9	66.1	69.1	67.9	67.8	67.9	76.4	69.5	60.0
판매/서비스/영업직	17.0	18.1	17.3	16.1	13.0	21.6	12.8	16.5	20.6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6.6	5.2	5.0	9.0	10.6	2.0	5.1	5.6	9.0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5.1	5.6	5.2	4.7	5.9	4.2	3.9	4.7	6.6
주부	1.4	3.5	1.1	0.3	0.0	3.0	0.9	2.1	0.8
농림/어업	0.4	0.5	0.4	0.4	0.4	0.4	0.2	0.4	0.6
무직/기타	1.6	1.0	1.9	1.6	2.2	0.9	0.6	1.3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 학교폭력과 일탈행동

1. 학교폭력

- 학교폭력의 인식수준, 피해가해 실태, 유형별특성 및 유형별 친구관계를 살펴봄.
 -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18.6%로 5명 중 1명은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함.
 -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4%로, 2013년의 9.3%보다 약 4% 감소함.
 - 학교폭력 피해 경험 횟수 평균은 3.63번으로, 남학생(4.56번)이 여학생(2.63번)에 비하여 더 많은 횟수를 기록함.
 -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3.1%로, 2013년 5.4%보다 약 2% 감소함.
 - 학교급이 상승할수록 가해 경험 비율은 감소함(초등학생 4.8% → 중학생 3.2% → 고등학생 1.9%).
 - 무경험형이 9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피해형(4.4%), 가해형(2.1%), 양자형(1.0%)순으로 나타남.
 -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구의 수를 살펴보면, 가해형인 경우 평균 친구수가 7.66로 가장 많았고, 피해형은 평균 5.85명으로 가장 적은 친구 숫자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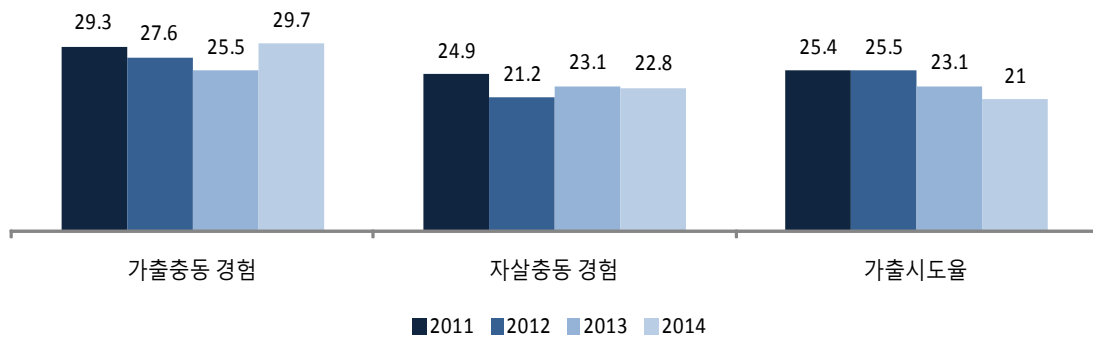
2. 가출 및 자살

- 가출충동 경험률은 전년 대비 4.2% 포인트 증가, 자살충동 경험률 및 가출시도율은 전년 대비 각각 0.3% 포인트, 2.1% 포인트 감소함.

- 2014년 기준, 가출충동 경험률은 29.7%로 3명 중 1명꼴, 자살충동 경험률은 22.8%로 5명 중 1명꼴로 나타남. 가출충동 경험자들 중 21%는 실제로 가출을 시도해본 것으로 조사됨.
- 가출 및 자살충동에 대한 이유의 1순위는 부모와의 갈등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가출의 경우 부모와의 갈등이 압도적인 이유를 차지한 것과 달리 자살충동은 부모와의 갈등 이외에 성적 하락, 친구와의 갈등, 주위의 무관심 등 가출에 비해 그 이유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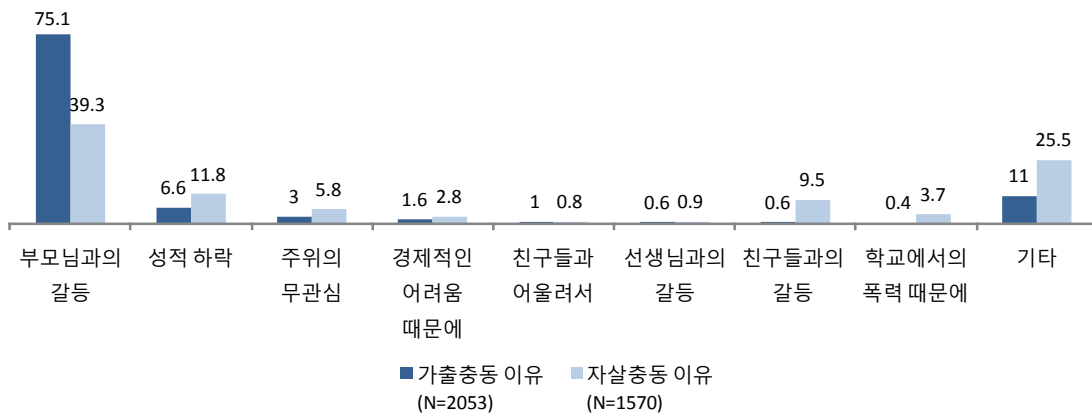
〈그림 2-6〉 가출충동, 자살충동, 가출시도율 변화추이

(단위 : %)



〈그림 2-7〉 가출충동 및 자살충동 이유

(단위 : %)





2014년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제3장 한국과 OECD 행복지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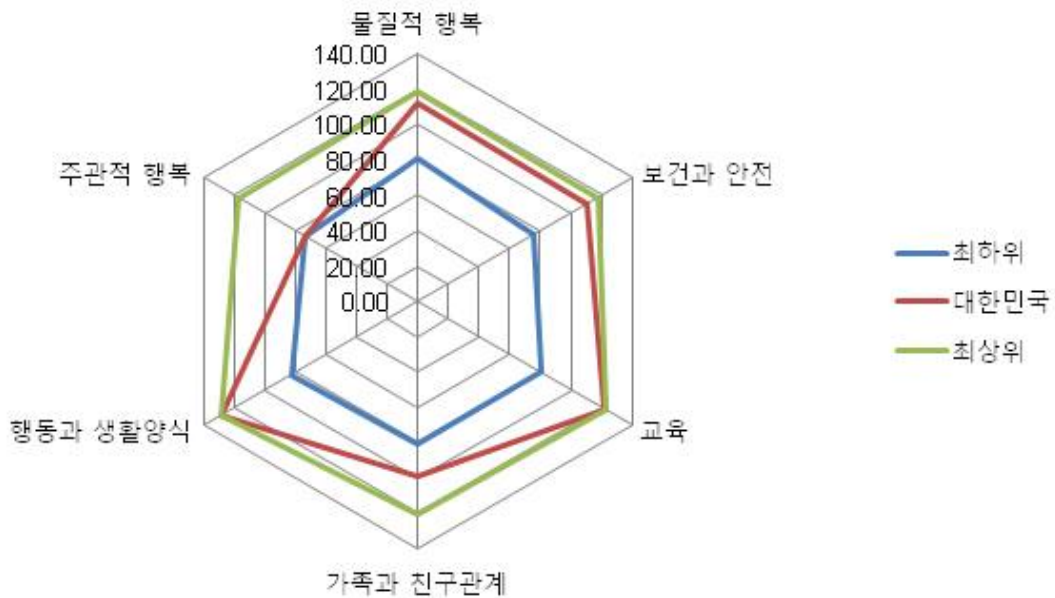
A. 행복지수분석 : 한국과 OECD 비교

1. 어린이 · 청소년 행복지수 국가비교

-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한 2014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에서 건강과 위험행위를 측정하는 ‘행동과 생활양식’에서 128.8(OECD국가 평균=100)로 최상위 점수를 기록하는 등 5개 영역에서 중상 위권을 유지했지만, 유일하게 주관적 행복지수에서만 현저한 꼴찌를 기록했다. 유니세프 행복지수는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림 3-1〉 2013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국가비교

(OECD국가평균=100)



〈표 3-1〉 2014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국가비교

(OECD국가평균=100)

구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최하위국	80.51	75.60	80.23	80.48	82.84	74.0
대한민국	111.9	111.1	122.2	98.9	128.8	74.0
최상위국	118.95	117.65	123.51	120.20	128.8	117.68

2. 2014년도 OECD 국가 행복지수 영역별 비교⁴⁾

〈표 3-2〉 2014년도 영역별 OECD 국가 행복지수

(OECD국가평균=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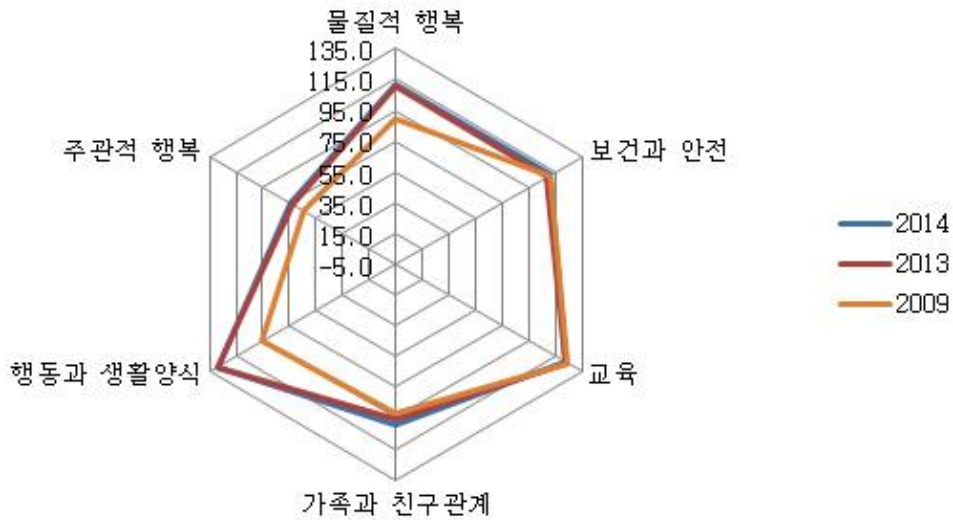
국가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스페인	106.72	97.99	③ 109.43	107.5	93.99	① 117.68
네덜란드	103.87	108.98	105.85	② 115.76	107.51	② 114.69
그리스	95.56	99.76	93.67	92.63	93.61	③ 111.73
이탈리아	100.62	102.02	104.67	① 120.20	93.99	107.44
스위스	-	101.00	91.23	107.08	97.16	106.06
오스트리아	② 113.33	79.67	80.23	91.67	99.11	105.59
미국	80.51	75.6	102.27	80.48	-	105.36
스웨덴	-	① 117.65	90.32	104.48	-	104.90
아일랜드	-	105.25	① 123.51	103.66	106.02	103.95
핀란드	① 118.95	② 113.21	96.69	94.71	98.47	102.34
독일	95.41	102.64	93.9	100.49	101.85	101.88
프랑스	104.36	105.39	100.82	97.30	97.41	101.45
체코	111.72	102.00	95.55	90.90	82.84	100.87
노르웨이	-	108.67	89.77	107.56	③ 110.58	100.42
포르투갈	92.93	87.89	104.36	③ 114.72	104.51	100.37
영국	93.24	100.07	95.66	86.15	93.19	96.96
덴마크	-	99.71	91.83	104.14	② 113.30	94.88
캐나다	-	99.36	-	84.81	99.25	93.19
헝가리	92.17	93.75	90.53	99.52	90.66	88.10
벨기에	98.28	96.39	106.69	103.11	97.57	85.43
폴란드	85.98	97.00	108.95	92.67	90.15	85.40
한국	③ 111.92	③ 111.06	② 122.18	98.85	① 128.84	74.04
호주	-	95.38	100.20	-	-	-
일본	99.64	107.4	-	-	-	-
뉴질랜드	94.79	83.14	103.08	-	-	-
아이슬란드	109.02	98.62	101.62	-	97.28	-

4) 행복지수 수치가 비어 있는 곳은 관련 데이터가 없는 경우임.

3. 2009-2014 한국 행복지수 변화추이

〈그림 3-2〉 2009년~2014년 한국 어린아청소년의 행복지수 변화

(OECD국가평균=100)



〈표 3-3〉 2009년~2014년 한국 어린아청소년의 행복지수 변화

(OECD국가평균=100)

구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2009년	89.1	110.5	123.4	91.6	95.1	64.3
2010년	96.9	104.2	109.6	99.4	129.2	65.1
2011년	110.7	102.6	127.8	96.1	129.3	66.0
2012년	110.1	102.6	133.9	96.7	126.6	71.4
2013년	110.8	108.4	123.0	95.1	129.1	72.5
2014년	111.9	111.1	122.2	98.9	128.8	74.0

주 : OECD 국가의 평균은 100점, 표준편차는 10점

* 2009년에는 '행동과 생활양식' 측정에서 과일섭취, 운동 지표가 포함되지 않아 낮게 측정됨

B. 물질적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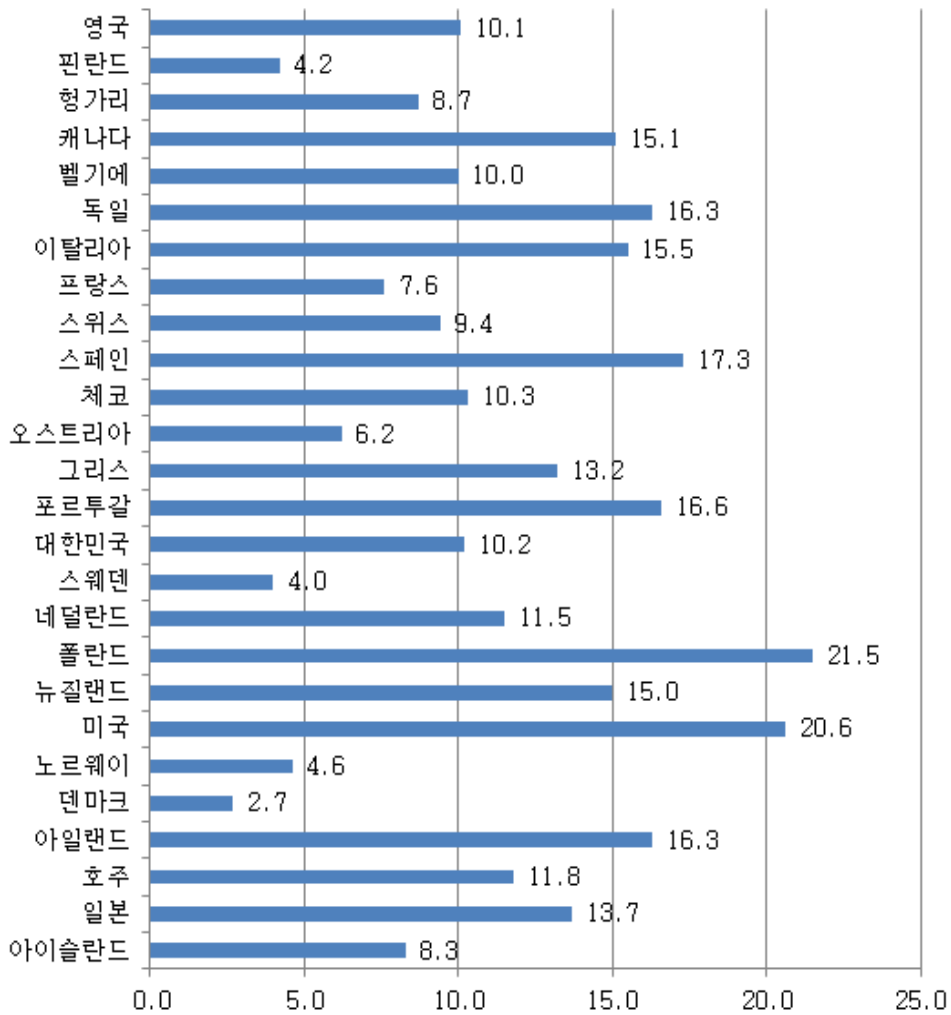
1.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 개별국가에서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아동의 비율

- 한국의 상대적 빈곤 비율은 10.2%로 OECD 국가 평균(11.5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국가별 상대적 빈곤 : 중위수입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상대적 빈곤	11.57	5.08	2.7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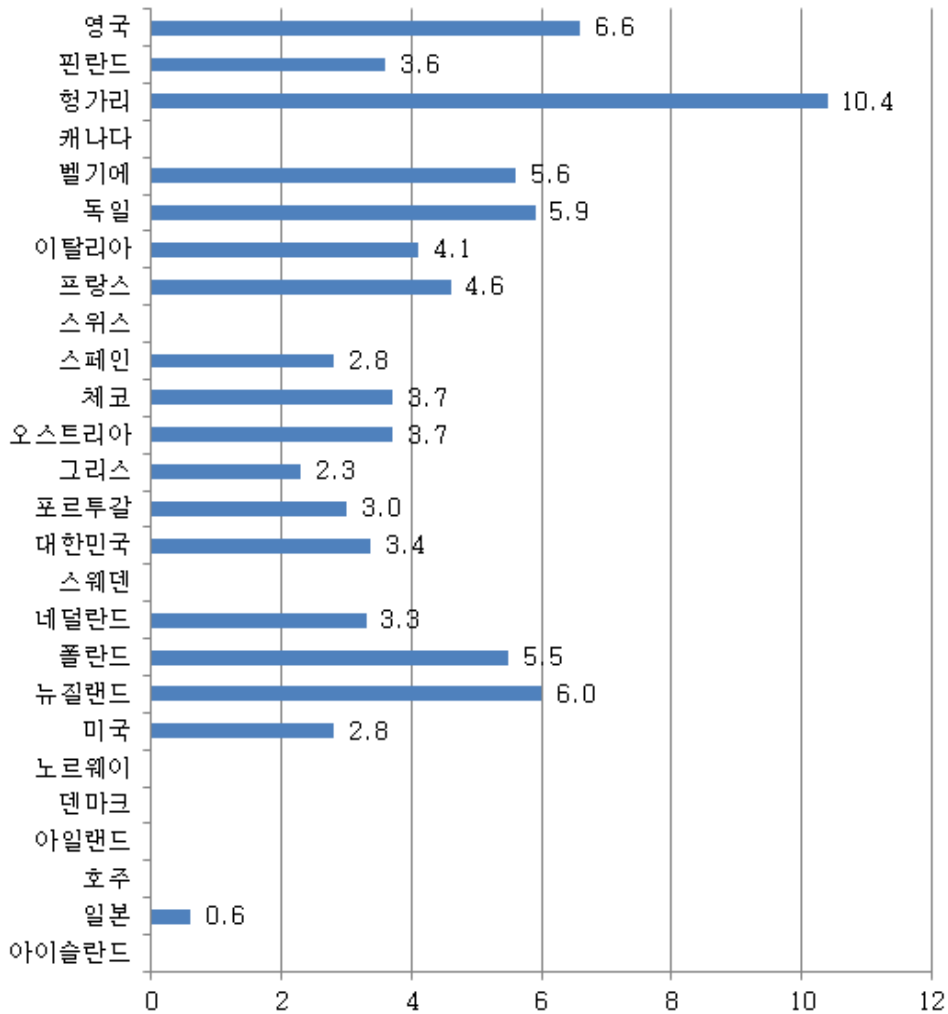
2.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 가정의 성인이 취업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비율

- 한국의 미취업 가정 비율은 3.65%로 OECD 국가 평균인 4.3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미취업 가정

(단위 : %)



미취업 가정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4.33	2.14334	0.6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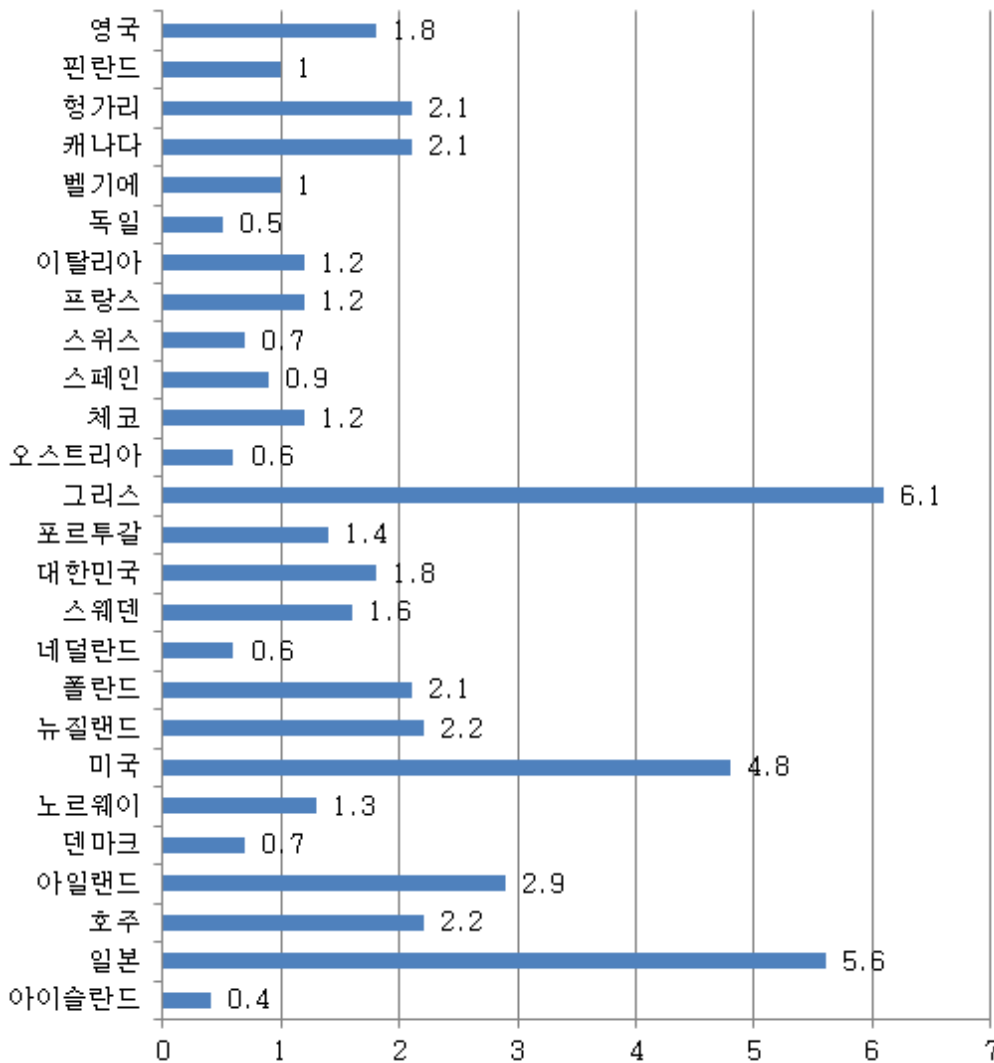
3. 빈곤

교육여건 : 교육자재 책상, 조용한 곳, 컴퓨터, 교육 소프트웨어, 인터넷, 계산기, 사전, 학교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책을 4개 미만 소유한 비율
 문화적 결핍 : 집에 책이 10권 이상 있는 아동의 비율

- 한국의 교육여건 관련 수치는 1.85%로 OECD 국가 평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3-5〉 교육여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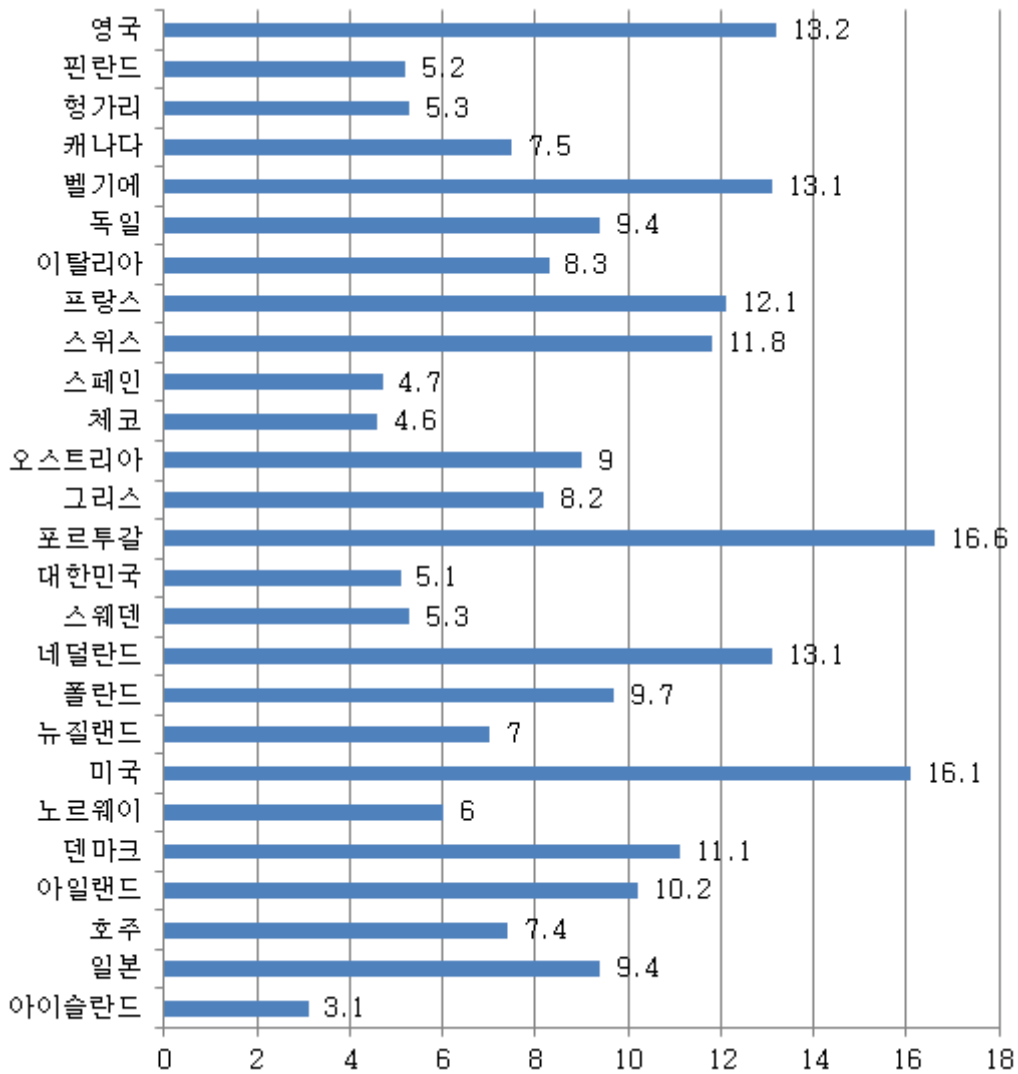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교육여건	1.85	1.49993	0.4	6.1

4. 문화적 결핍

- 한국의 문화적 결핍 수치는 5.1로 OECD 국가 평균(8.94)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문화적 결핍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문화적 결핍	8.94	3.64463	3.1	16.6

C. 보건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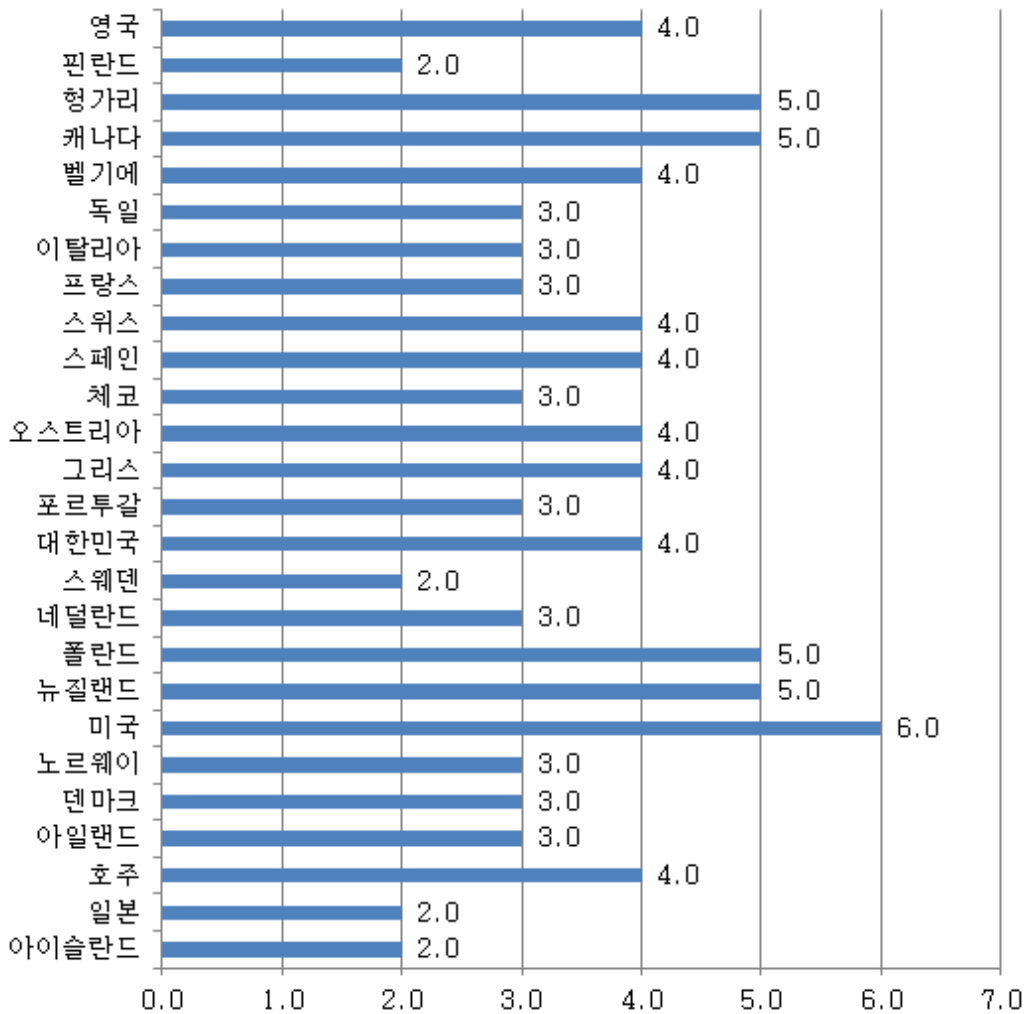
1. 영아건강

영아사망률 : 사망한 0~1세의 비율(출산 1,000명당)
저체중아 비율 : 2.5kg 이하 저체중아의 비율

-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4.0%로 OECD 국가 평균(3.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영아사망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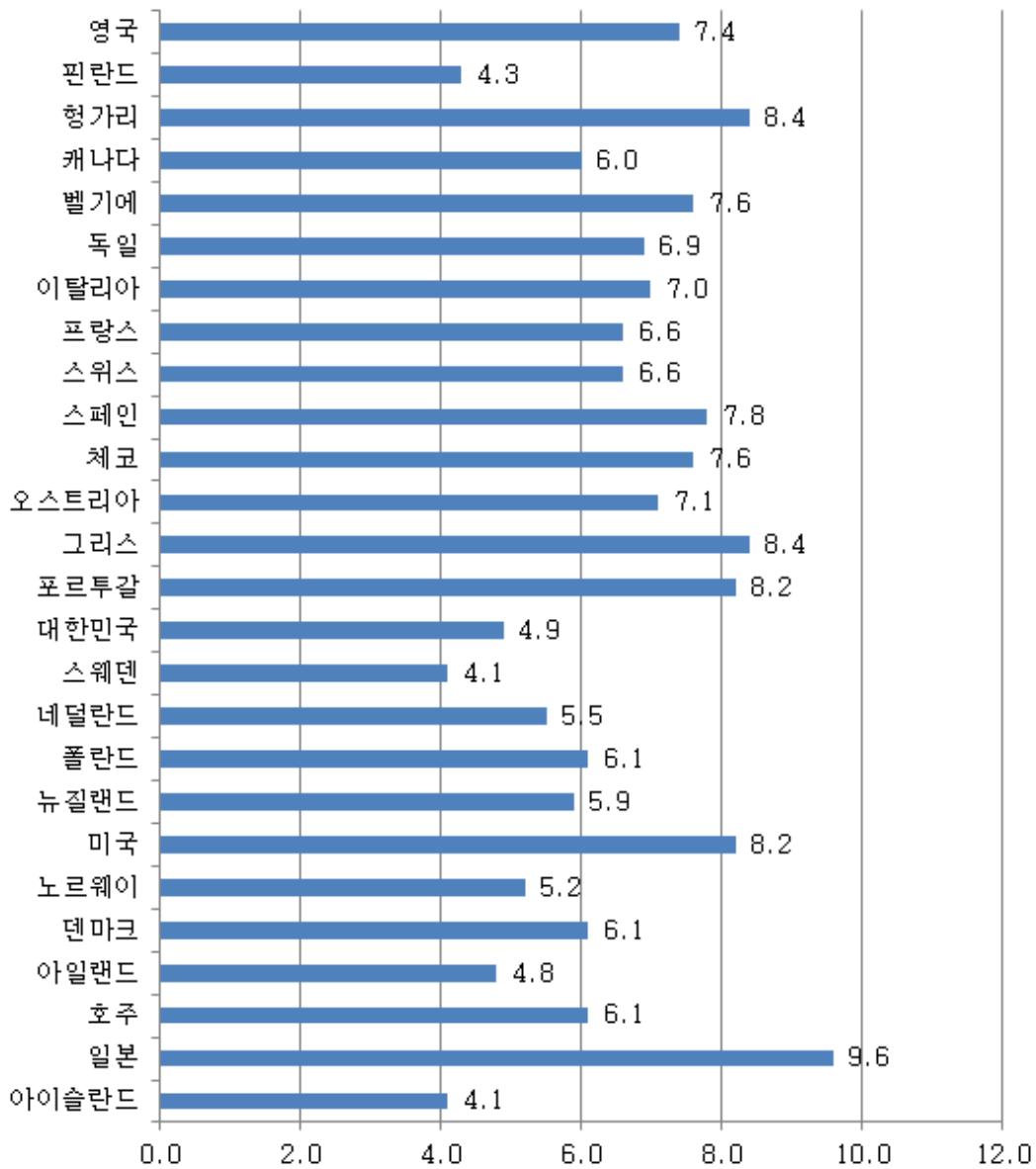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영아사망률	3.58	1.06	2	6

- 한국의 저체중아 비율은 4.9%로 OECD 국가 평균6.5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저체중아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저체중아	6.56	1.47	4.1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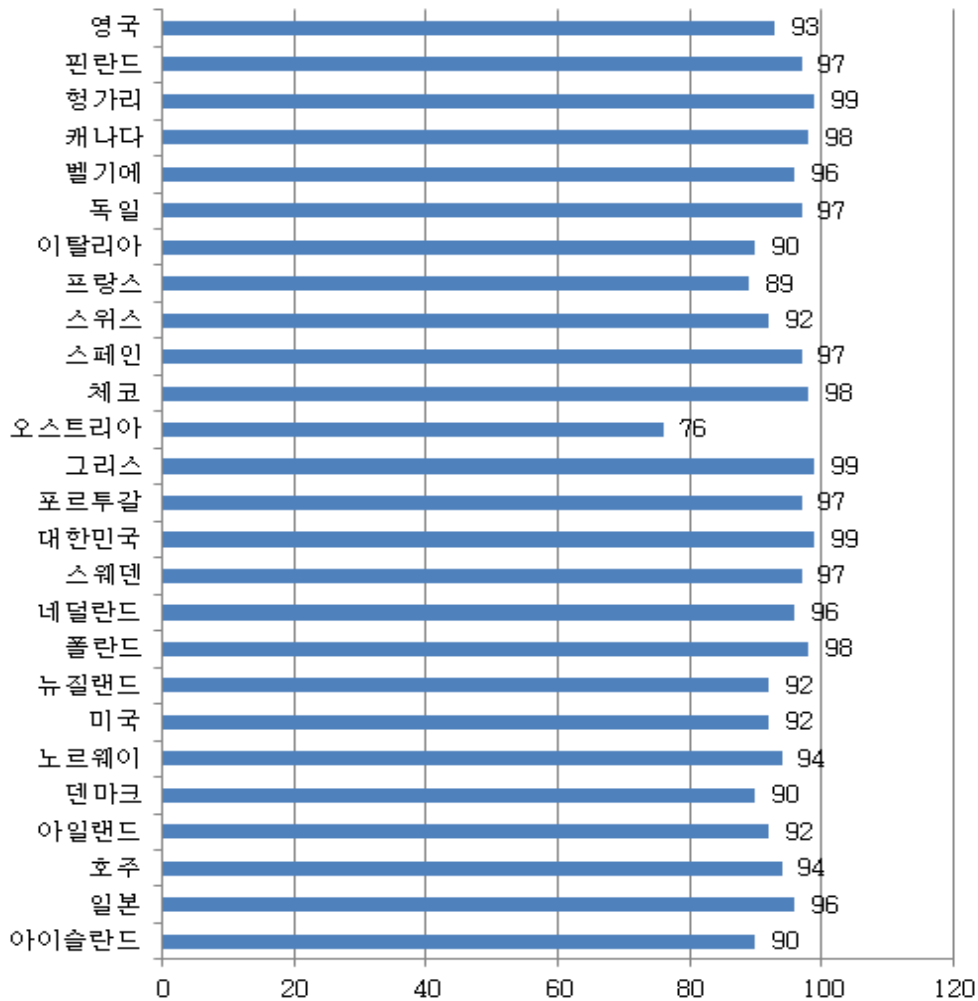
2. 예방접종

질병의 예방접종여부
 홍역 예방접종(12-23개월) 비율 / 소아마비 예방접종(12-23개월) 비율
 DPT3(Diphtheria, Pertussis and Tetanus) 예방접종(12-23개월) 비율

- 한국의 홍역 예방접종 비율은 99%로 OECD 국가 평균(94.11 %)보다 높은 수치이다.

〈그림 3-9〉 홍역 예방접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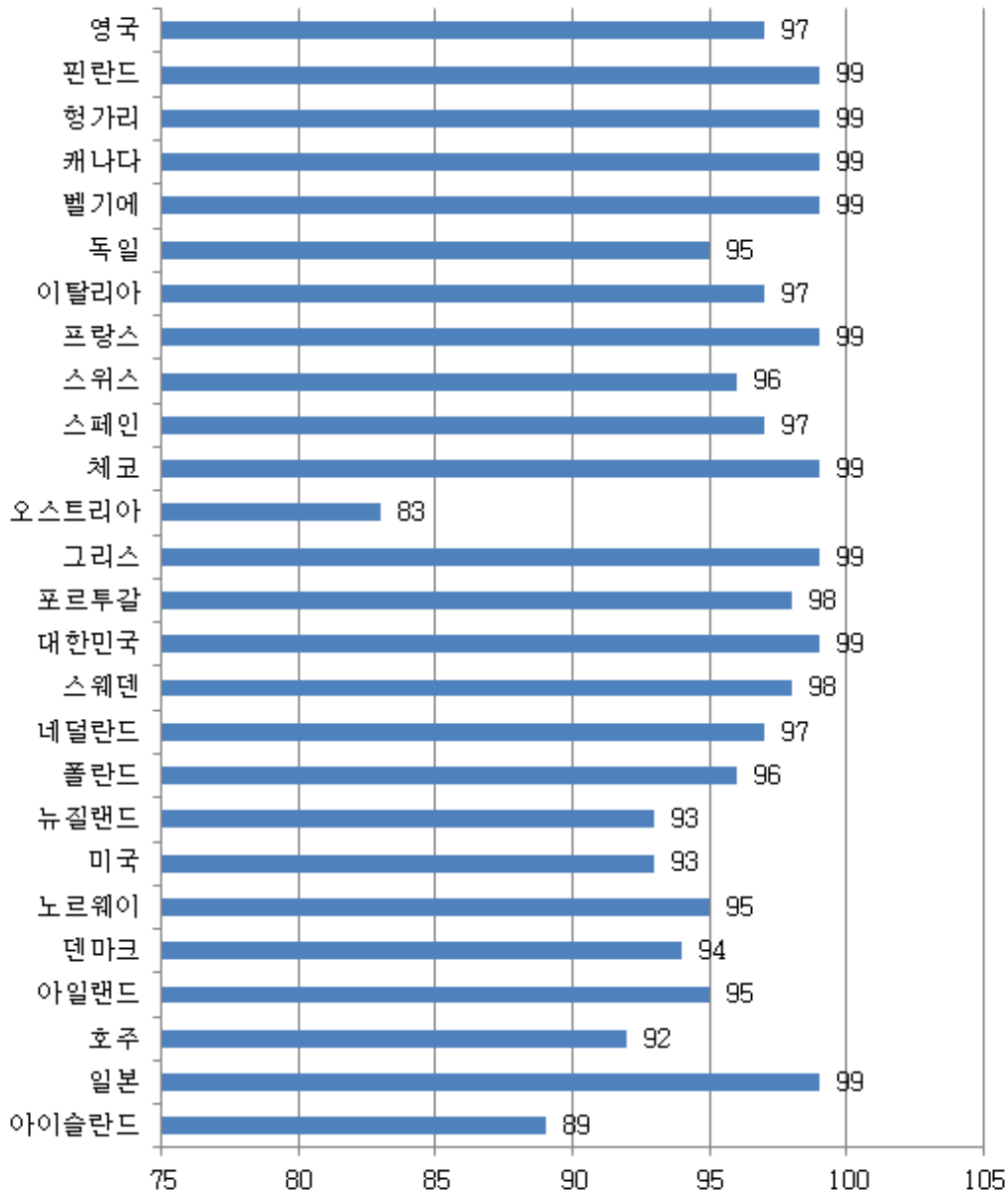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홍역 예방접종 여부	94.11	4.78	76	99

- 한국의 소아마비 예방접종 비율은 99%로 OECD 국가 평균(96.04%)보다 높은 수치이다.

〈그림 3-10〉 소아마비 예방접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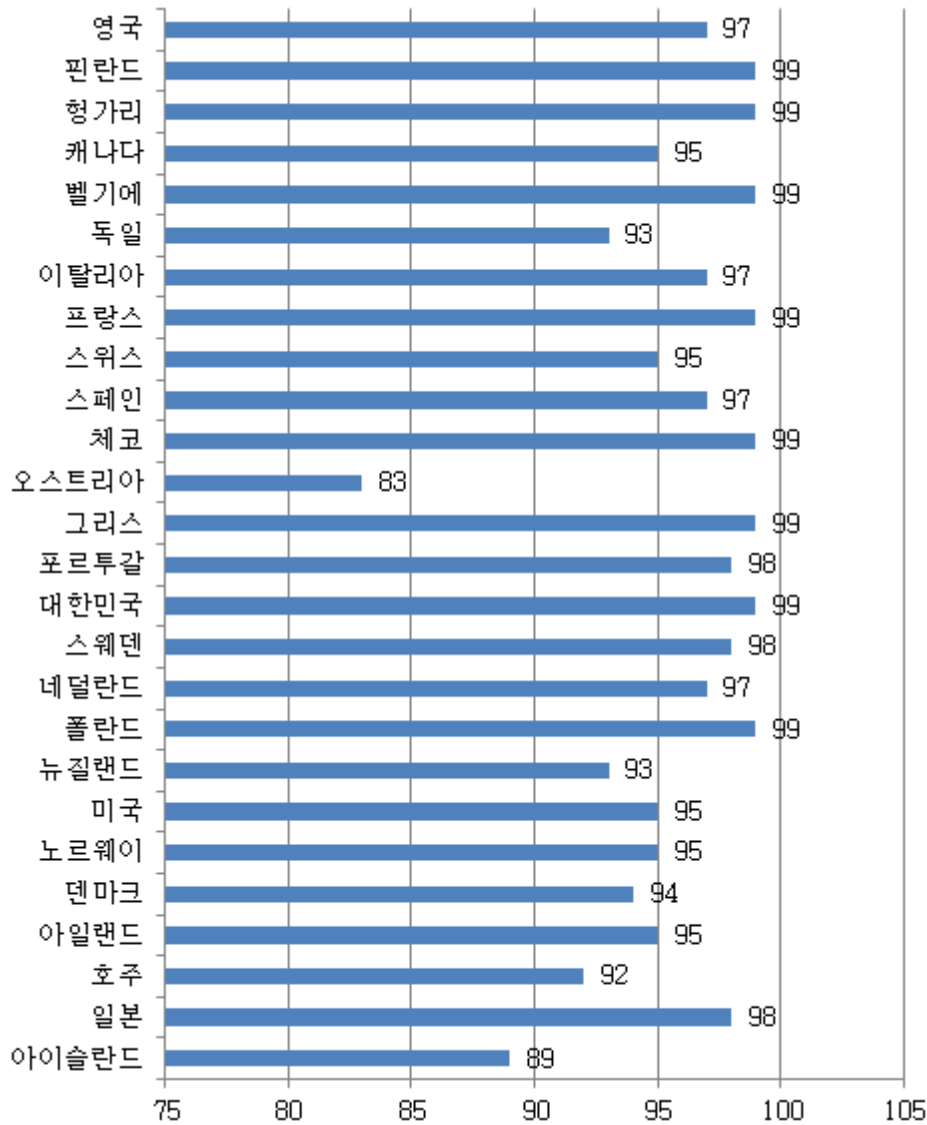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소아마비 예방접종 여부	96.04	3.68	83	99

- DP3(Diphtheria, Pertussis and Tetanus) 예방접종 비율 역시 한국은 OECD 국가 평균(95.93%)보다 높은 99%로 나타났다.

〈그림 3-11〉 DPT 예방접종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DPT3예방접종 여부	95.93	3.67	83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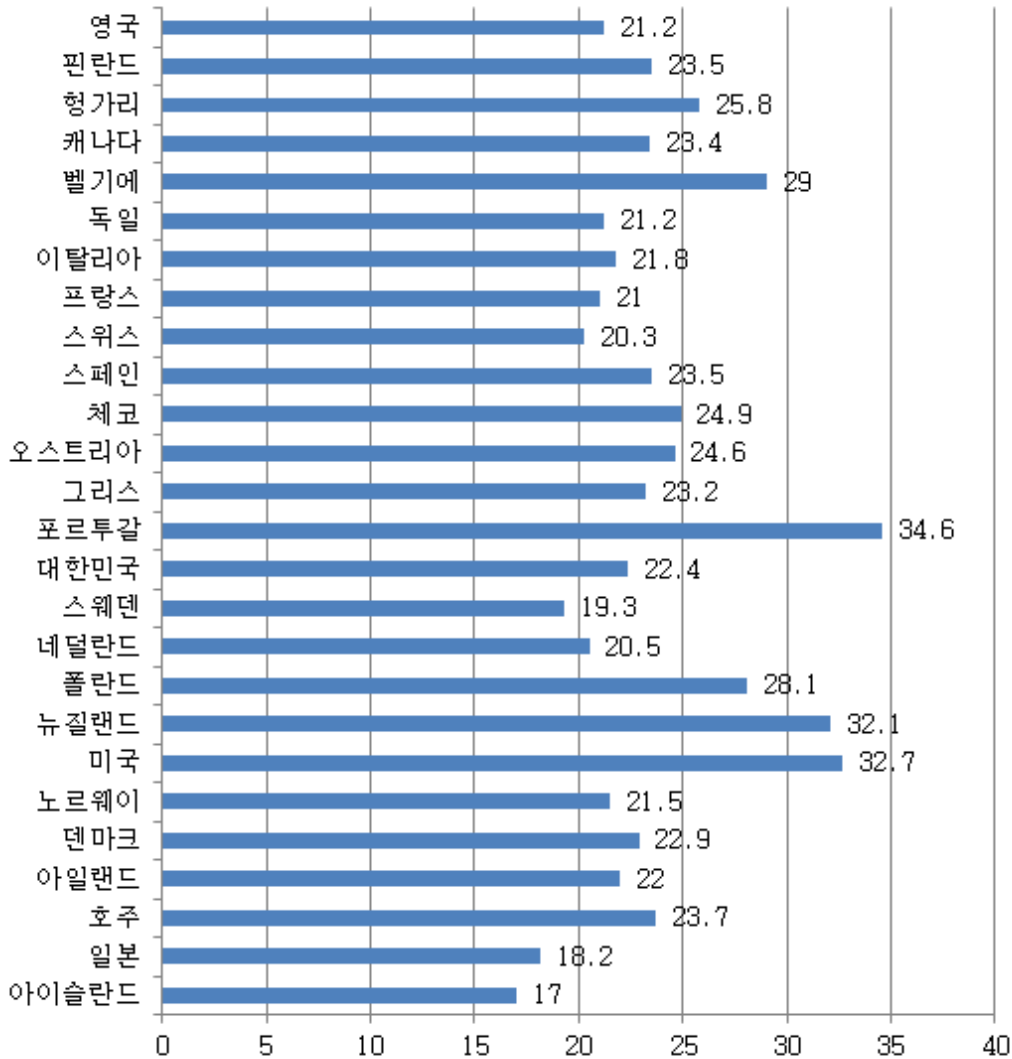
3. 사고사

아동사고사 :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아동(19세 이하)의 십만 명당 비율

- 한국의 연평균 아동사고사 비율은 10만 명당 22.4%로 OECD 국가 평균(23.78%)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림 3-12〉 아동사고사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아동사고사	23.78	4.35648	17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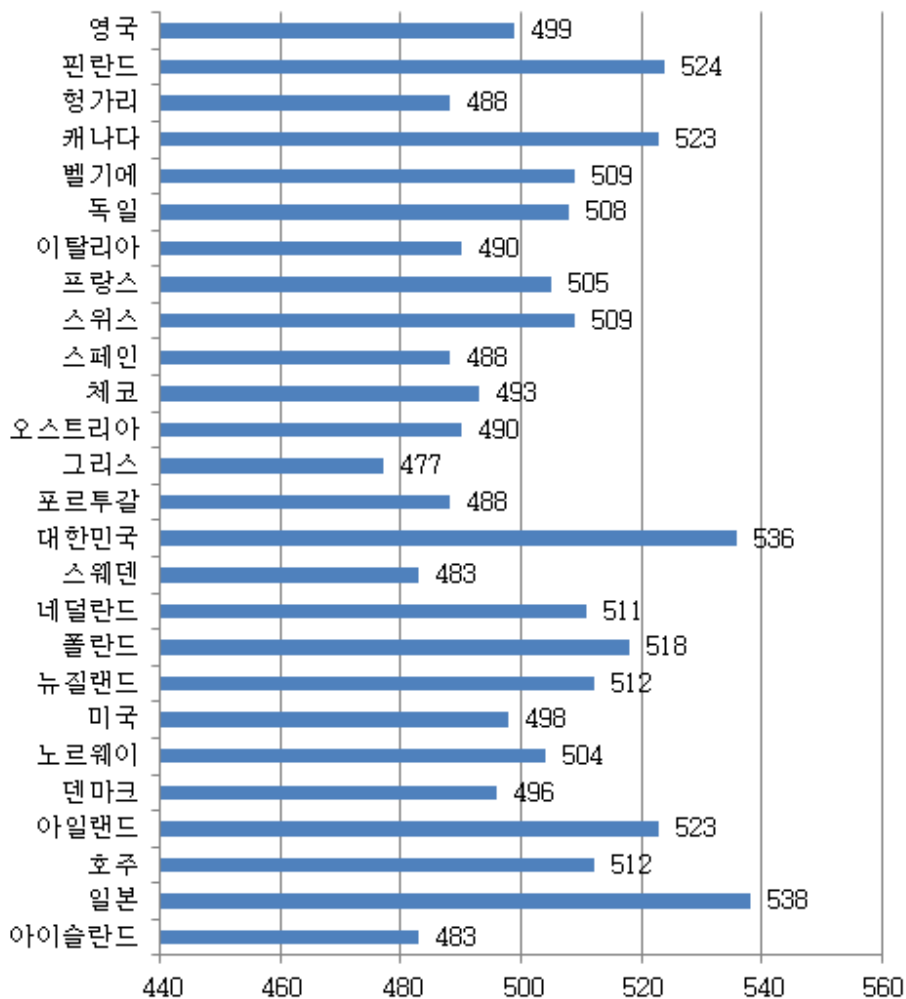
D. 교육

1. 학업성취

15세 학업성적 : 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읽기, 수학, 과학의 세 가지 영역 시험 점수

- 한국의 읽기시험 점수는 536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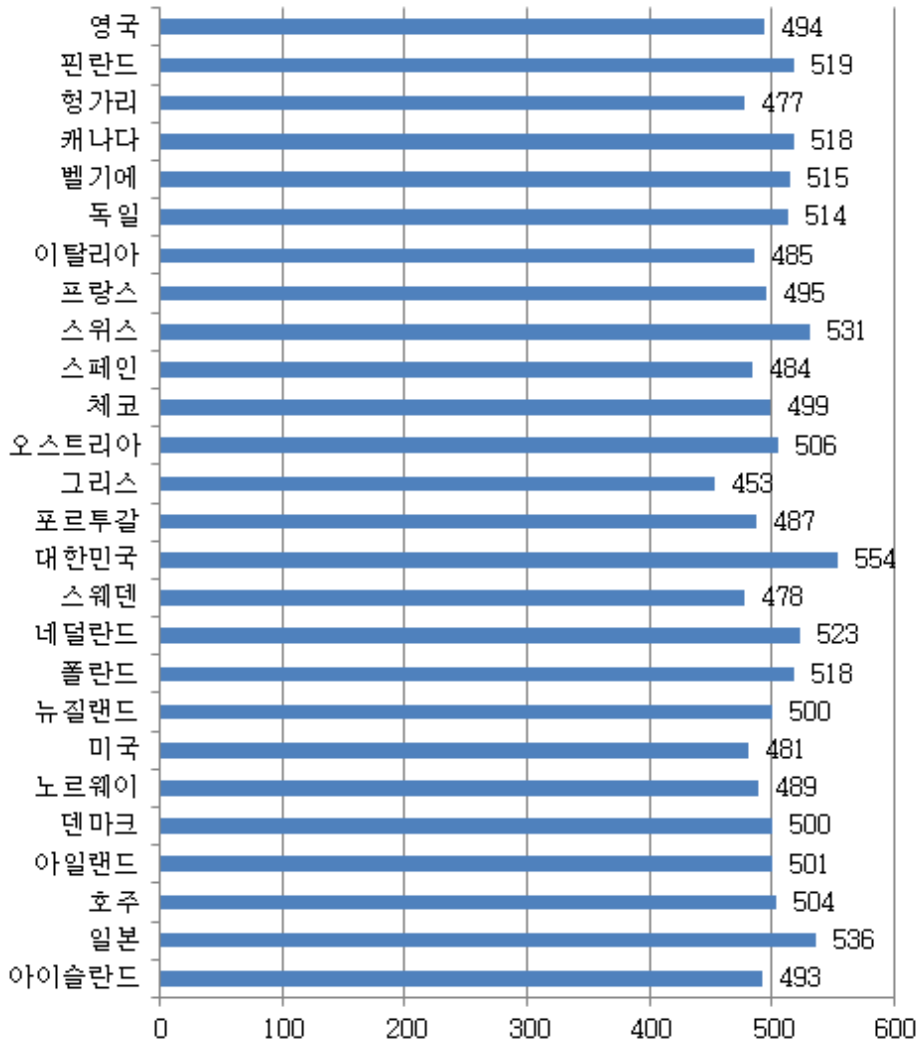
〈그림 3-13〉 읽기시험 점수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읽기점수	503.85	16.15	477	538

- 한국의 수학시험 점수는 OECD국가 평균(501.78)을 크게 상회하는 554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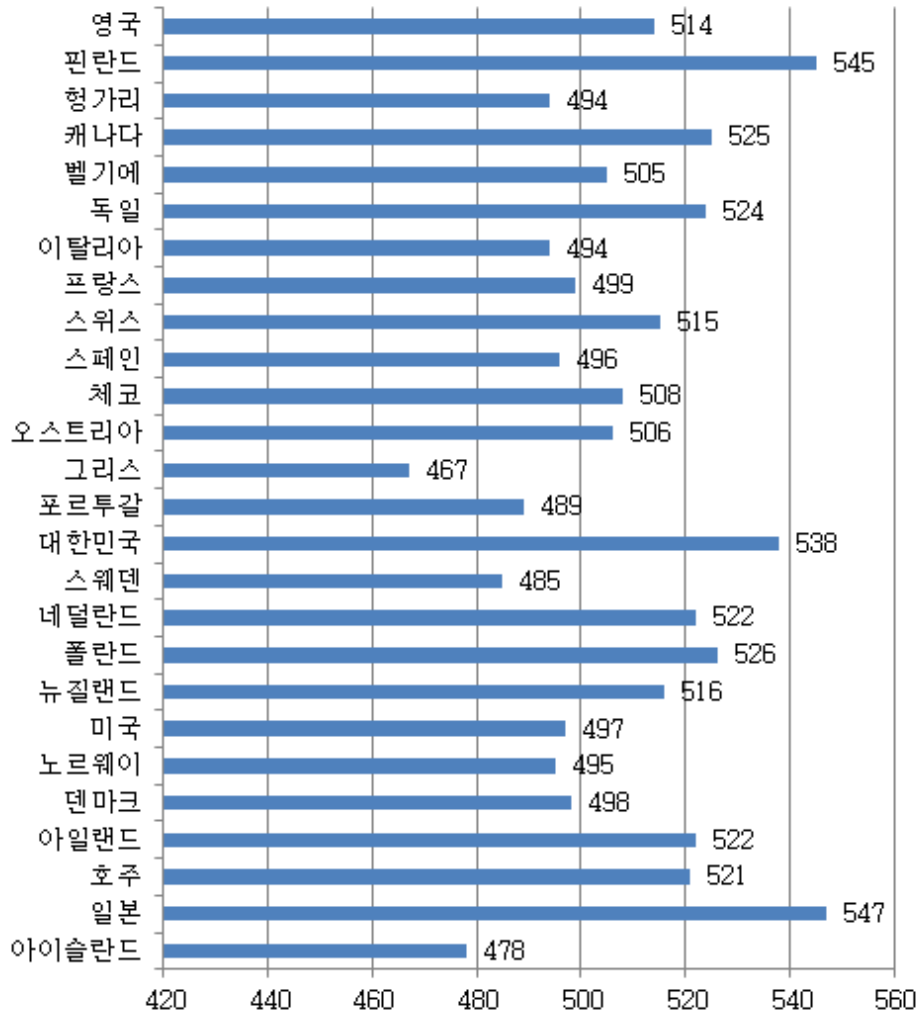
〈그림 3-14〉 수학시험 점수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수학점수	501.78	21.12	453	554

- 한국의 과학시험 점수는 538점으로 OECD 국가 평균(508.89)보다 크게 높았으며, 핀란드,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림 3-15〉 과학시험 점수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과학점수	508.89	19.49	467	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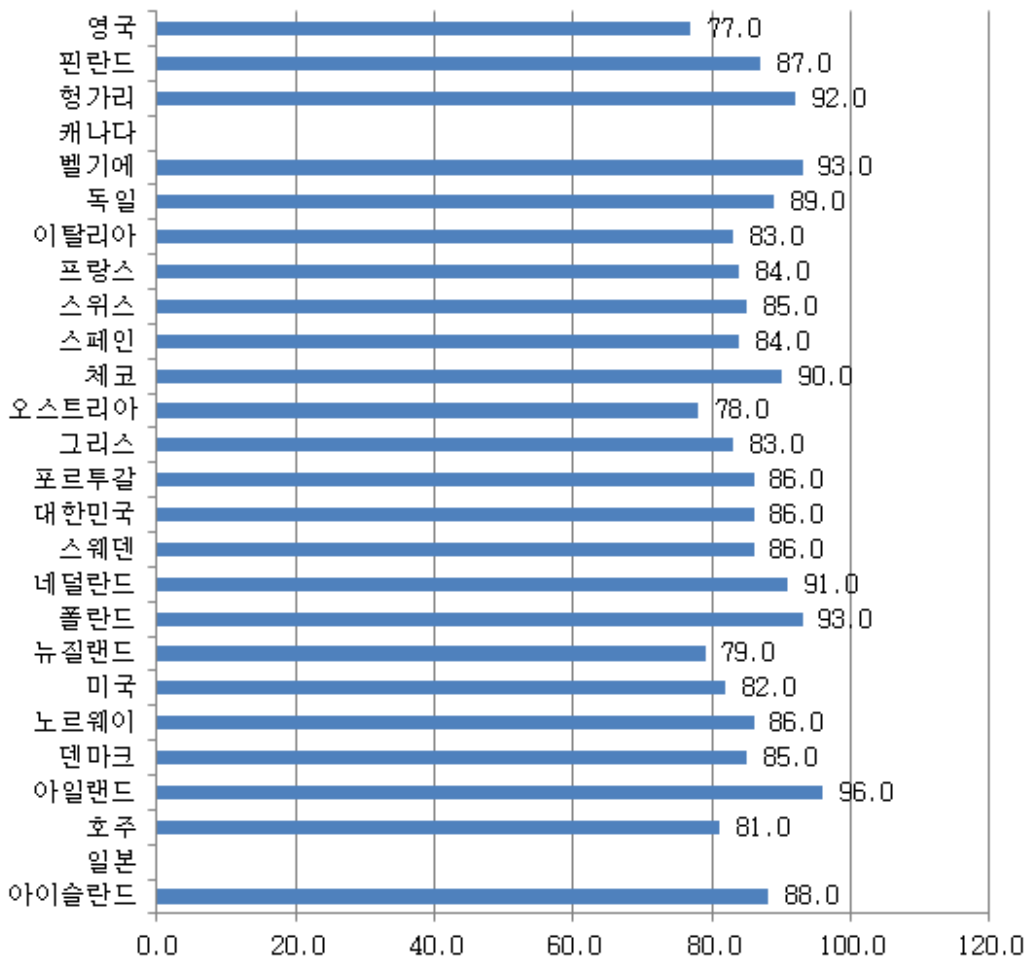
2. 교육참여

15-19세 아동의 학업 유지 : 학교를 다니는 15-19세의 아동의 비율
 실업상태 : 교육훈련기관에 속하지 않으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않는 젊은층의 비율

- 한국의 학업유지 비율은 86%로 OECD 국가 평균 86%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학업유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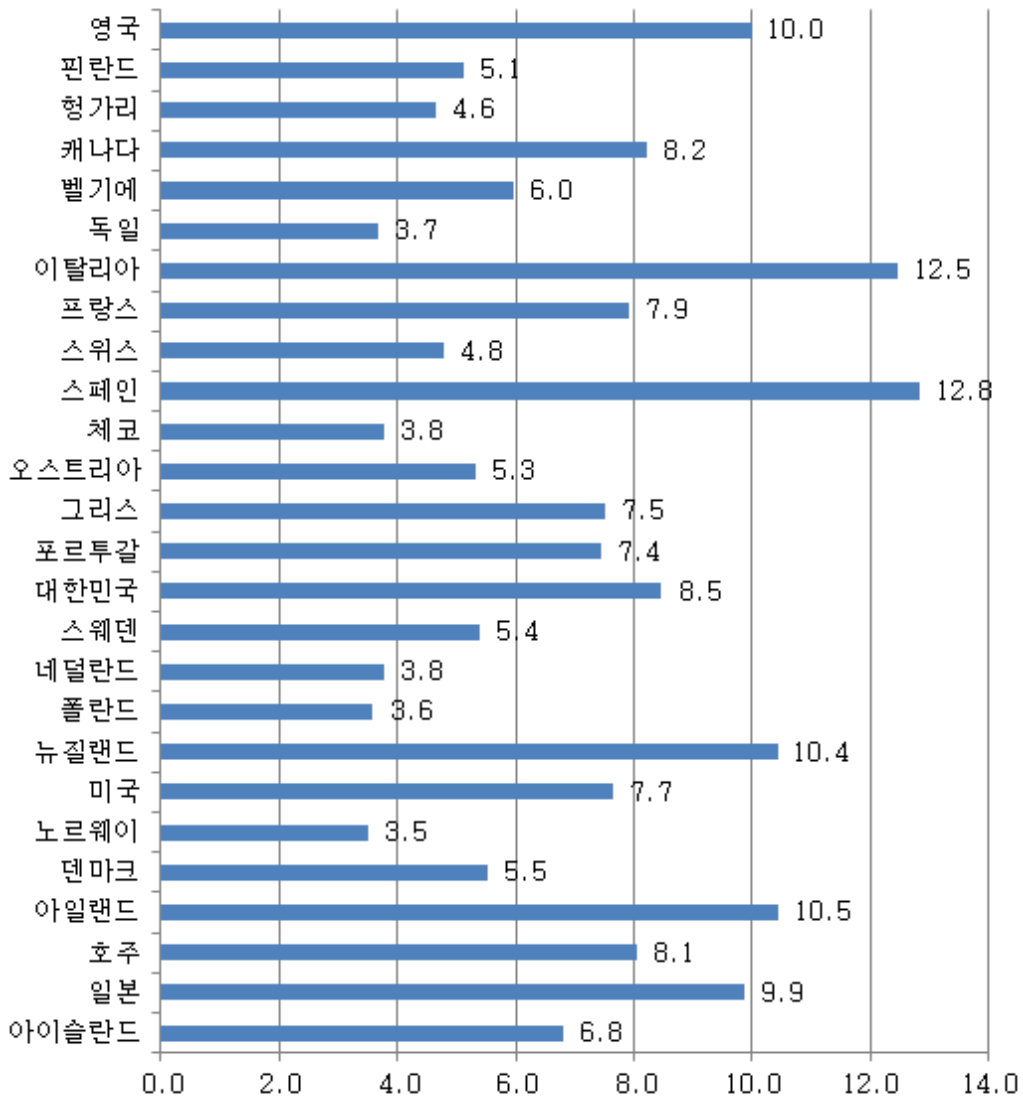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학업 유지	86	4.9	77	96

- 교육훈련기관에 속하지 않으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않는 젊은층의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7.05%이며 한국은 8.5%로 OECD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7〉 실업상태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실업상태	7.05	2.76	3.49	1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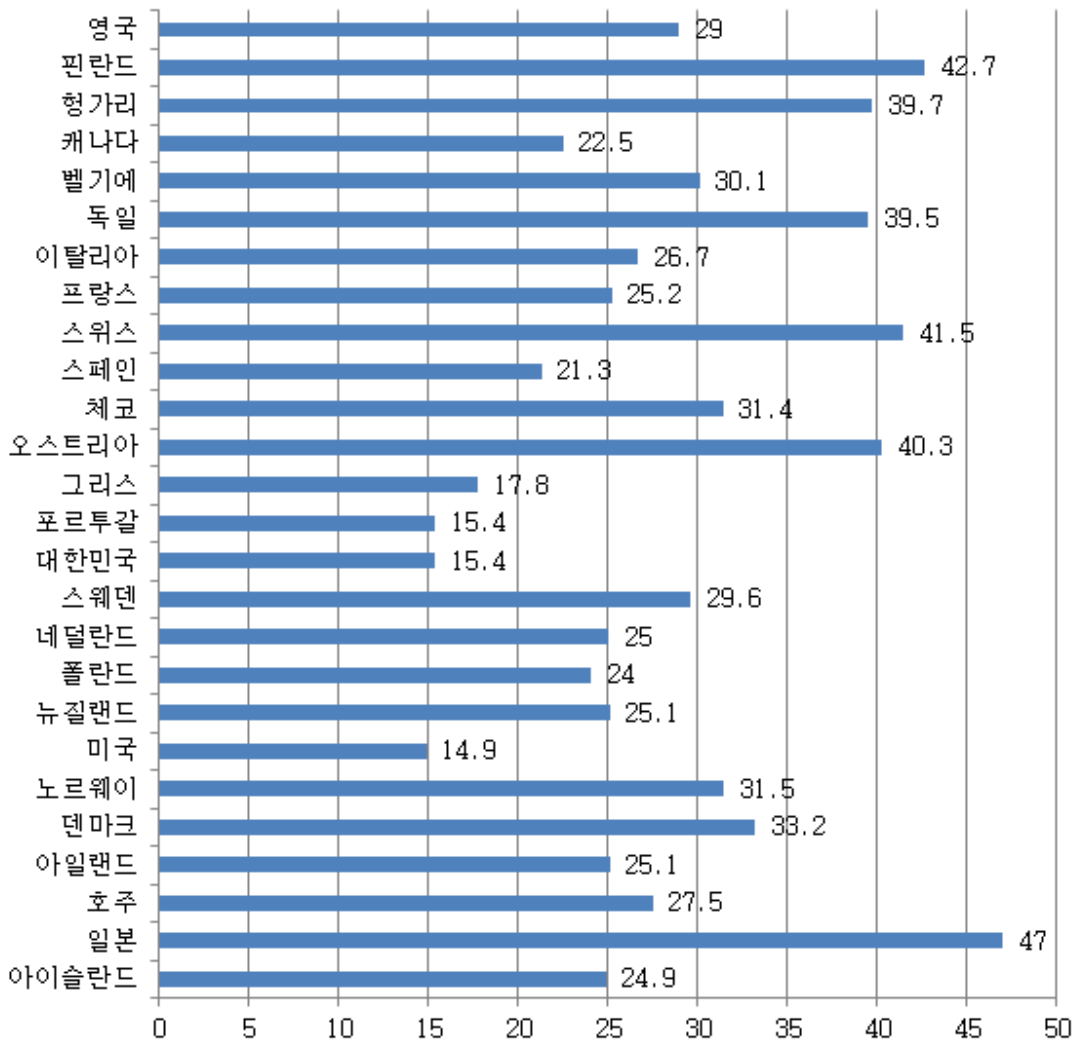
3. 학업열망

미숙련 일자리 : 기대하는 일자리로 미숙련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

- 성인이 되어 희망하는 일자리로 미숙련 일자리를 기대하는 비율은 한국이 15.4%로 OECD 국가 평균인 28.7%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3-18〉 학업열망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학업열망	28.7	8.8436	14.9	47

E. 가족과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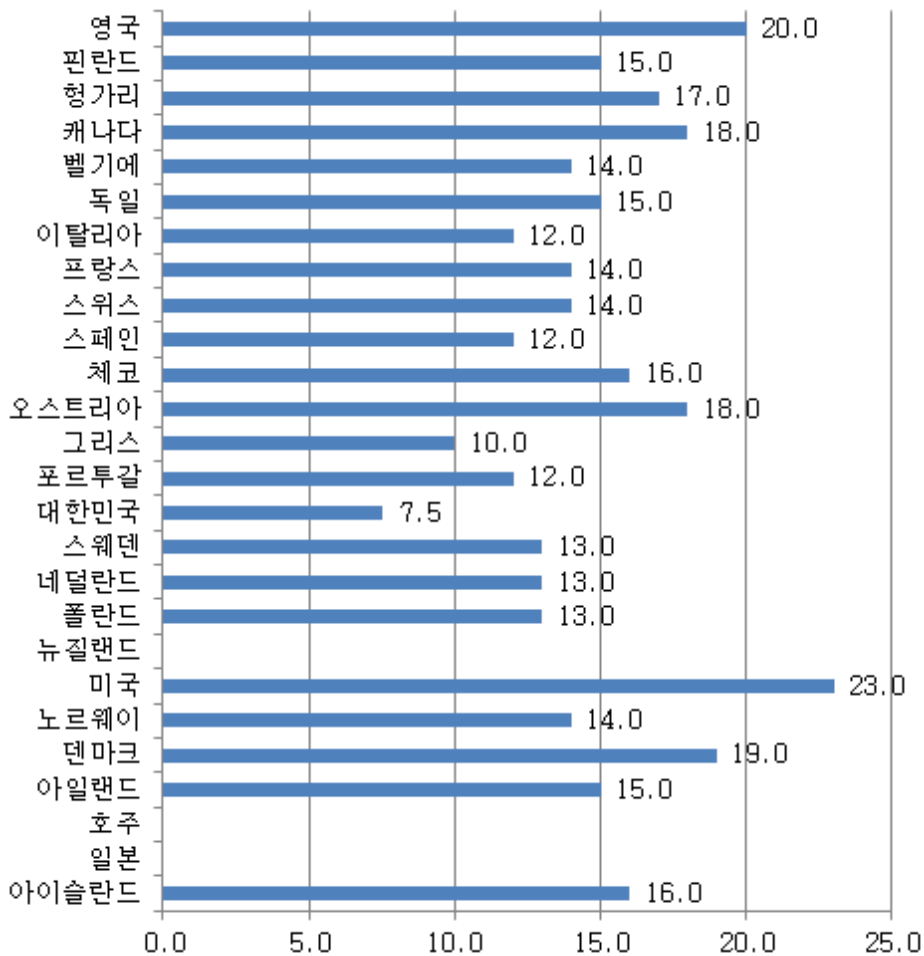
1. 가족구조

홀부모가정 : 홀부모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의붓가정 : 의붓아버지나 의붓어머니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 한국의 홀부모가정 비율은 7.5%로 OECD 국가 평균(9.45%)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3-19〉 홀부모가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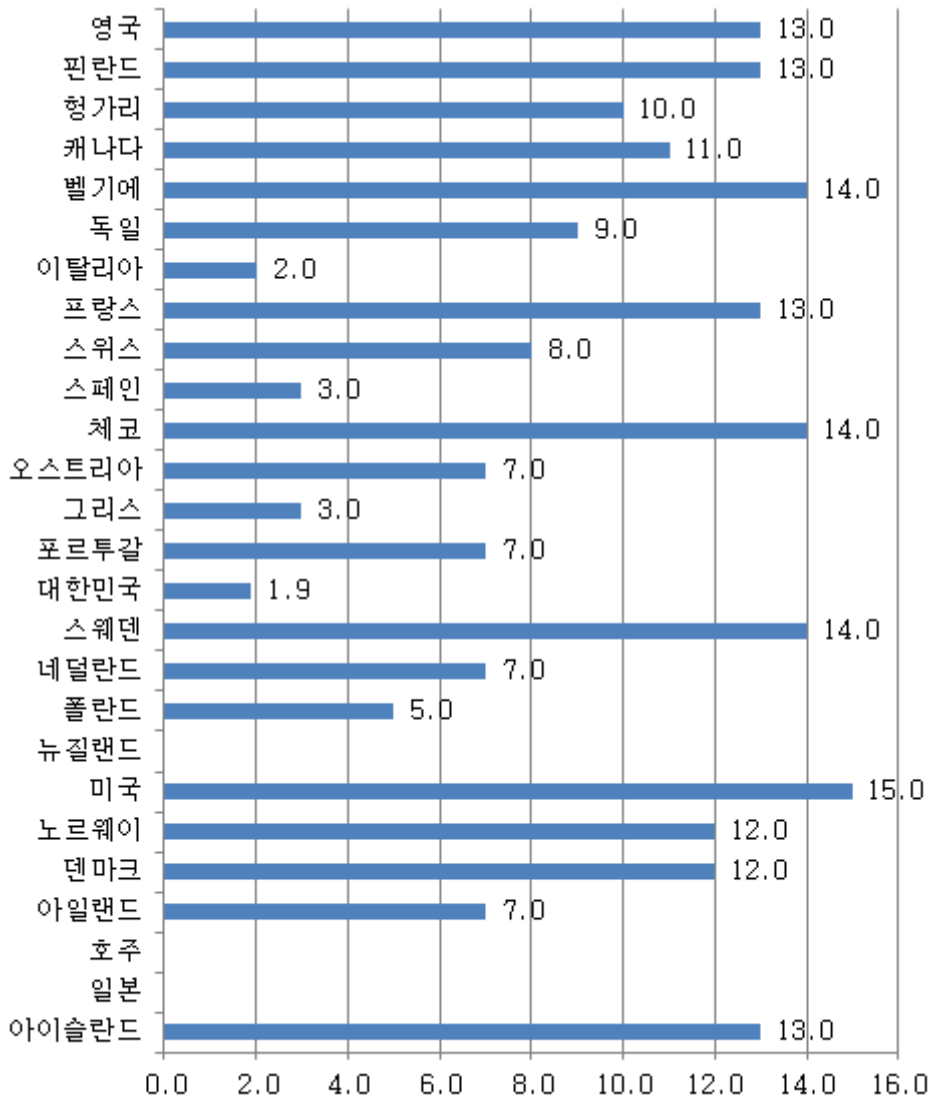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홀부모가정	9.45	4.24	2	15

- 의붓아버지 혹은 의붓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비율은 한국의 경우 1.9%에 그친 반면 OECD국가 평균은 이보다 훨씬 높은 9.30%로 나타났다.

〈그림 3-20〉 의붓가정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의붓가정	9.45	4.24	2	15

2. 부모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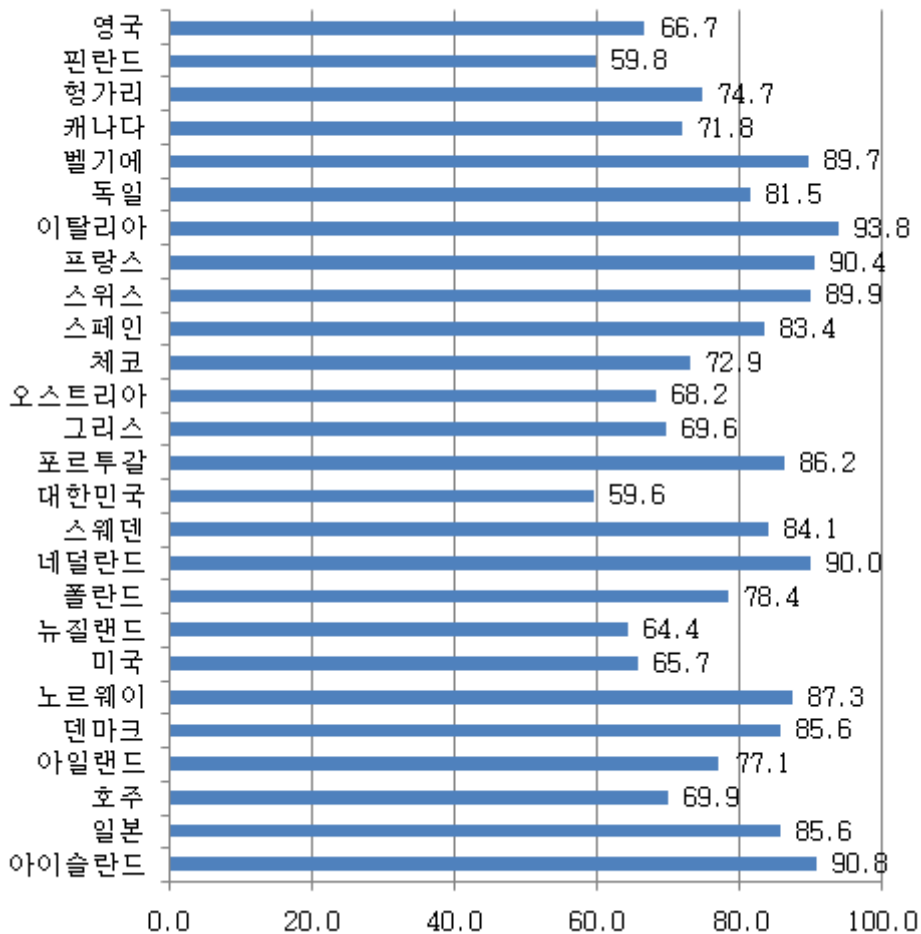
함께 식사하기 :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아동의 비율
 함께 대화하기 :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아동의 비율

- 부모님과 함께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은 한국의 경우 59.6%로, OECD 국가 평균 77.92% 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 3-21〉 함께 식사하기

(단위 : %)

함께 식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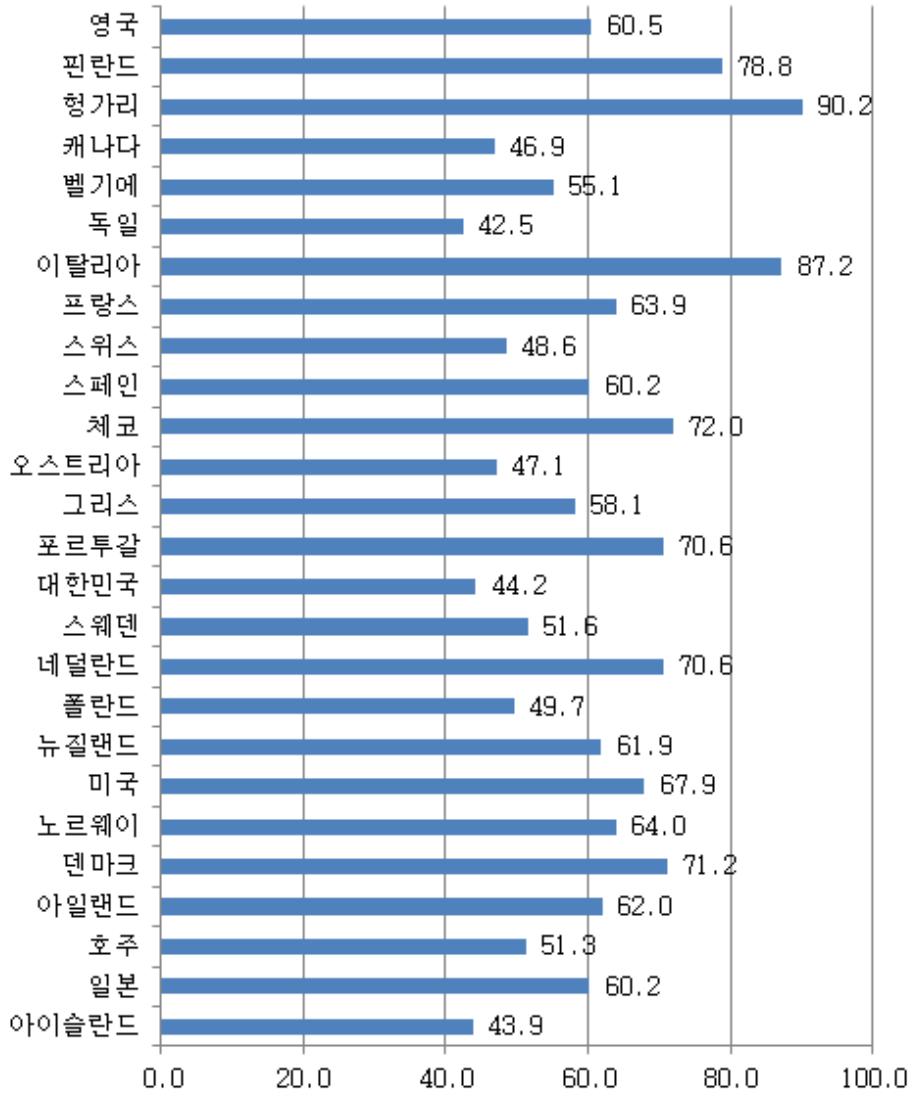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함께 식사하기	77.92	10.57	60	94

- 부모님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대화하는 빈도에서는 OECD 국가 평균이 60.77%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44.2%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3-22〉 함께 대화하기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함께 대화하기	60.77	12.63	43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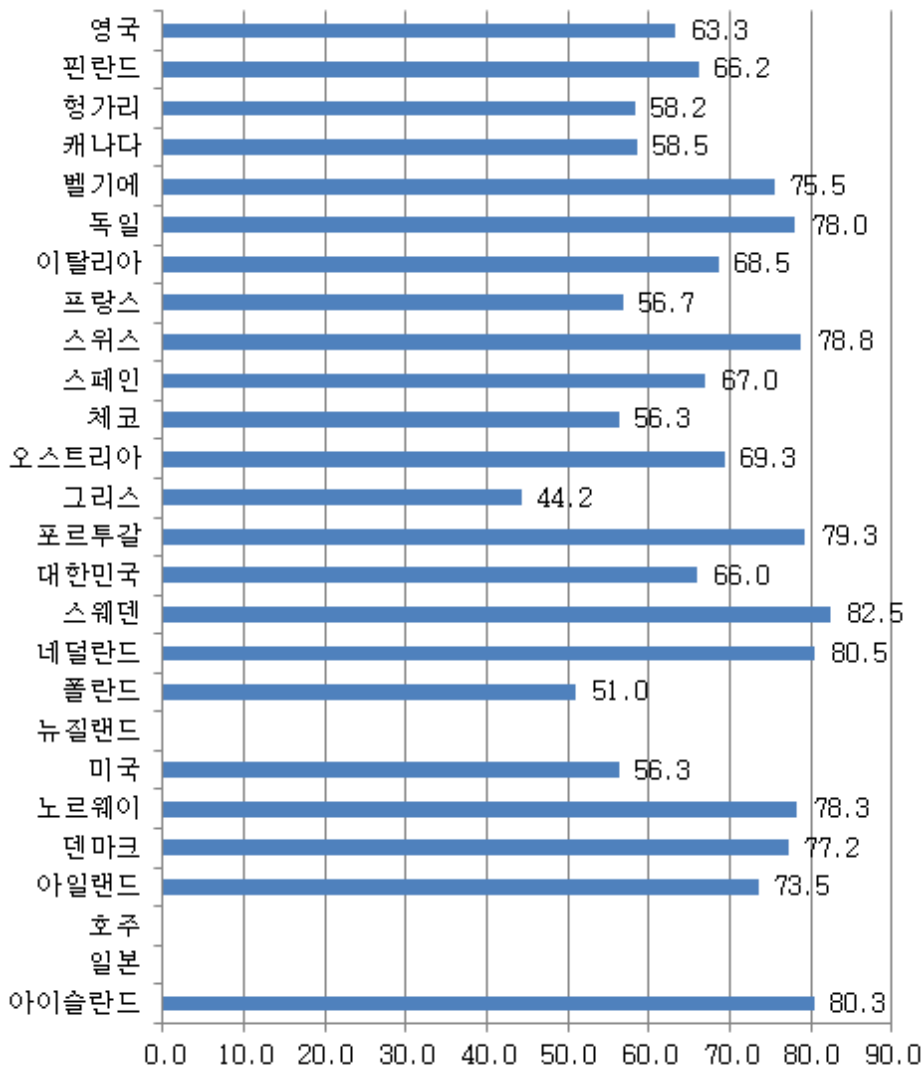
3. 친구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 급우가 자신에게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

- 급우가 자신에게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은 한국이 66.0%로 OECD 국가 평균 68.06%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림 3-23〉 친절한 급우관계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친절한 급우관계	67.86	10.71	44	83

F. 행동과 생활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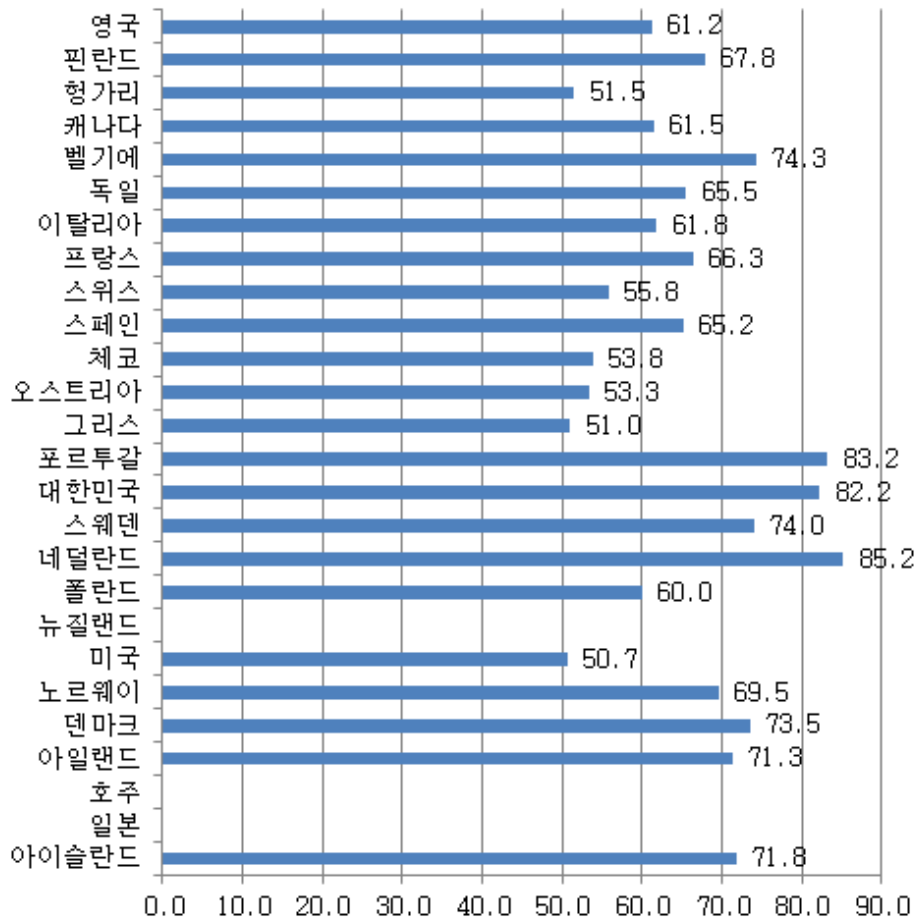
1. 건강행동

- 아침식사 :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는 어린이 비율
- 과일섭취 :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
- 과체중 : 체질량지수(BMI)가 25이상인 비율
- 운동 :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일수

- 2014년 설문에서 측정된 등교 전 아침식사 비율은 한국이 82.2%로, OECD 국가 평균 (65.48%)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3-24〉 아침식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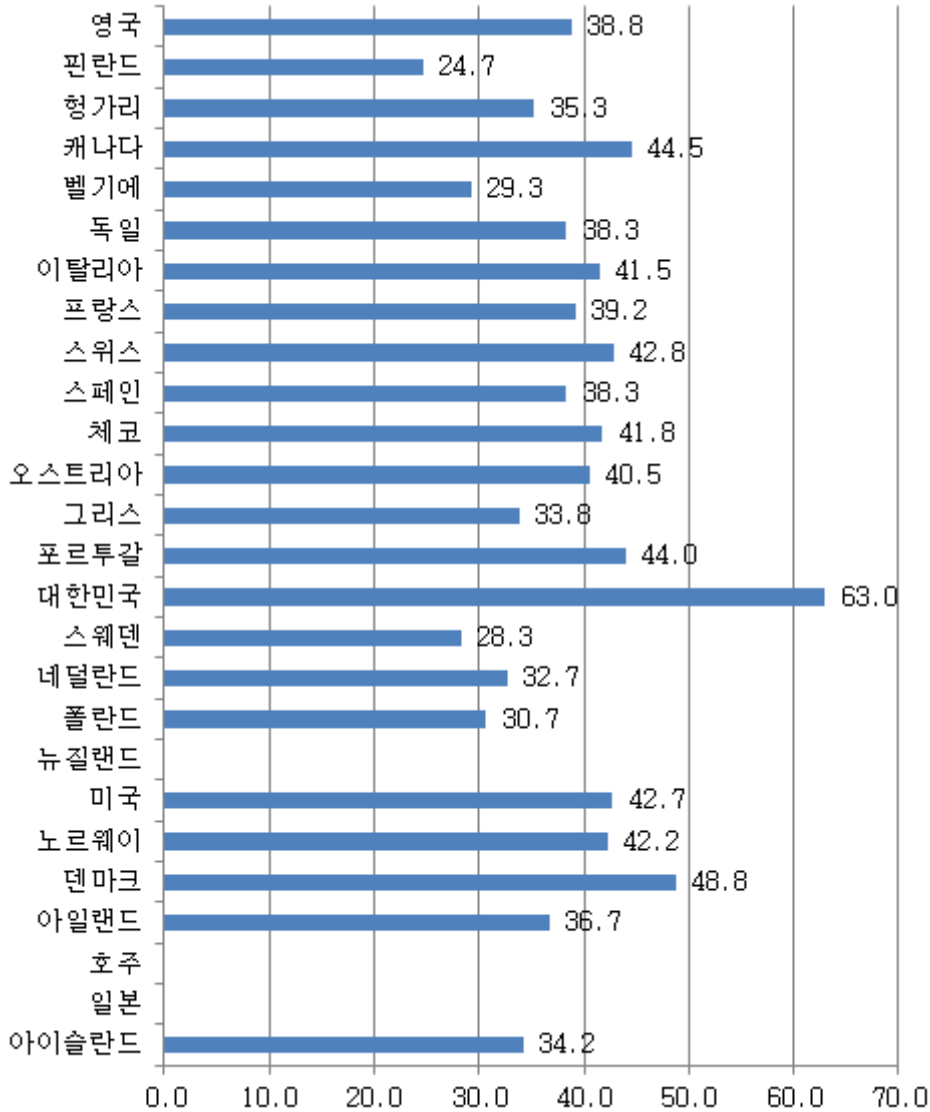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아침식사	65.48	10.2	51	85

- 2014년 설문으로 측정한 과일섭취 비율은 한국이 63%로 OECD 국가 평균(38.79%)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 과일섭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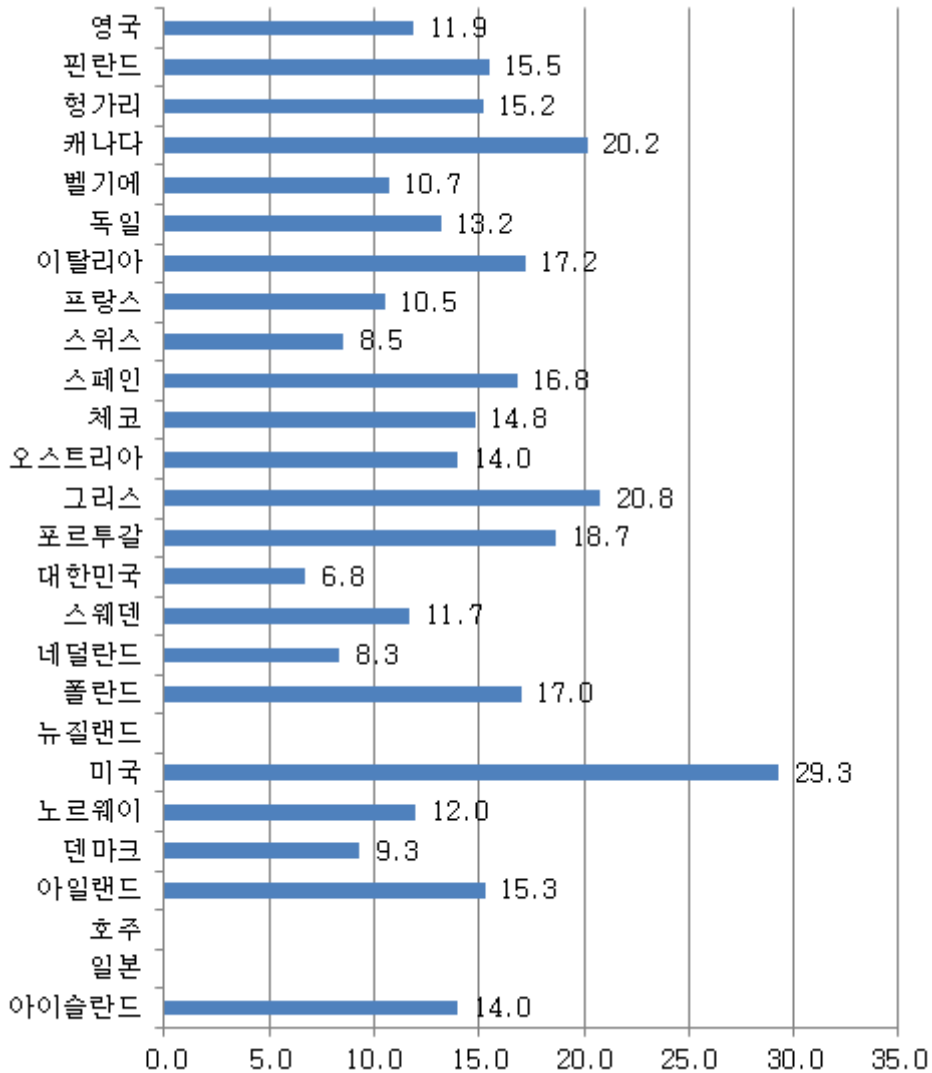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과일섭취	38.79	7.73	25	63

-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 즉 과체중인 아이들의 비율이 한국은 6.8%로 OECD국가 평균(14.32%)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 3-26〉 과체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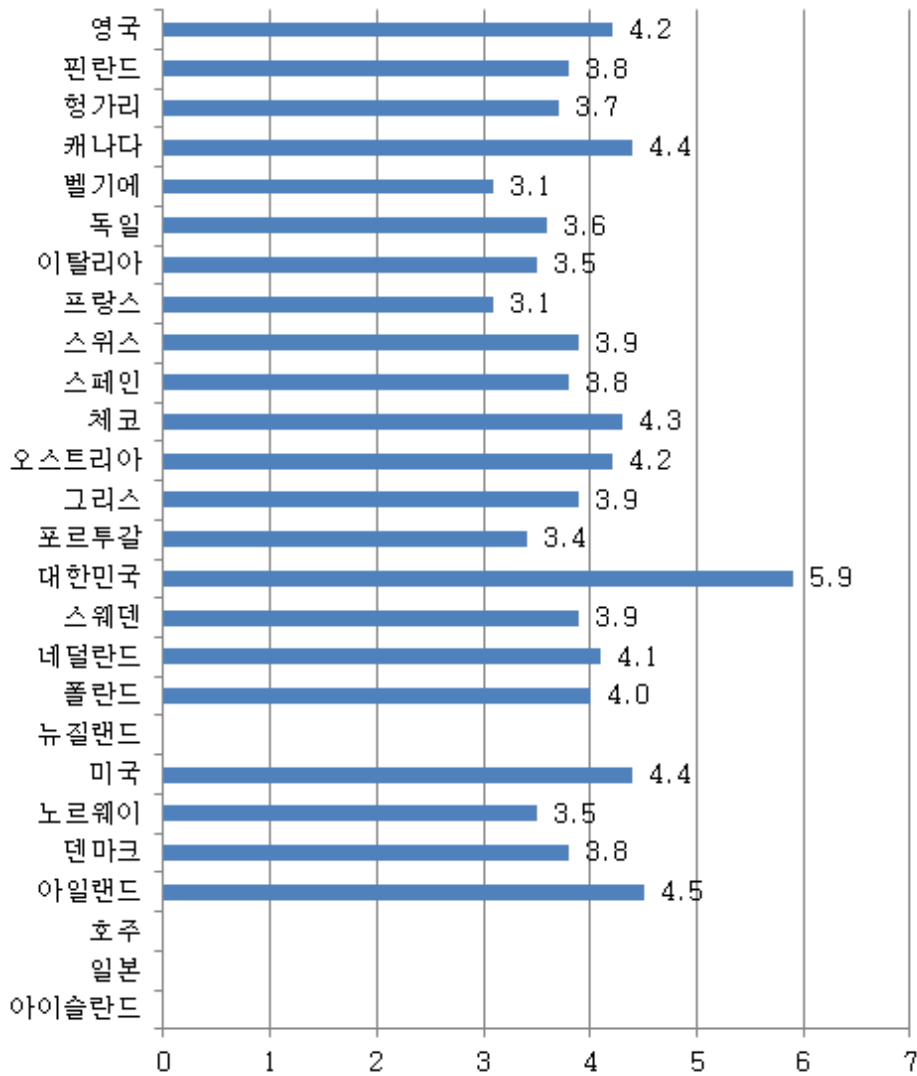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과체중	14.32	4.89	7	29

-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일수의 경우 한국은 5.9일로 OECD국가 평균인 3.97일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7〉 운동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운동	3.97	0.57	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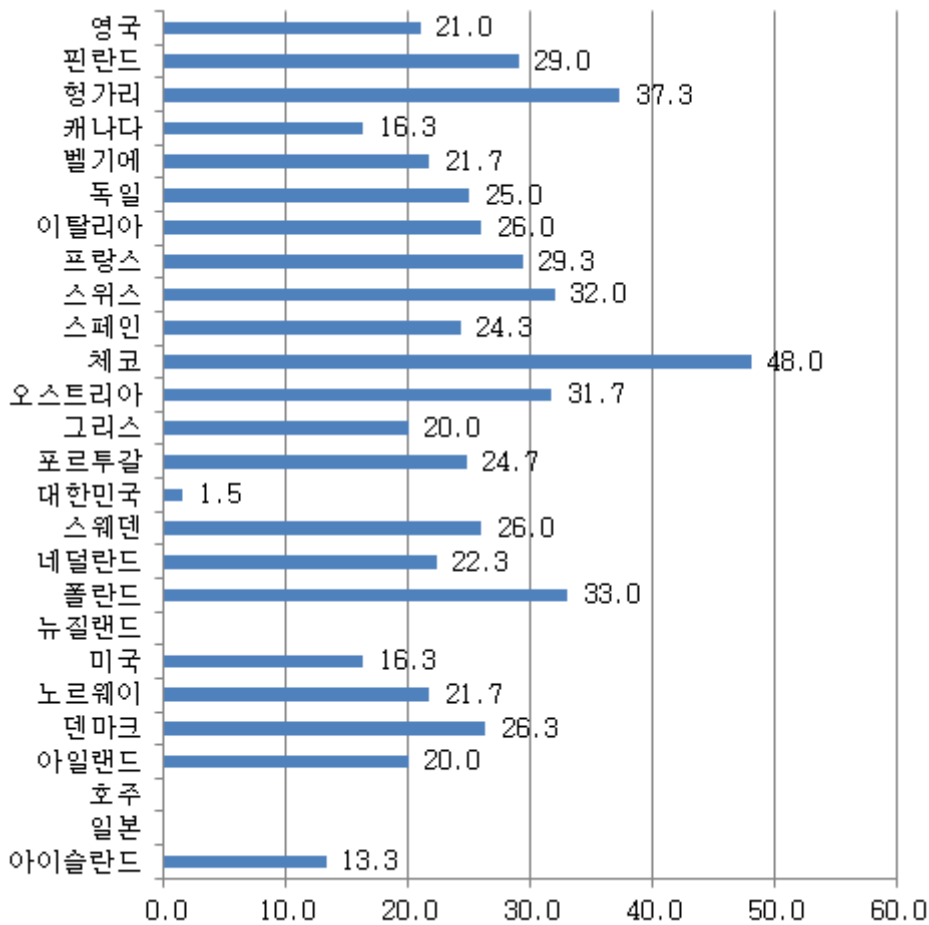
2. 위험행동

- 흡연 : 11, 13, 15세의 흡연 비율
- 음주 : 11, 13, 15세의 음주 비율
- 마약 : 11, 13, 15세의 마약사용 비율
- 성관계 : 15세의 성관계 경험 비율
- 콘돔 :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한 15세 아동 비율
- 임신과 출산 : 십대 출산율
- 싸움 : 지난 12개월 동안 폭력행위에 관련된 아동의 비율
- 왕따 : 지난 12개월 동안 다른 학생에게 놀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

- 한국 청소년의 흡연 비율은 1.5%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 3-28〉 흡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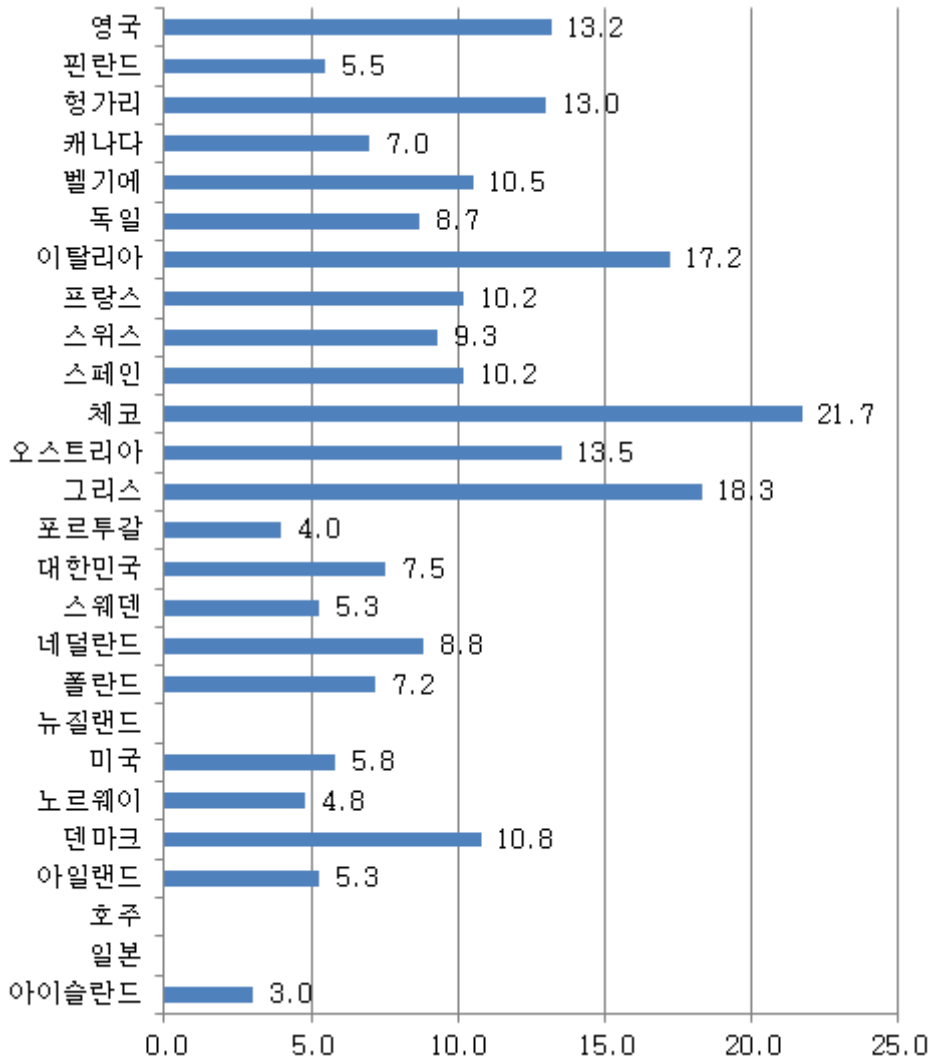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흡연	24.49	8.9	2	48

- 한국 청소년 음주경험 비율은 7.5%로 OECD 국가 평균(9.75%)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그림 3-29〉 음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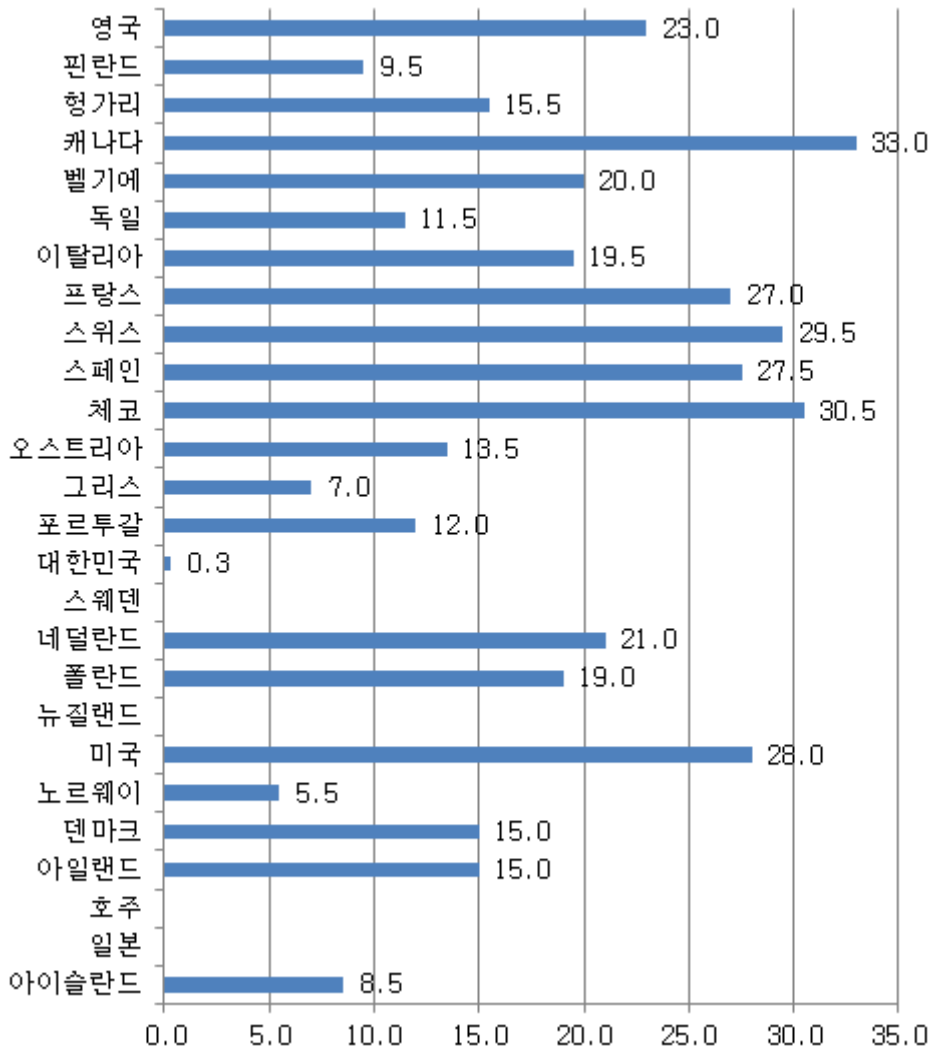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음주	9.75	4.75	3	22

- 한국 청소년의 미약복용 비율은 0.3%로 OECD 국가 평균(17.79%)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 3-30〉 미약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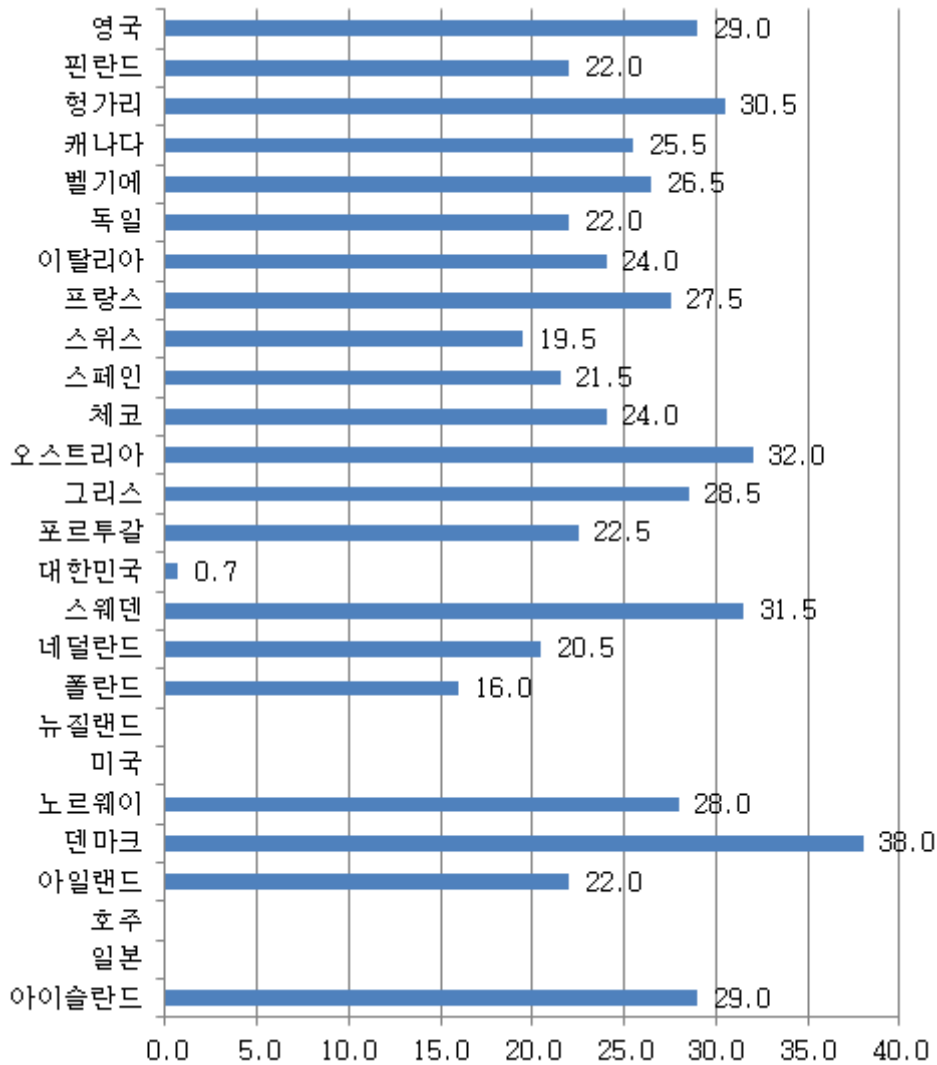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미약	18.01	8.86	0	33

- 2014 설문을 통해 측정한 한국 10대의 성관계 경험 비율은 0.5%로, OECD 국가 평균(24.77%)과 비교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1〉 성관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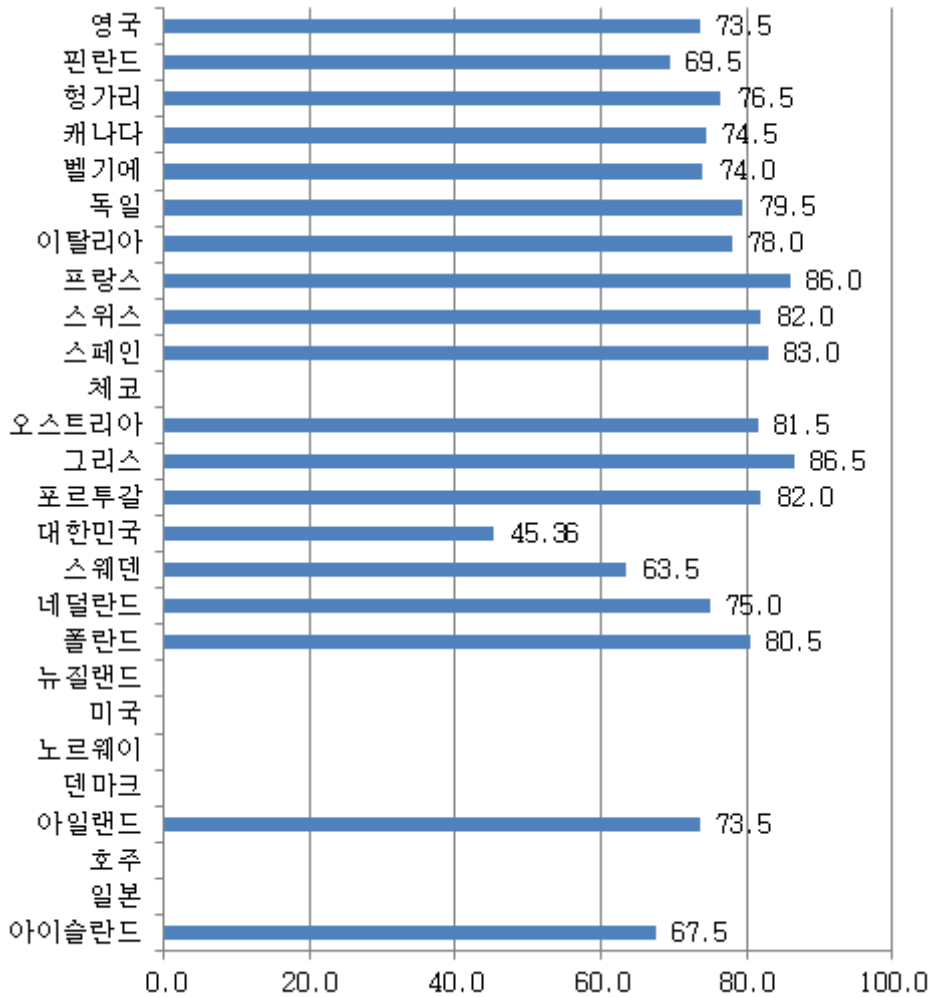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성관계	24.77	7.19	1	38

-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한 비율의 경우 한국은 45.4%로 OECD 국가 평균(75.30%)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2〉 콘돔사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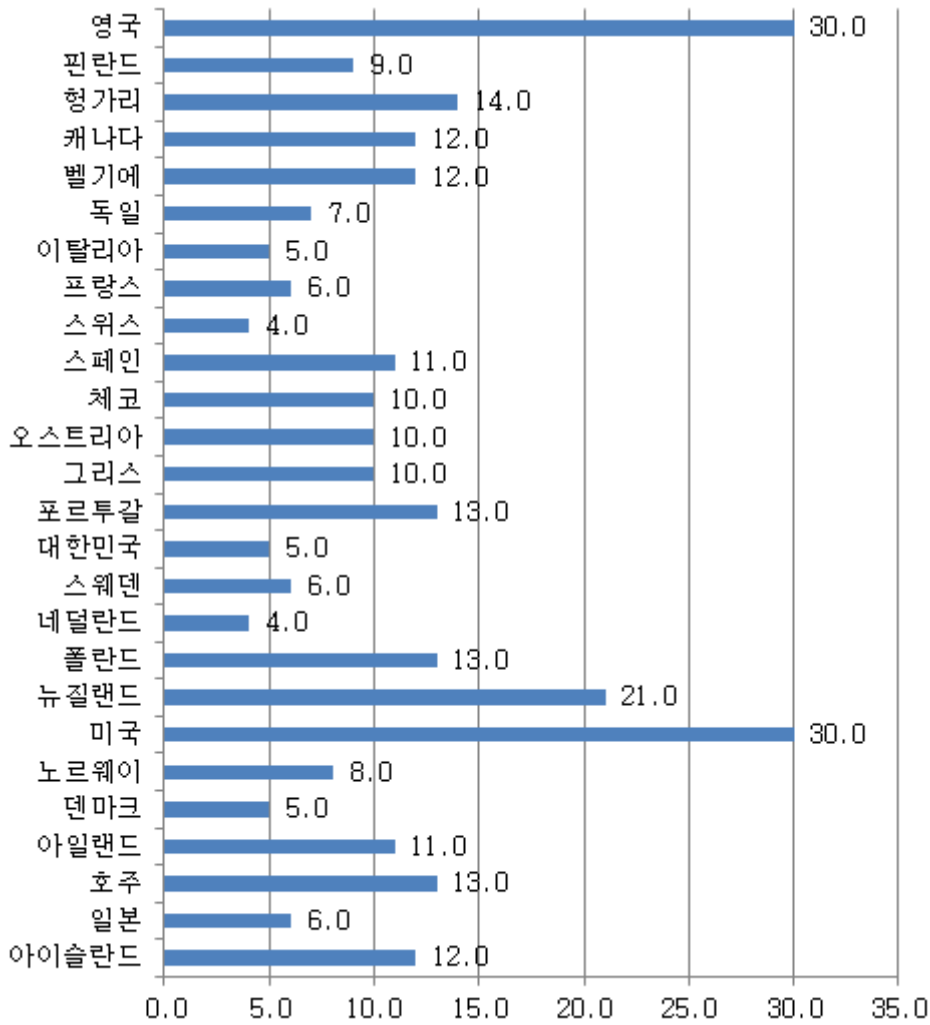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콘돔 사용	75.3	9.69	44.23	86.5

- 한국 10대의 출산비율은 5%로 OECD 국가 평균(11.0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 3-33〉 임신과 출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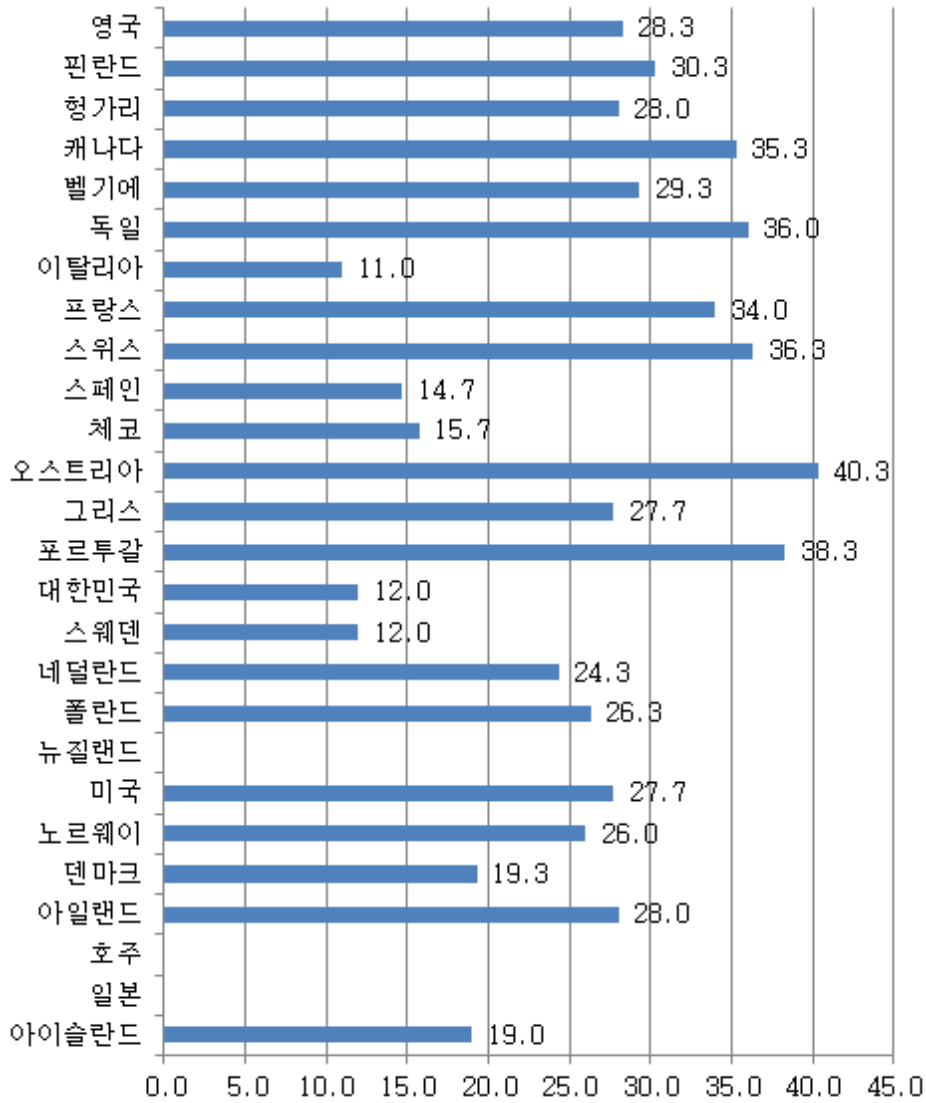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임신과 출산	11.74	7.61	4	30

- 지난 12개월간 싸움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은 12%로 OECD 국가 평균(34.5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4〉 싸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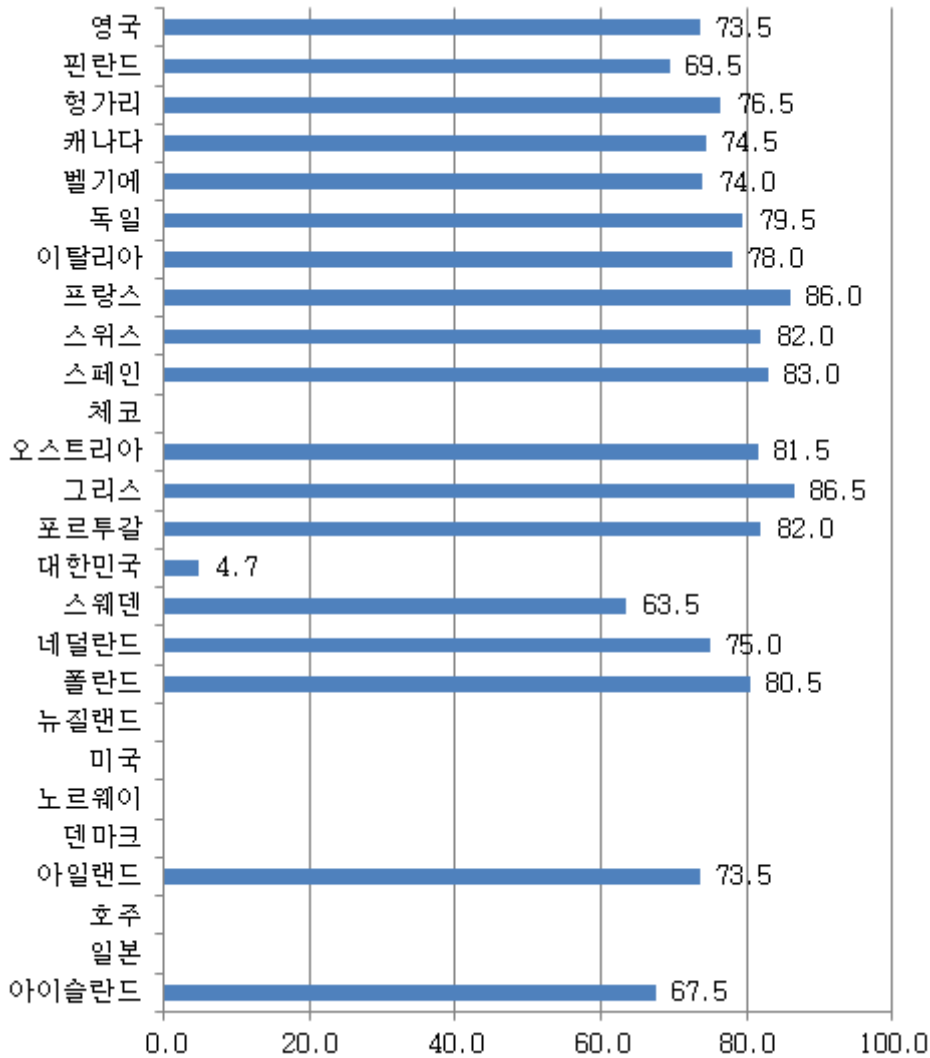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싸움	34.57	8.73	12	56

- 지난 12개월간 왕따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은 4.7%로, OECD 국가 평균 (25.87%)보다 크게 낮았다.

〈그림 3-35〉 왕따 경험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왕따	25.87	9.26	5	40

G. 주관적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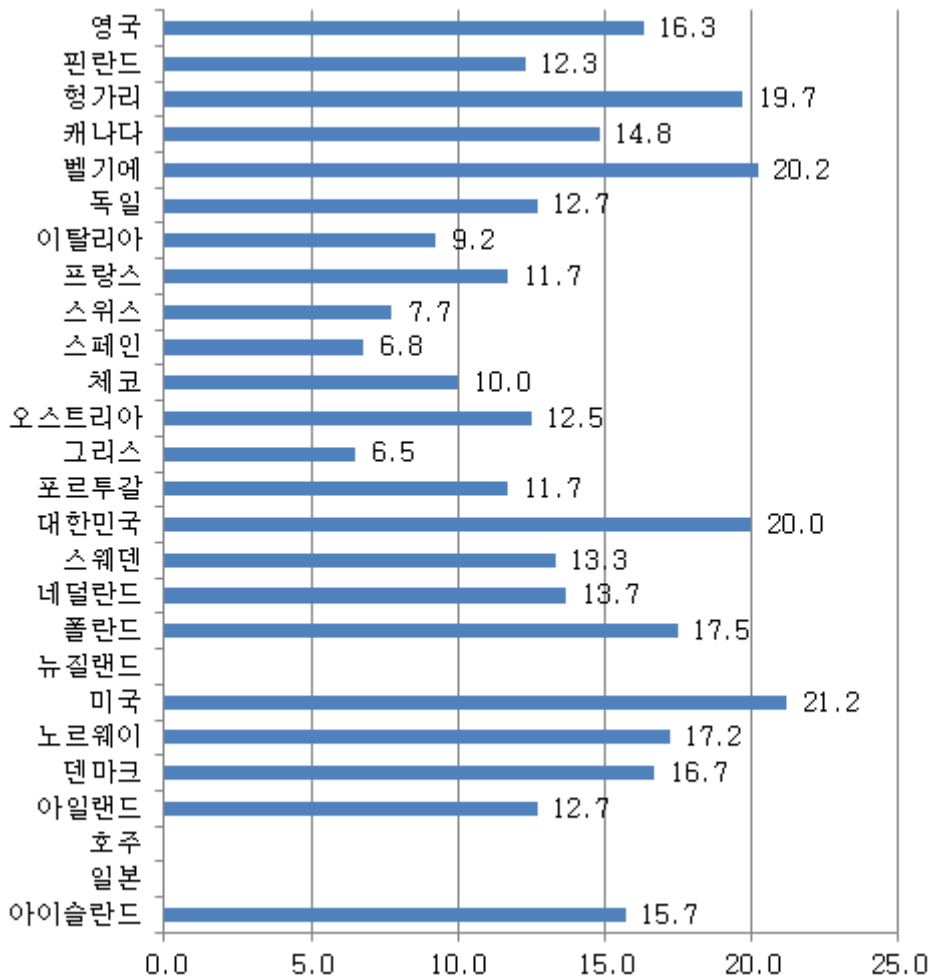
1. 건강

주관적 건강 :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의 비율

-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 비율은 한국이 20.0%로 OECD 국가 평균 (14.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6〉 주관적 건강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주관적 건강	14.02	4.22	7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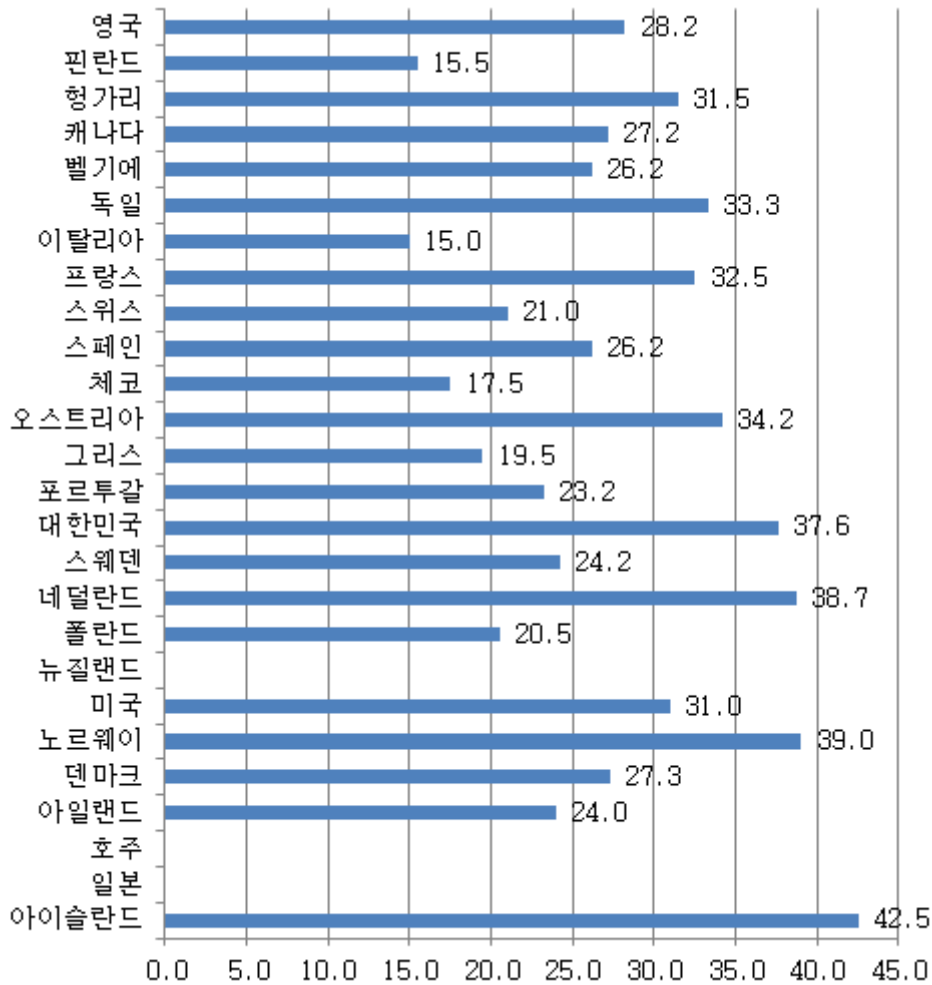
2.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 :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고 응답한 비율

-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한국이 37.6%로 OECD 국가 평균(27.67%)보다 높았다.

〈그림 3-37〉 학교생활 만족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학교 만족	27.67	7.57	15	43

3. 개인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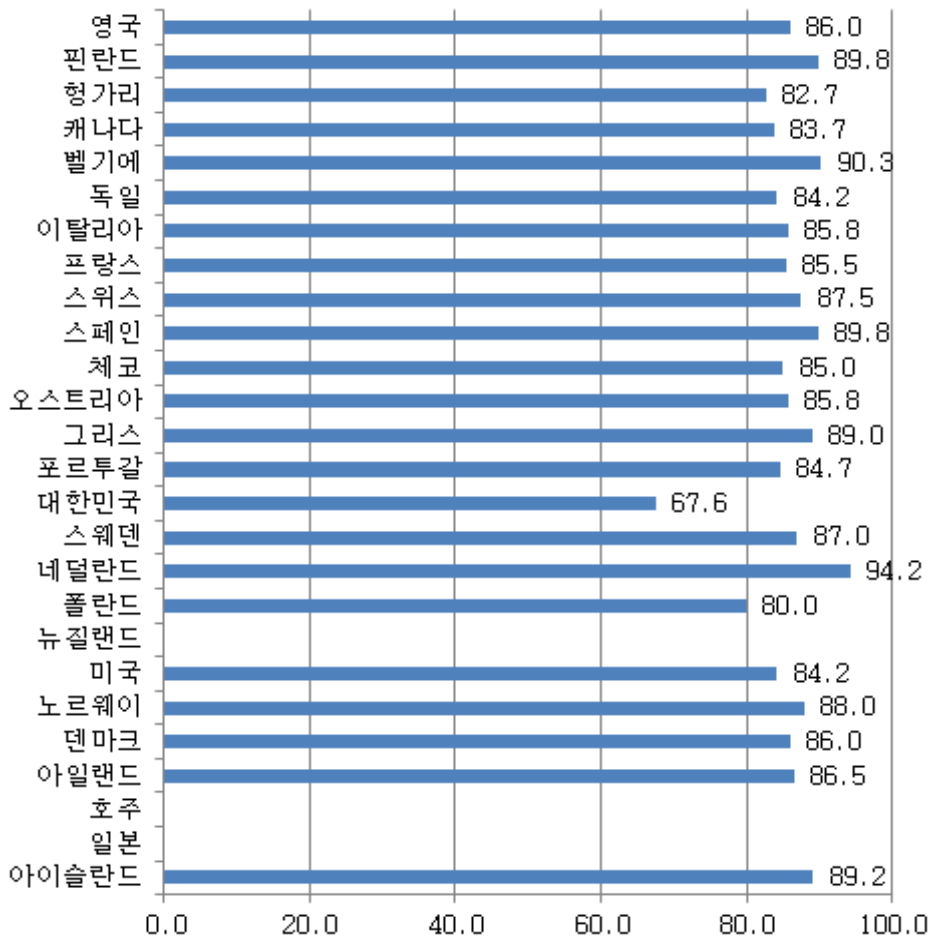
삶의 만족 척도 :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만족한다' 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부정적 생각 :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

-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한국은 67.6%로, OECD 국가 평균(85.77%)보다 크게 낮았다.

〈그림 3-38〉 삶의 만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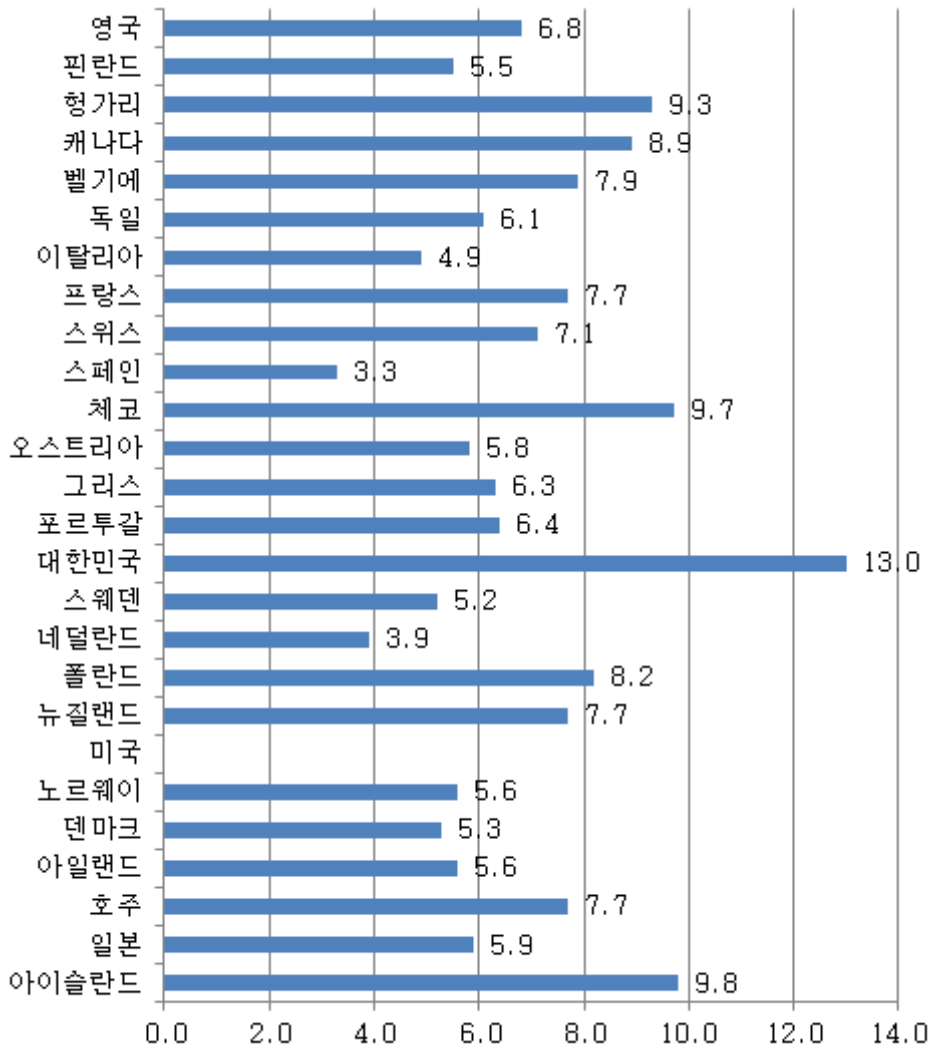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삶의 만족	85.77	4.85	68	94

-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이 13.0%로, OECD 국가 평균(6.68%)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그림 3-39〉 소속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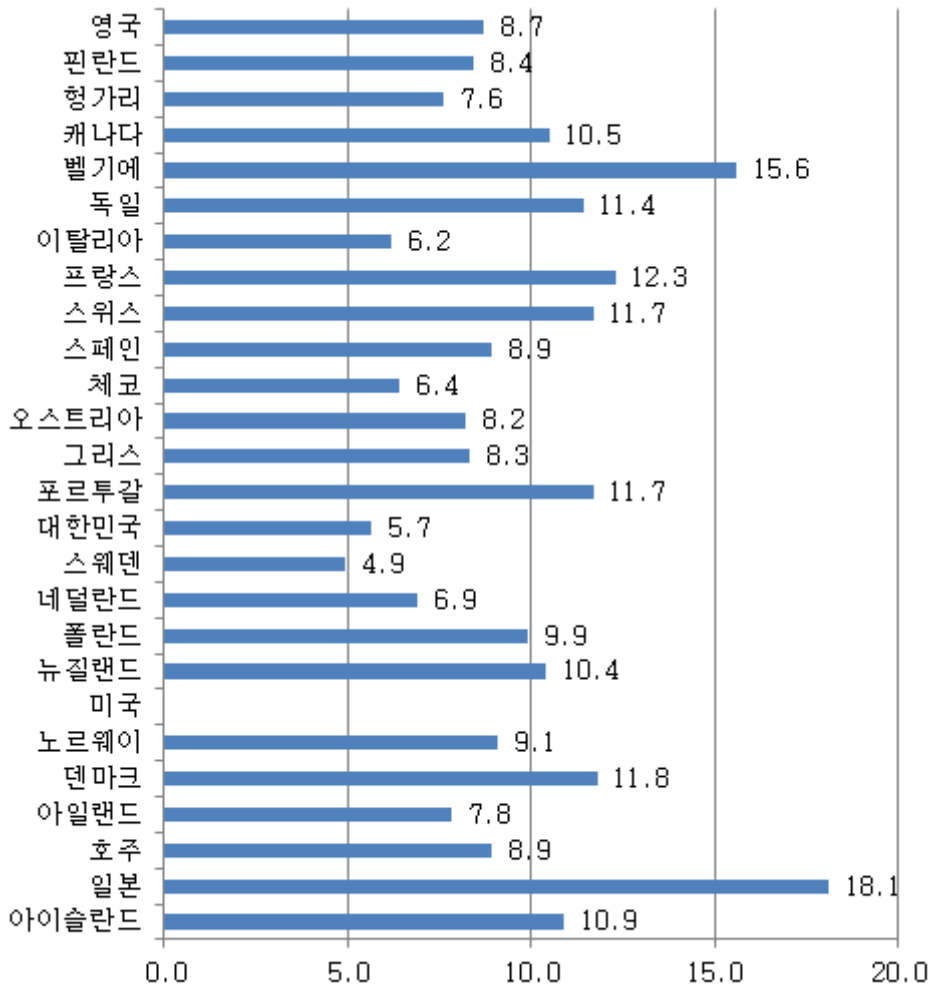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소속감	6.68	2.44	0	13

-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학생의 경우 한국은 5.7%로 OECD 국가 평균(9.22%) 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3-40〉 어울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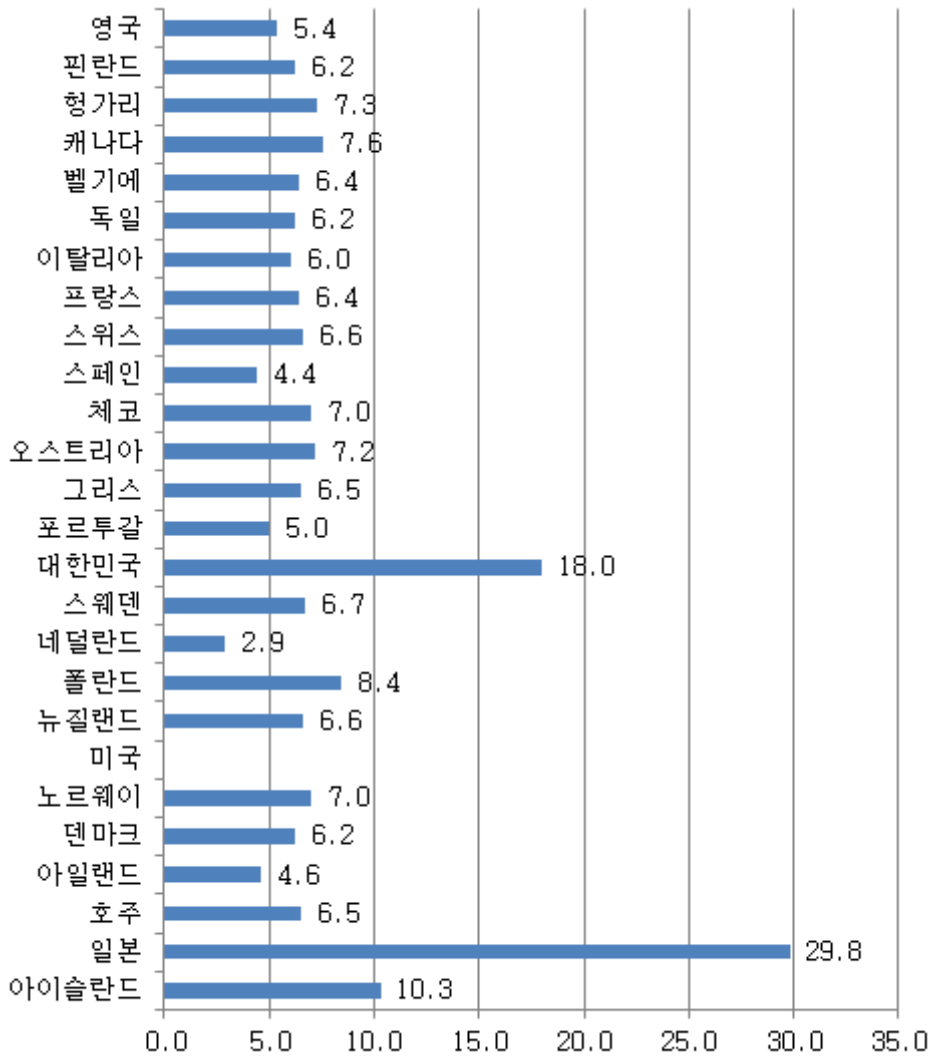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어울림	9.22	3.43	0	18

-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은 18.0%로, OECD 평균(7.40%)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1〉 외로움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외로움	7.43	5.34	0	30



2014년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제4장 생활양식과 행복가치관

A. 행복도 및 행복가치관

1. 주관적 행복

1) 주관적 행복도 5)

① 주관적 행복 수준

- 초중고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행복감의 정도를 4점 척도로 확인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7%가 ‘행복하다(매우 그렇다 + 그렇다)’고 응답했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87.2%, 중학생의 78.8%, 고등학생의 73.1%가 ‘행복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연령과 교급이 높아질수록 주관적인 행복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78.8%, 여학생의 78.6%가 ‘행복하다’고 응답해 성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적 수준별 ‘행복하다’의 응답률에서는 상위집단 85.8%, 중간집단 81.5%, 하위집단 71.4%로 나타남으로써 성적과 주관적 행복감이 일정 정도 비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성적이 학생들에게 주요한 부담이자 스트레스 요인일 수 있기에 성적이 우수할수록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느낄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이것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4-1〉 주관적 행복도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가정경제 수준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상	중	하
사례수	6,934	1,723	2,566	2,645	3,678	3,256	1,428	2,825	2,002	1,213	5,047	538
행복함	78.7	87.2	78.8	73.1	78.8	78.6	85.8	81.5	71.4	89	78.6	57
행복하지 않음	14.1	7.1	13.9	18.9	14.3	13.9	9.7	11.4	19.8	7.5	13.8	31.7
모르겠다	7.2	5.7	7.3	8.0	6.8	7.6	4.6	7.1	8.8	3.5	7.6	1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가정경제 수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집단의 89.0%, 중간집단의 78.6%, 하위집단의 57.0%가 ‘행복하다’고 응답해 가정형편이 학생들의 행복감과 어느 정도의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5) 본 설문에서 주관적 행복은 몇 가지의 형태로 측정되었다.

a. 설문문항(2013) 29번 : 4점 척도 단일문항 - “여러 가지 면에서 평소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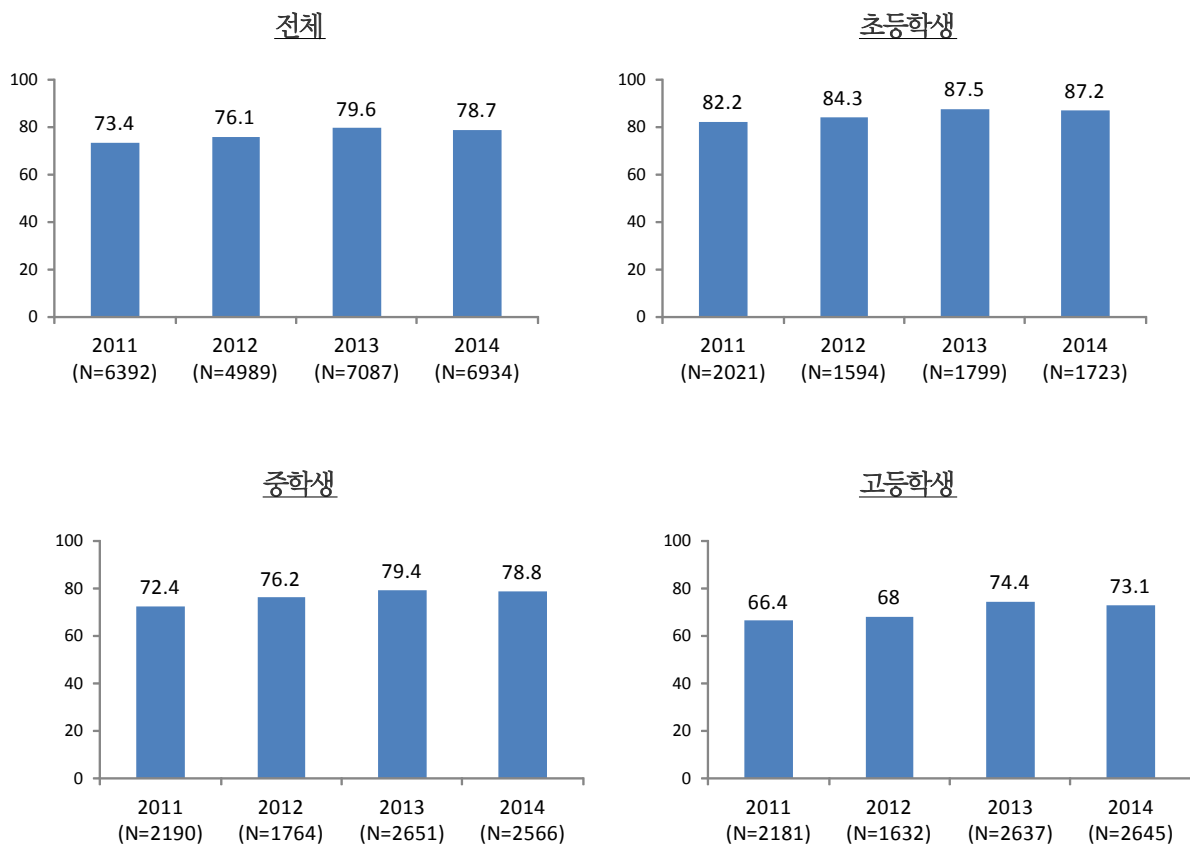
b. 설문문항(2013) 27번 : 5점 척도 6개문항 - 주관적 건강 인식, 학교생활, 삶, 준거집단 소속감, 주변과의 어울림, 외로움 등

② 주관적 행복 수준 변화 추이 (2011년~2014년)

- 주관적 행복 수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초중고생의 ‘행복하다(매우 그렇다 + 그렇다)’는 응답률은 2011년 73.4%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3년 79.6%를 나타냈다가 올해 78.7%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2011년~2014년 주관적 행복도 변화 추이

(단위 : %)



- 학교급별 ‘행복하다’의 응답률 추이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2011년 82.2%, 2013년 87.5%, 2014년 87.2%로 지난 해에 비해서는 아주 근소한 감소를 보여준다. 중학생의 경우는 2011년 72.4%, 2013년 79.4%, 2014년 78.8%로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하고 있다. 전년 대비 근소한 감소세는 고등학생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2011년 66.4%, 2013년 74.4%, 2014년 73.1%의 응답률을 보였다.

2) 세부 요소별 주관적 행복 수준

① 세부 요소별 주관적 행복 수준

- 초중고생들의 주관적인 행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6개의 항목으로 행복의 요소들을 구분해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6개 항목의 종합 평균점수는 3.87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남학생에 비해서는 여학생이, 성적 수준이 낮을수록 종합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 6개 항목 중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라는 항목의 점수가 전체 4.11점으로 가장 높았고, 반면 ‘준거집단에 대한 소속감’ 항목의 평균점수가 전체 3.6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2〉 세부 요소별 주관적 행복 수준

(단위 : 5점 척도 평균)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사례수	6,946	1,726	2,572	2,648	3,685	3,261	1,431	2,828	2,005
건강하다고 생각	4.11	4.38	4.13	3.91	4.16	4.05	4.28	4.18	3.91
학교생활 매우 좋아함	3.87	4.12	3.92	3.65	3.89	3.84	4.19	3.94	3.59
내 삶에 만족	3.75	4.24	3.75	3.42	3.83	3.66	4.06	3.84	3.44
준거집단 소속감	3.68	3.69	3.70	3.65	3.69	3.67	4.02	3.70	3.46
주변에 어울림과 적응	4.00	4.20	4.01	3.87	4.02	3.98	4.26	4.05	3.80
외로움을 느끼지 않음	3.80	4.34	3.76	3.48	3.91	3.67	3.97	3.92	3.56
종합평균	3.87	4.16	3.88	3.66	3.92	3.81	4.13	3.94	3.63

- 학교급별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 평균점수가 4.16점이며, ‘스스로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고(4.38점),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편’이며(4.34점), ‘내 삶에 만족’(4.24)한다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전체 종합 평균점수가 각각 3.88점과 3.66점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에 비해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 수준(‘내 삶에 만족한다’ 3.42점)과 외로움(‘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 않는 편이다’ 3.48점)을 측정한 두 항목에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 집단과 상대적으로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어,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낮고 외로움도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세부 요소별 주관적 행복 수준 변화 추이 (2011년~2014년)

- 6개 항목의 행복 수준 측정결과에 대해 2011년부터 2014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3.76점, 2013년 3.82점, 2014년 3.87점으로 나타났고, 지난 해 대비 0.5점이 상승해 근소하게나마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6개 항목 중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와 ‘준거집단에 대한 소속감’ 항목으로 두 항목 모두 1.2점의 상승을 보여주었다. 반면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잘 느끼지 않는다’는 항목은 지난 해보다 0.4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2011년~2014년 세부 요소별 주관적 행복 수준 변화 추이 _ 전체

(단위 : 5점 척도 평균)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사례수	6,410	5,000	7,104	6,946	
건강하다고 생각	4.03	4.08	4.09	4.11	▲ 0.2
학교생활 매우 좋아함	3.69	3.72	3.75	3.87	▲ 1.2
내 삶에 만족	3.57	3.66	3.70	3.75	▲ 0.5
준거집단 소속감	3.54	3.63	3.56	3.68	▲ 1.2
주변에 어울림과 적응	3.91	3.95	3.96	4.00	▲ 0.4
외로움 안느낌	3.83	3.86	3.84	3.8	▽ 0.4
종합평균	3.76	3.82	3.82	3.87	▲ 0.5

- 한편, 학교급별 변화 추이에서는 전반적으로 초중고생 모두 6개 항목 종합 평균점수가 0.5점에서 0.6점 가량 지난 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 개 항목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가 발견되는데,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항목에서 0.1점 하락,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잘 안 느낀다’ 항목에서 각각 0.8점, 0.5점이 낮아졌다.

〈표 4-4〉 2011년~2014년 세부 요소별 주관적 행복 수준 변화 추이 _ 학교급별

(단위 : 5점 척도 평균)

구분	초					중					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사례수	2026	1601	1807	1726		2198	1767	2656	2572		2186	1632	2641	2648	
건강하다고 생각	4.30	4.30	4.39	4.38	▽0.1	3.99	4.06	4.10	4.13	▲0.3	3.81	3.88	3.87	3.91	▲0.4
학교생활 매우 좋아함	3.93	3.97	4.01	4.12	▲1.1	3.69	3.75	3.82	3.92	▲1.0	3.47	3.45	3.50	3.65	▲1.5
내 삶에 만족	4.05	4.11	4.20	4.24	▲0.4	3.48	3.64	3.70	3.75	▲0.5	3.22	3.24	3.37	3.42	▲0.5
준거집단 소속감	3.80	3.80	3.55	3.69	▲1.4	3.47	3.61	3.56	3.7	▲1.4	3.37	3.47	3.56	3.65	▲0.9
주변에 어울림과 적응	4.06	4.10	4.13	4.2	▲0.7	3.91	3.97	4.00	4.01	▲0.1	3.76	3.79	3.81	3.87	▲0.6
외로움 안느낌	4.28	4.29	4.31	4.34	▲0.3	3.83	3.87	3.84	3.76	▽0.8	3.42	3.44	3.53	3.48	▽0.5
종합평균	4.07	4.10	4.10	4.16	▲0.6	3.73	3.82	3.83	3.88	▲0.5	3.51	3.55	3.61	3.66	▲0.5

2. 행복에 대한 의식

1) 행복을 느끼는 경우 및 상황 (2013년~2014년) 6)

-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질적인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우에 행복을 느끼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거의 절반 정도가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라고 답했다.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할 때 행복을 느낀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과열된 교육현실과 학습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를 분출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학교급별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의 경우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는 응답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초등학생 35.6%, 중학생 43.3%, 고등학생 46.8%).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행복하다는 응답은 중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30.3%). ‘성적이 좋을 때’와 ‘부모님과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행복하다는 응답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 주목할 만한 것은 ‘성적이 좋을 때’ 행복하다는 비율이 2013년 12.8%, 2014년 11.9%에 불과하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는 부모세대가 강조하는 공부와 성적이 정작 청소년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행복 요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5〉 2013년~2014년 행복을 느끼는 경우 및 상황 변화 추이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2013	2014	초		중		고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사례수	7,079	6,925	1,798	1,721	2,646	2,566	2,634	2,637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	44.9	42.7	34.5	35.6	46.0	43.3	51.0	46.8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24.6	27.1	21.5	21.3	28.1	30.3	23.2	27.7
성적이 좋을 때	12.8	11.9	16.6	16.0	12.3	11.4	10.6	9.6
부모님과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9.1	7.9	17.3	14.9	6.7	6.0	5.8	5.1
가정형편이 넉넉할 때	4.1	3.0	3.1	3.3	3.8	2.6	5.1	3.3
공부가 재미있을 때	2.3	2.4	3.9	3.1	1.7	1.8	1.8	2.4
기타	2.2	5.0	3.1	5.8	1.4	4.6	2.4	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 2013년도 신규 문항

2) 행복 준거집단 및 장소

① 행복을 느끼는 준거집단 및 장소

- 청소년들이 행복을 느끼는 준거집단 또는 장소에 대해 질문한 결과 ‘친구와 모이는 장소’(35.3%)와 ‘집’(32.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교’와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라는 응답도 각각 12.0%와 7.7%를 차지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5.8%는 행복을 느끼는 장소가 ‘특별히 없다’고 응답했는데, 이 비율은 주관적 행복도를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행복하지 않다’는 집단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11.2%).
- 학교급별 결과에서도 친구, 집, 학교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동일하게 확인되나, 교급별 우선 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즉, 중고생들이 행복을 느끼는 공간으로 ‘친구와 모이는 장소’를 꼽은 비율이 각각 38.7%와 38.1%로 1순위를 차지한 것과는 달리 초등학교 집단에서는 ‘친구’(25.8%)보다 ‘집’(48.2%)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이동을 지나 청소년기로 성장해가면서 친구관계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응답이 남학생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여학생 9.0%, 남학생 6.5%).
- 주관적 행복 수준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에서 특징적인 점은 ‘행복하지 않다’는 집단의 경우 ‘집’과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행복하다’는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또한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를 꼽은 비율도 17.7%로 전체 평균 7.7% 및 ‘행복하다’는 집단의 응답률 5.2%와 비교할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행복감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경우 집과 학교보다는 친구들과의 교우관계에 집중하거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고 찾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표 4-6〉 행복을 느끼는 장소 및 집단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주관적 행복	
		초	중	고	남	여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사례수	6,934	1,725	2,569	2,640	3,677	3,257	5,449	979
친구와 모이는 장소	35.3	25.8	38.7	38.1	35.1	35.5	35.1	38.7
집	32.3	48.2	27.2	26.8	33.2	31.3	35.8	17.3
학교	12.0	10.0	13.0	12.4	11.8	12.3	13.5	6.5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	7.7	4.4	8.2	9.2	6.5	9.0	5.2	17.7
학원	1.8	1.9	1.8	1.7	1.8	1.7	1.8	2.2
동아리	1.1	1.0	1.2	1.0	1.3	0.8	1.1	1.0
기타	4.1	2.8	4.4	4.7	4.8	3.4	3.7	5.4
특별히 없다	5.8	5.8	5.4	6.1	5.6	5.9	3.8	1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행복을 느끼는 준거집단 및 장소의 변화 추이 (2011년~2014년)

- 행복을 느끼는 준거집단 및 장소에 대한 2011년에서 2014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각 항목별 응답비율의 크기나 순서에 있어서는 2013년과 동일하게 ‘친구 > 집 > 학교 >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 > 학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전년 대비 항목별 증감폭에서는 몇 가지 근소한 변화들이 발견된다. 먼저 지난 해보다 증가한 항목은 ‘학교’(▲1.4% 포인트),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0.7% 포인트) 등이고, 반면에 ‘집’(▽0.8% 포인트), ‘친구와 모이는 장소’(▽0.5% 포인트)의 응답률은 다소 감소했다. 이 가운데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던 ‘학교’에 대한 응답률이 소폭이나마 상승한 것은 학교가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변화로 여겨진다.

〈표 4-7〉 2011년~2014년 행복을 느끼는 장소 및 집단 변화 추이 _ 전체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증감
사례수	6,400	4,986	7,066	6,934	
친구와 모이는 장소	25.7	31.2	35.8	35.3	▽ 0.5
집	26.2	36.4	33.1	32.3	▽ 0.8
학교	17.7	11.5	10.6	12	▲ 1.4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	10.9	6	7	7.7	▲ 0.7
학원	7.7	2.2	1.9	1.8	▽ 0.1
동아리	6	1.7	1.6	1.1	▽ 0.5
기타	4.7	3.7	3.5	4.1	▲ 0.6
특별히 없다	1.1	7.3	6.5	5.8	▽ 0.7
계	100.0	100.0	100.0	100.0	-

- 학교급별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2014년에도 ‘집’을 행복 장소로 꼽은 비율이 1순위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항목은 ‘특별히 없다’(▲0.8% 포인트), ‘친구와 모이는 장소’(▲0.6% 포인트), ‘학교’(▲0.1% 포인트) 등이고, 반대로 감소한 항목은 ‘동아리’(▽1.3% 포인트), ‘학원’(▽0.7% 포인트), ‘집’(▽0.5% 포인트) 등이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1순위를 차지한 항목은 지난 해와 같이 ‘친구와 모이는 장소’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감폭에 있어서 두드러진 사항으로는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지난 해보다 1.6% 포인트 상승한 점과 ‘집’이 2.2% 포인트 하락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고등학생 집단의 1순위도 작년과 동일하게 ‘친구와 모이는 장소’로 나타났으며, 전년과 비교할 때 ‘학교’ 응답률이 2.5% 포인트 상승한 점과 ‘친구와 모이는 장소’ 응답률이 2.0% 포인트 감소한 것이 두드러진 변화라 할 수 있다.

(표 4-8) 2011년~2014년 행복을 느끼는 장소 및 집단 변화 추이 _ 학교급

(단위 : %)

구분	초					중					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사례수	2026	1595	1798	1725		2191	1760	2645	2569		2183	1631	2623	2640	
친구와 모이는 장소	23.9	21.8	25.2	25.8	▲0.6	25.5	34.2	38.8	38.7	▽0.1	27.5	37.1	40.1	38.1	▽2.0
집	28.8	51.7	48.7	48.2	▽0.5	25	31.6	29.4	27.2	▽2.2	25.1	26.5	26.3	26.8	▲0.5
학교	18.4	8.2	9.1	10	▲0.1	17.9	13.3	12.4	13	▲0.6	16.6	12.6	9.9	12.4	▲2.5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	7.7	4.2	4.7	4.4	▽0.3	10.6	6.1	6.6	8.2	▲1.6	14.3	7.8	8.9	9.2	▲0.3
학원	10.4	2.8	2.6	1.9	▽0.7	8.3	2.5	1.9	1.8	▽0.1	4.4	1.4	1.3	1.7	▲0.4
동아리	5.2	1.3	2.3	1	▽1.3	7.2	1.8	1.3	1.2	▽0.1	5.7	2.1	1.4	1	▲0.6
기타	5	3.4	2.5	2.8	▲0.3	4.2	3	2.9	4.4	▲1.5	5	4.8	4.8	4.7	▽0.1
특별히 없다	0.7	6.7	5	5.8	▲0.8	1.3	7.5	6.8	5.4	▽1.4	1.4	7.8	7.3	6.1	▽2.1
계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3) 행복하지 않을 때 (2013년~2014년) 7)

- 행복을 느끼는 경우 못지 않게 반대로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의 행복에 대한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라는 고려 하에 2013년부터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나 상황’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2013년과 2014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과 올해 모두 ‘성적에 대한 압박’(2013년 24.3%, 2014년 23.3%)과 ‘학습부담’(2013년 21.0%, 2014년 20.8%)의 두 가지 요인이 각각 1, 2순위를 차지했다. 즉, 전체 초중고생의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공부, 학습, 성적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일상생활의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 항목별 변화 추이에서 특징적인 것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성적압박이나 학습부담 요인의 비중은 커지는 반면, ‘부모님과 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줄어든다는 점이다.
- 학교급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작년과 올해 모두 ‘학습부담’ 과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1, 2순위를 차지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두 집단 모두 작년과 동일하게 ‘성적압박’과 ‘학습부담’이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성적압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초중생에 비해 고등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성적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행복감 저하의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7) 2013년도 신규 문항

〈표 4-9〉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초		중		고		남		여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사례수	7,072	6,901	1,797	1,715	2,644	2,552	2,631	2,634	3,787	3,653	3,284	3,249
성적에 대한 압박이 심할 때	24.3	23.3	16.3	15.6	24.9	23.5	29.1	28.2	24.6	24.1	24.0	22.4
학습부담이 너무 클 때(학교, 학원)	21.0	20.8	22.0	20.8	23.3	24.7	18.0	17.1	24.2	23.2	17.4	18.1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16.1	16.7	14.1	14.7	18.1	18.1	15.5	16.5	10.6	10.6	22.5	23.4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12.7	12.3	19.9	20.8	12.6	9.9	7.9	9.0	12.3	12.0	13.2	12.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느낄 때	6.7	6.3	7.4	6.9	4.9	5.1	7.9	7.1	6.1	5.6	7.3	7.1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없을 때	16.6	14.7	16.9	13.2	14.3	14.0	18.8	16.3	19.7	17.3	13.1	11.7
기타	2.3	6.0	3.6	8.0	1.9	4.7	2.9	5.9	2.4	7.1	2.4	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성별 차이에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사항이 발견된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친구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 대한 응답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여학생들 가운데 5명중 1명꼴로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했는데(2013년 22.5%, 2014년 23.4%), 이러한 수치는 남학생들의 응답률(2013년과 2014년 모두 10.6%)의 2배를 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적과 학습에 대한 부담이 클 때 행복하지 않다는 비율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4년도 결과를 기준으로 두 항목의 합계 응답률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47.3%, 여학생은 40.5%이다. 또한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없을 때’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도 2014년 기준, 남학생은 17.3%, 여학생은 11.7%로 차이를 보여준다.

4)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① 행복의 요건

-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초중고생의 약 1/4에 해당하는 26.2%가 ‘회복한 가족’이라고 응답했으며, ‘성적 향상’ (14.0%), ‘자유’ (13.8%)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한편, 돈이 행복의 필요 조건이라는 응답도 13.4%를 차지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도 경제적 요소라는 현실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비증있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10〉 행복의 요건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주관적 행복	
		초	중	고	남	여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사례수	6,914	1,711	2,561	2,641	3,663	3,251	5,429	978
회복한 가족	26.2	43.6	23.5	17.5	20.6	32.5	29.3	13.4
성적 향상	14	4.6	15.4	18.7	14.7	13.1	13.5	16.6
자유	13.8	13	15.2	13	13.9	13.6	12.4	19.8
돈	13.4	5.6	12.8	19.2	15.1	11.6	11.4	22.1
건강	12.7	20.6	11.1	9	14.4	10.7	14.3	5.5
동성 친구	8.5	4.9	11.2	8.3	6.7	10.6	8.4	8.1
이성 친구	5.4	2.4	5.5	7.2	7.9	2.6	5.2	6.5
자격증(기술 등)	1.5	1.7	1.1	1.7	2	0.9	1.4	1.5
종교	1	0.9	0.7	1.4	1.1	1	1.2	0.5
기타	3.5	2.6	3.6	3.9	3.5	3.4	2.9	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들은 무엇보다도 ‘회복한 가족’(43.6%)과 ‘건강’(20.6%)을 행복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꼽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회복한 가족’(23.5%)이 차지했고, ‘자유’에 대한 응답률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들의 행복 요건에서는 ‘돈’(19.2%)과 ‘성적 향상’(18.7%)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동성 친구’를 행복 요건으로 꼽은 비율은 중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성친구’에 대한 응답률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학생 모두 ‘회복한 가족’을 행복에 필요한 1순위 요건으로 선택했으며, 특히 여학생들의 응답률이 남학생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친구관계를 행복의 요건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남녀의 차이도 발견되는데 남학생들이 동성보다는 이성친구를 더 많이 선택한 것과 달리 여학생 집단에서는 이성친구보다는 동성친구에 대한 선택 비율이 훨씬 높았다.
- 주관적 행복 수준에 따라 행복 요건에 대한 응답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행복’ 집단에서는 ‘회복한 가족’(29.3%)과 ‘건강’(14.3%)을 가장 중요한 행복 요건으로 꼽았으나, ‘행복하지 않다’는 집단에서는 ‘돈’(22.1%)과 ‘자유’(19.8%)가 각각 1, 2순위를 차지했으며 ‘회복한 가족’(13.4%)이나 ‘건강’(5.5%)에 대해서는 ‘행복’ 집단에 비해 크게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또한 행복 요건으로 ‘성적 향상’을 선택한 비율은 ‘행복’ 집단에서는 13.5%, ‘행복하지 않다’는 집단에서는 16.6%로 나타났다.

② 행복의 요건 변화 추이 (2011년~2014년)

- 행복 요건에 대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복한 가족’에 대한 응답률이 2011년 이래 계속 1순위를 차지해 청소년들에게 ‘회복한 가족’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

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비율은 2011년과 2012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올해의 경우 지난 해보다 0.1% 포인트 상승해 큰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

- 항목별 변화를 살펴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자유’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지난 해 16.6%보다 2.8% 포인트 감소했고, ‘건강’을 선택한 비율은 1.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2011년~2014년 행복의 요건 변화 추이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증감
사례수	6,373	4,966	7,078	6,914	
화목한 가족	34.5	30.8	26.1	26.2	▲ 0.1
돈	15.5	16.1	14.1	13.4	▽ 0.7
동성 친구	14.4	16.4	8.1	8.5	▲ 0.4
건강	9.2	9.2	11.1	12.7	▲ 1.6
여가	7.4	8.5	0	0	-
학력	4.3	4	0	0	-
자유	4.2	4.4	16.6	13.8	▽ 2.8
성적 향상	2.5	2.8	14.6	14	▽ 0.6
종교	1.2	1.1	0.8	1	▲ 0.2
이성 친구	0.4	0.6	5	5.4	▲ 0.4
자격증(기술 등)	0.4	0.3	1.5	1.5	-
기타	6.0	5.9	2.1	3.5	▲ 1.4
계	100.0	100.0	100.0	100.0	-

B. 가족과 친구관계

1. 부모와의 관계

1) 부모자녀 관계

① 아버지, 어머니와의 친밀도

- 청소년들이 부모와 맺고 있는 관계의 친밀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소 부모와의 사이, 함께 보내는 시간, 상호 이해, 원활한 대화’ 등을 내용을 하는 총 4개 문항, 5점 척도로 조사해 보았다. 아버지와의 친밀도는 4개 문항 종합 평균 3.85점, 어머니와의 친밀도는 4.24점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이 부모와 비교적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와의 친밀도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친밀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4개 질문항목별 평가를 비교해보면,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라는 항목의 점수가 부, 모 모두 가장 높았다(부 4.26점, 모 4.58점). 반면, ‘어떤 문제든지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부 3.47점, 모 3.96점).

〈표 4-12〉 부모자녀 관계

(단위 : 5점 척도 평균)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사례수	6,946	1,726	2,572	2,648	3,685	3,261	1,431	2,828	2,005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부	4.26	4.57	4.22	4.10	4.25	4.27	4.42	4.37	4.01
	모	4.58	4.78	4.53	4.49	4.54	4.62	4.68	4.12	4.68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	부	3.87	4.21	3.91	3.61	3.91	3.83	4.10	3.96	3.61
	모	4.28	4.53	4.27	4.13	4.26	4.29	4.42	3.66	4.49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	3.8	4.15	3.79	3.57	3.87	3.71	4.01	3.90	3.52
	모	4.16	4.46	4.15	3.99	4.18	4.15	4.32	3.46	4.35
부모님에게 어떤 문제 든지 얘기할 수 있다	부	3.47	3.92	3.43	3.22	3.64	3.29	3.73	3.57	3.19
	모	3.96	4.32	3.91	3.79	3.97	3.96	4.15	3.19	4.18
종합평균	부	3.85	4.21	3.83	3.63	3.92	3.77	4.07	3.95	3.58
	모	4.24	4.52	4.21	4.10	4.24	4.25	4.43	4.30	4.05

- 학교급별 부모와의 친밀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공통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친밀도 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아버지 친밀도 : 초 4.21점 > 중 3.83점 > 고 3.63점, 어머니 친밀도 : 초 4.52점 > 중 4.21점 > 고 4.10점).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남학생, 여학생 모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친밀도가 높은 편이다. 아버지와의 친밀도에서 남학생은 3.92점, 여학생은 3.77점으로 남학생들이 아버지와 보다 친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성별 편차도 1.5점으로 비교적 뚜렷하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친밀도에서는 남학생 4.24점, 여학생 4.25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 준다. 남녀 청소년 모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부자관계’에 비해 ‘부녀관계’의 친밀감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성적 수준에 따라서는 성적 상위집단으로 갈수록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맺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아버지 친밀도 : 상위집단 4.07점 > 중간집단 3.95점 > 하위집단 3.58점, 어머니 친밀도 : 상위집단 4.43점 > 중간집단 4.3점 > 하위집단 4.05점).

② 부모와의 관계 변화 추이 (2011년~2014년)

-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모자녀간 친밀감에 대한 조사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모두 근소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점수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 추세를 나타냈다. 4개 항목 종합평가를 살펴보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전년 대비 0.4점, 어머니와의 관계는 0.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2011년~2014년 부모와의 관계 변화 추이

(단위 : 5점 척도 평균)

구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사례수	6,410	5,000	7,104	6,946		6,410	5,000	7,104	6,946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4.21	4.18	4.22	4.26	▲ 0.4	4.53	4.53	4.56	4.58	▲ 0.2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	3.69	3.74	3.83	3.87	▲ 0.4	4.12	4.18	4.23	4.28	▲ 0.5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3.66	3.69	3.76	3.8	▲ 0.4	4.04	4.10	4.14	4.16	▲ 0.2
부모님에게 어떤 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	3.25	3.34	3.43	3.47	▲ 0.4	3.77	3.87	3.89	3.96	▲ 0.7
종합평균	3.7	3.74	3.81	3.85	▲ 0.4	4.12	4.17	4.21	4.24	▲ 0.3

- 부모·자녀간 친밀도를 측정하는 세부 항목별을 전년 대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4개 항목 모두 지난 해보다 0.4점씩의 증가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4개 항목 모두 전년 대비 증가를 보였으며, ‘어머니에게 어떤 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항목이 0.7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는 항목도 지난 해보다 0.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와의 대화 내용 (2013년~2014년)⁸⁾

- 평소 부모와 나누는 대화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과 마찬가지로 학교, 학원 공부와 성적 등 학업과 관련된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13년, 2014년도 모두 ‘학교 및 학원 생활’에 대한 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각 항목별 우선 순위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 및 학원 생활’과 관련된 대화 비중이 2013년 32.8%에 비해 2014년 29.6%로 다소 감소한 대신 ‘미래 진로와 직업’에 대한 대화가 전년도에 비해 약 2% 증가한 14.6%로 나타났다. 미세한 변화이지만 사회전반적으로 취업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청소년 단계에서부터 자녀들의 미래 진로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학교급별로는 2013년, 2014년 공통으로 초중고 모두에서 ‘학교 및 학원생활’에 대한 대화를 주로 많이 나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준다. 대신 ‘공부와 성적’, ‘미래 진로와 직업’에 대한 대화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진학과 취업을 앞둔 고등학생의 경우 향후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대화의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8) 2013년도 신규 문항

〈표 4-14〉 2013년~2014년 부모와의 대화 내용 변화 추이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초		중		고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사례수	7,063	6,821	1,795	1,689	2,644	2,521	2,624	2,612
학교 및 학원생활	32.8	29.6	37.7	36.4	32.6	28.0	29.6	26.6
공부와 성적	15.8	17.9	8.6	9.8	18.0	18.6	18.6	22.3
친구관계	10.0	10.2	13.3	13.9	10.7	11.6	7.1	6.3
미래 진로와 직업	12.7	14.6	7.5	8.0	10.7	13.8	18.3	19.6
취미와 여가활동	10.8	10.4	14.5	14.6	11.1	10.8	8.1	7.4
기타	17.8	17.3	18.5	17.3	16.9	17.1	18.3	1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친구관계

1) 친구관계

- 어린이·청소년들의 교우관계는 3개 항목,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항목별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면, 3개 항목 중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매우 그렇다 + 그렇다) 응답률이 전체 9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2개 항목에 대해서는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한다’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72.1%, ‘내 고민을 친구에게 이야기한다’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62.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친구와의 관계를 의미있고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비교적 편안하고 안정된 감정적 유대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학교급별 특성에서는 초중고생 모두 90% 이상의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고 응답했다. 중고생의 경우 초등학생에 비해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거나 ‘친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급이 올라가 성장해 가면서 친구관계의 의미가 보다 내면적인 동질성과 유대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숙해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15〉 친구관계

(단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주관적 행복	
		초	중	고	남	여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사례수	6,665	1,643	2,495	2,527	3,491	3,174	5,277	916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95.1	94.7	95.4	95	94.2	96.1	96.5	89.3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72.1	65.7	74.5	73.9	69.9	74.6	73.6	66
내 고민을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62.1	49.2	63.6	69.1	53.8	71.3	63.9	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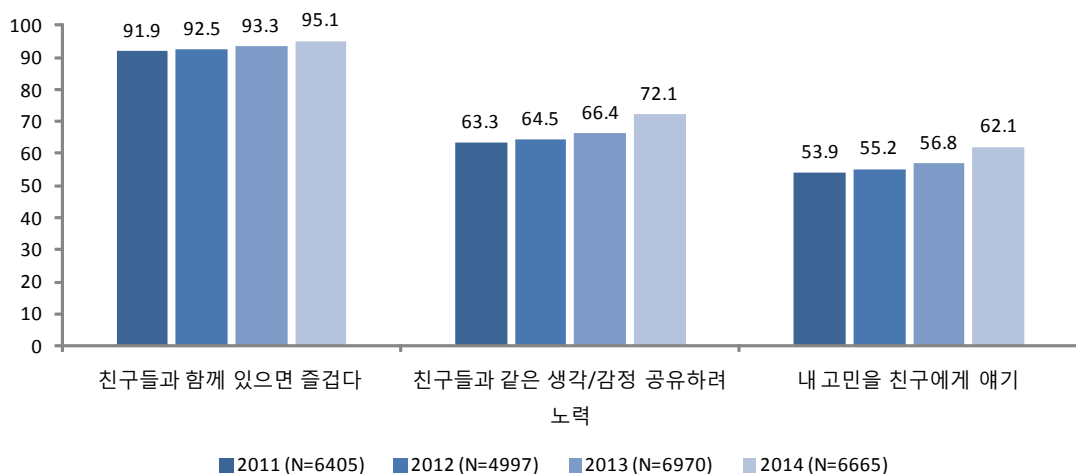
- 교우관계의 특성에서 두드러진 것은 성별에 따른 차이이다.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같은 생각과 감정 공유’ 및 ‘고민을 나누는’ 등의 내면적 교류 경향이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53.8%인데 비해 여학생은 71.3%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여겨지는 정서적 공감능력이 친구들과의 관계형성 및 유대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주관적 행복 수준에 따른 교우관계의 특성에서 발견되는 의미 있는 사항으로는 3개 항목 공통으로 ‘행복하다’는 집단에 비해 ‘행복하지 않다’는 집단의 긍정 응답률이 낮게 나타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과 긍정적인 교우관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친구관계 변화 추이 (2011년~2014년)

- 교우관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두드러진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3개 항목 모두 대해 조금씩 긍정 응답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한다’와 ‘고민을 이야기한다’는 항목의 긍정 응답률이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2011년~2014년 친구관계 변화 추이

(단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C. 학교생활 및 사교육 실태

1. 학교생활 성실도 9)

1) 학교생활 성실도

-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성실도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3개 항목,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3개 항목 평균 2.99점이며, 세부적으로 ‘매일 학교에 가려고 노력한다’가 3.24점, ‘좋아하지 않는 과목에도 최선을 다한다’가 2.89점, ‘모든 숙제에 최선을 다한다’가 2.82점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종합평균 3.18점으로 중고생에 비해 학교생활 성실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점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 주관적 행복 수준이 높을수록, 성적과 가정경제수준이 상위권일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교생활 성실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 행복감, 성적, 경제수준 등 생활 전반의 안정성이 청소년들의 성실한 학교생활의 밑거름이 되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6〉 학교생활 성실도

(단위 : 5점 척도 평균)

구분	전체	학교급			주관적 행복		성적			가정경제 수준		
		초	중	고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상	중	하	상	중	하
사례수	6,946	1,726	2,572	2,648	5,457	979	1,431	2,828	2,005	1,216	5,054	539
몸이 아프거나, 핑계가 있어도 매일 학교에 가려고 노력 한다	3.24	3.27	3.17	3.3	3.29	3.05	3.49	3.24	3.1	3.33	3.24	3.11
학교숙제나 시험을 위해 좋아하지 않는 과목까지 최선을 다한다	2.89	3.15	2.89	2.73	2.97	2.58	3.38	2.95	2.52	3.14	2.86	2.64
모든 숙제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들여 최선을 다한다	2.82	3.12	2.76	2.69	2.89	2.53	3.19	2.88	2.52	3.08	2.79	2.51
종합평균	2.99	3.18	2.94	2.91	3.05	2.72	3.35	3.03	2.71	3.18	2.97	2.75

2) 성적 스트레스

- 성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5점 척도로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1%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5점척도 평균 3.13점).
-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에서는 학교급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초등학생 가운데 성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19.9%에 불과하지만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중학생은 45.4%, 고등학생은 61.3%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9) 2014년도 신규문항

-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행복 수준이 낮은 집단이 ‘행복하다’는 집단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행복하지 않다’는 집단의 65.6%, 5점 척도 평균 3.72점), 성적수준이 낮은 하위집단으로 갈수록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행복하다’는 집단과 ‘성적 상위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도 각각 40.3%와 54.3%가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공부와 성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7〉 성적 스트레스

(단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5점 척도 평균)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주관적 행복		성적		
		초	중	고	남	여	행복하다	행복하지않다	상	중	하
사례수	6,884	1,718	2,548	2,619	3,649	3,235	5,407	971	1,425	2,818	1,989
그렇지 않다	31.3	58.7	27.9	16.6	35.1	27.0	34.8	17.5	44.1	32.8	22.3
보통	23.6	21.4	26.7	22.1	24.1	23.1	24.9	16.9	21.2	25.4	23.4
그렇다	45.1	19.9	45.4	61.3	40.8	49.9	40.3	65.6	34.8	41.8	5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점 평균	3.13	2.33	3.18	3.59	3.01	3.26	2.98	3.72	2.75	3.06	3.41

2. 사교육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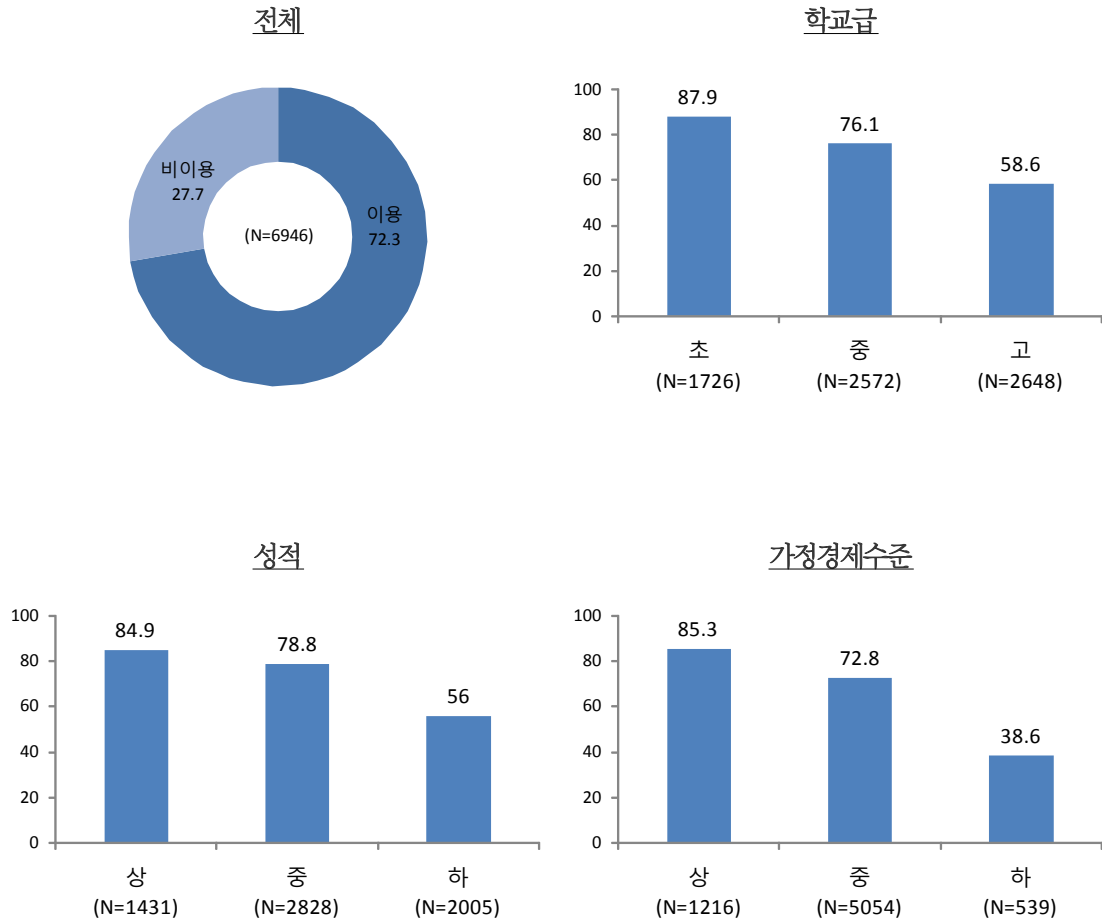
1) 사교육 이용률

① 사교육 이용률

-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의 72.3%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사교육 비율의 차이도 매우 뚜렷하게 발견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약 87.9%로 10명 중 9명, 즉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어떤 형태로든 사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사교육 비율은 76.1%로서, 초등학생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엔 이 비율이 급격히 감소해 전체 고등학생의 절반 수준인 58.6%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사교육 비율이 현저히 높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차이가 약 30%에 이른다.
- 가정경제 수준과 사교육 비율은 뚜렷한 비례관계를 보여준다. 가정경제 수준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사교육 이용률은 각각 85.3%와 38.6%로 그 차이가 무려 40%를 넘어서고 있다. 가정형편이 넉넉할수록 사교육을 통한 교육지원이 활발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그림 4-3〉 사교육 이용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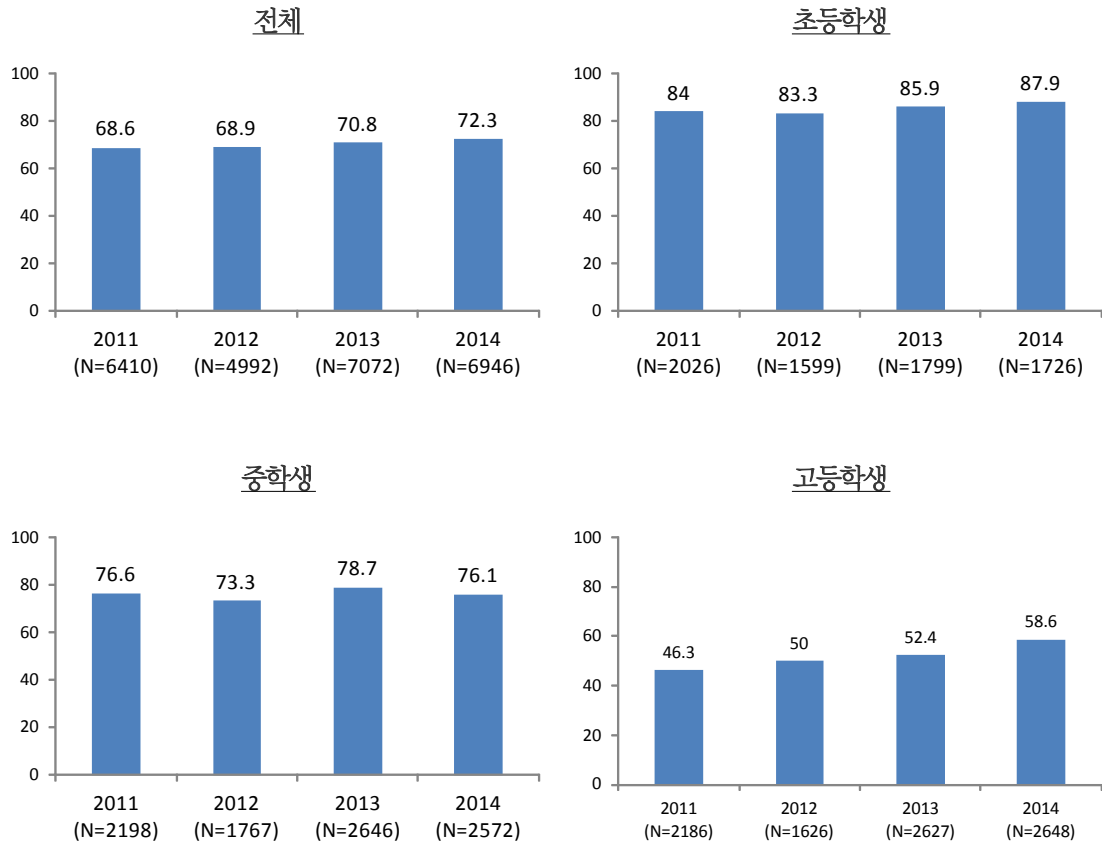


② 사교육 이용률 변화 추이 (2011년~2014년)

-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의 사교육 이용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2011년 68.6%에서 2014년 72.3%로 매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학교급별로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이용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준다. 2011년 84%에서 지난 해 85.9%, 올해는 전년 대비 2% 포인트 상승한 87.9%를 나타냈다. 중학생의 경우엔 올해 76.1%로 전년 대비 2.6% 포인트 감소를 나타냈다. 고등학생의 사교육 비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 올해는 지난 해보다 6.2% 포인트 증가한 58.6%를 나타냈다.

〈그림 4-4〉 2011년~2014년 사교육 이용률 변화 추이

(단위 : %)



2) 사교육 이용 기관 및 서비스 수

① 사교육 이용 기관 및 서비스 수

- 개별 학생들이 몇 가지의 사교육 서비스 및 기관을 이용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은 평균 2가지 정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4가지 이상의 사교육을 받는 학생도 전체 약 1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2.7개 수준, '4개 이상'이 약 25% 정도로 나타나 중고생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사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성적 상위권 집단으로 갈수록 여러 개의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학습 중인 사교육 기관 및 서비스 수

(단위 : %, 개수)

구분	전체	학교급			성적		
		초	중	고	상	중	하
사례수	5,015	1,514	1,953	1,549	1,215	2,226	1,120
1개	44.5	27.1	45.2	60.5	30.9	41.4	63.2
2개	31.2	28.4	35.7	28.3	30.7	33.3	26.6
3개	13.5	19.5	12.7	8.8	16.7	15.5	7.3
4개 이상	10.8	25.0	6.4	2.5	21.7	9.8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01	2.68	1.85	1.55	2.52	2.02	1.51

② 사교육 이용 기관 및 서비스 수의 변화 추이 (2011년~2014년)

-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의 갯수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인당 평균 2개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올해의 경우 지난 해에 비해 0.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2011년~2014년 사교육 이용 기관 및 서비스 수의 변화 추이 _전체

(단위 : %, 갯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례수	4,375	3,418	4,991	5,015
1개	45.9	47.6	44.8	44.5
2개	29.4	30.1	31.9	31.2
3개	13.2	11.9	13.7	13.5
4개이상	11.5	10.4	9.6.0	10.8
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 (갯수)	1.99	1.96	1.94	2.01

- 학교급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초중고 모두 지난 해에 비해 평균 사교육 개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고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사교육 개수의 증가율이 큰 편이다.

〈표 4-20〉 2011년~2014년 사교육 이용 기관 및 서비스 수의 변화 추이 _ 학교급

(단위 : %, 갯수)

구분	초				중				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례수	1,687	1,319	1,542	1,514	1,679	1,292	2,082	1,953	1,009	806	1,377	1,549
1개	29.0	31.6	29.6	27.1	50.7	53.7	45.4	45.2	66.2	63.9	60.6	60.5
2개	28.0	30.3	29.7	28.4	32.0	30.6	35.3	35.7	27.6	29.1	29.0	28.3
3개	20.7	16.6	20.5	19.5	10.6	11.0	12.5	12.7	5.10	5.70	7.6	8.8
4개 이상	22.4	21.5	19.9	25.0	6.7	4.70	6.7	6.4	1.10	1.30	2.3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갯수)	2.57	2.53	2.46	2.68	1.77	1.70	1.84	1.85	1.41	1.46	1.52	1.55

3) 사교육 시간

① 사교육 시간

-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의 사교육 시간은 1주일에 평균 9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적			지역		
		초	중	고	상	중	하	대도시	중소도시	도서벽지
사례수	4,992	1,501	1,945	1,546	1,212	2,215	1,117	2,550	1,983	459
5시간 미만	33.3	36.6	30.6	33.6	26.0	33.2	40.8	29.5	36.7	40.3
5-10시간 미만	25.8	24.2	21.2	33.0	24.3	26.4	26.8	26.6	24.9	24.8
10-15시간 미만	21.8	20.8	24.6	19.2	26.6	21.2	17.9	23.1	20.9	18.1
15-20시간 미만	10.9	10.1	14.0	7.7	14.2	10.4	8.5	11.4	10.3	10.0
20시간 이상	8.3	8.3	9.6	6.5	9.0	8.9	6.0	9.3	7.2	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시간)	9.05	8.9	9.71	8.36	10.14	9.1	7.81	9.6	8.56	8.08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9.71시간으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많은 시간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수준에 따라서는 사교육 이용 개수와 마찬가지로 성적 상위집단의 사교육 시간이 평균 10.14시간으로 중, 하 집단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서벽지 및 읍면 지역보다 중소도시, 대도시로 갈수록 사교육 시간이 길어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② 사교육 시간 변화 추이 (2011년~2014년)

- 2011년에서 2014년까지의 사교육 시간의 전체적인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1년 주당 평균 10시간이던 사교육 시간은 2012년 9.24시간, 2013년 8.93시간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9.05시간으로 약간 증가했다.

〈표 4-22〉 2011년~2014년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 변화 추이_전체

(단위 : %, 시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례수	4,355	3,404	4,959	4,992
5시간 미만	32.9	34.7	35.9	33.3
5-10시간 미만	25.3	25.6	25.4	25.8
10-15시간 미만	19.0	19.8	19.8	21.8
15-20시간 미만	10.2	10.3	10.6	10.9
20시간 이상	12.6	9.7	8.3	8.3
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	10.00	9.24	8.93	9.05

- 학교급별로 주당 사교육 시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사교육 시간은 지난 해에 비해 다소 증가한 반면, 중학생의 경우는 2014년 9.71시간으로 지난 해보다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2011년~2014년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 변화 추이_학교급

(단위 : %, 시간)

구분	초				중				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례수	1,679	1,315	1,530	1,501	1,666	1,285	2,065	1,945	1,010	804	1,365	1,546
5시간 미만	35.7	37.2	39.9	36.6	25.7	29.2	30.4	30.6	40.2	39.3	39.5	33.6
5-10시간 미만	21.6	23.7	23.9	24.2	23.8	21.5	22.3	21.2	34.0	35.4	31.8	33.0
10-15시간 미만	22.1	20.5	18.0	20.8	18.5	21.6	23.4	24.6	14.7	15.4	16.4	19.2
15-20시간 미만	10.3	10.3	10.1	10.1	13.0	13.7	14.3	14.0	5.3	4.8	5.7	7.7
20시간 이상	10.3	8.2	8.1	8.3	19.1	14.0	9.5	9.6	5.8	5.0	6.7	6.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시간)	9.51	8.86	8.59	8.9	12.02	10.76	9.92	9.71	7.49	7.44	7.81	8.36

D. 스마트폰 및 게임 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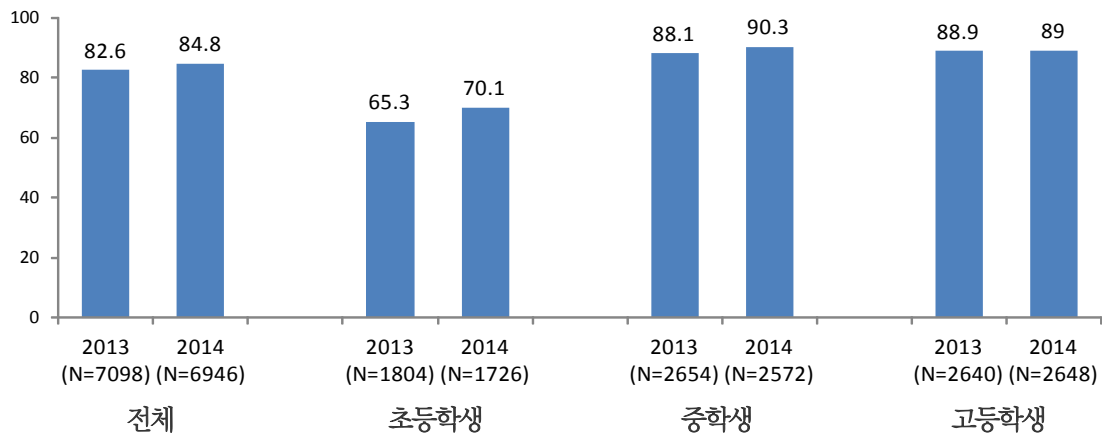
1. 스마트폰 이용실태

1) 스마트폰 보유율 변화 추이 (2013년~2014년)

-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4.8%로서 지난해보다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스마트폰 보유율의 증가세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지난 해 65.3%에서 올해 70.1%로 증가폭이 가장 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도 각각 0.8%, 0.1%의 미세한 증가세를 보여준다.

〈그림 4-5〉 2013년~2014년 스마트폰 사용률 변화 추이

(단위 : %)



2) 하루 평균 스마트폰 평균 이용 횟수 10)

- 우리나라 초중고생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횟수는 평균 12.6회이며, 절반이 넘는 58.4%가 10회 미만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이용 횟수에 있어서는 그리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41회 이상 사용하는 고이용 집단도 6.7%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교급별 스마트폰 이용 횟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약 8회, 중학생 약 12회, 고등학생 약 15회 수준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스마트폰의 이용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1명은 하루 평균 41회 이상을 이용하는 고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 성적 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 빈도에서는 성적이 낮은 하위집단으로 갈수록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며(약 17회), 41회 이상 고이용자 비율도 하위집단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0) 2014년도 신규문항

〈표 4-24〉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횟수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사례수	5,535	1,183	2,182	2,170	2,842	2,693	1,067	2,258	1,690
10회 미만	58.4	73.6	58.3	50.1	56.7	60.1	68.9	61.9	47.8
10-20회 이하	28.7	20.3	28.5	33.6	29.8	27.6	23.8	27.4	33.1
21-40회 이하	6.2	3.4	7.2	6.7	6.3	6.1	3.0	5.3	8.9
41회 이상	6.7	2.7	6.0	9.6	7.2	6.2	4.3	5.5	1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회)	12.57	7.95	12.37	15.32	13.08	12.02	9.14	11.19	16.58

3)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¹¹⁾

〈표 4-25〉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사례수	5,726	1,198	2,261	2,267	2,919	2,807	1,096	2,296	1,769
1시간 이하	29.9	48.2	20.4	29.6	32.4	27.2	43.2	31.7	19.9
1시간~2시간	26.4	25.2	26.9	26.5	29.7	22.9	29.0	28.0	23.0
2시간~3시간	18.0	11.1	19.9	19.8	18.0	18.1	14.1	17.7	20.9
3시간~4시간	9.0	5.7	10.9	8.8	8.1	9.9	5.2	9.0	11.6
4시간 이상	16.7	9.9	21.9	15.2	11.7	21.9	8.4	13.7	2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시간)	2.71	1.86	3.08	2.78	2.40	3.03	1.94	2.47	3.42

-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71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학생들의 1/3에 해당하는 30% 정도는 1시간 이하로 이용시간이 그리 많지 않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10명에 2명 정도에 해당하는 17%는 하루 중 4시간 이상을 스마트폰 이용에 할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집단의 이용시간이 하루 평균 3.08시간으로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에 비해 많았다. 중학생의 경우 4시간 이상의 고이용자 비율도 초등학생 9.9%, 고등학생 15.2%에 비해 높은 21.9%를 차지하고 있다.

11) 2014년도 신규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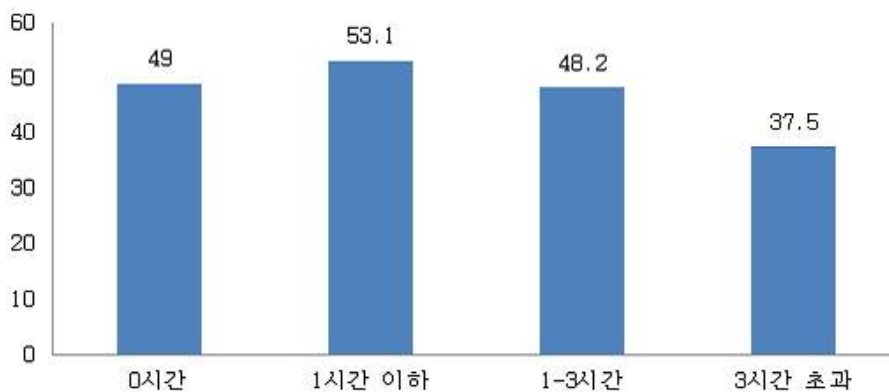
-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은 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학생 3.03시간, 남학생 2.4시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비율도 11.7%인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21.9%로 높게 나타났다.
-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성적수준의 관계에서는 성적이 낮은 하위집단으로 갈수록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물론 4시간 이상의 고이용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주관적 행복

-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평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질문에 대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1시간 이하일 때 53.1%로 가장 높았으며,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면 이 비율이 37.5%로 떨어졌다.

〈그림 4-6〉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주관적 행복 _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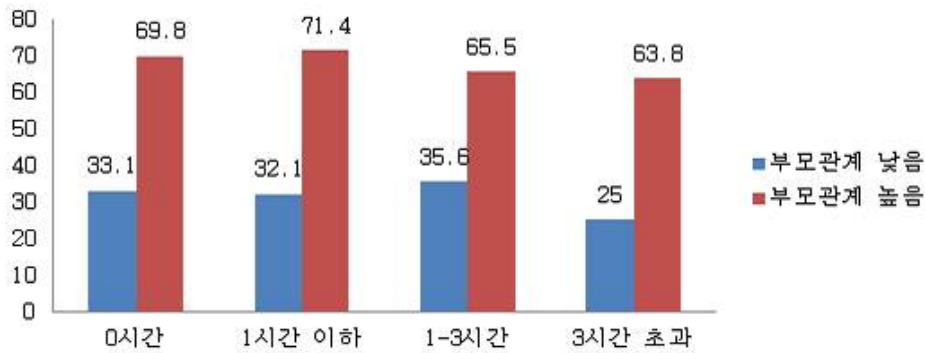
(단위 : %)



- 중위수를 기준으로 부모와의 관계 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해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관계 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관계없이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에서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면 이 차이가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은 집단은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관계없이 60% 이상이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느꼈다.

〈그림 4-7〉 부모관계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과 주관적 행복 _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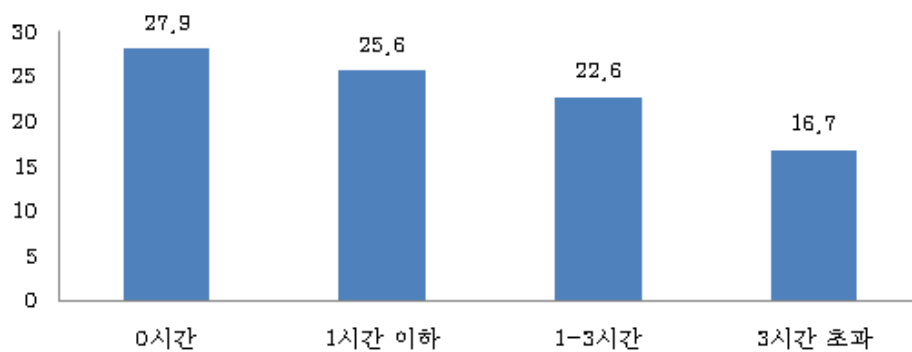
(단위 : %)



- 다음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중학생의 비율은 초등학생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2배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가장 높은 수준(27.9%)으로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한편,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면 이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16.7%)으로 떨어졌다.

〈그림 4-8〉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주관적 행복 _ 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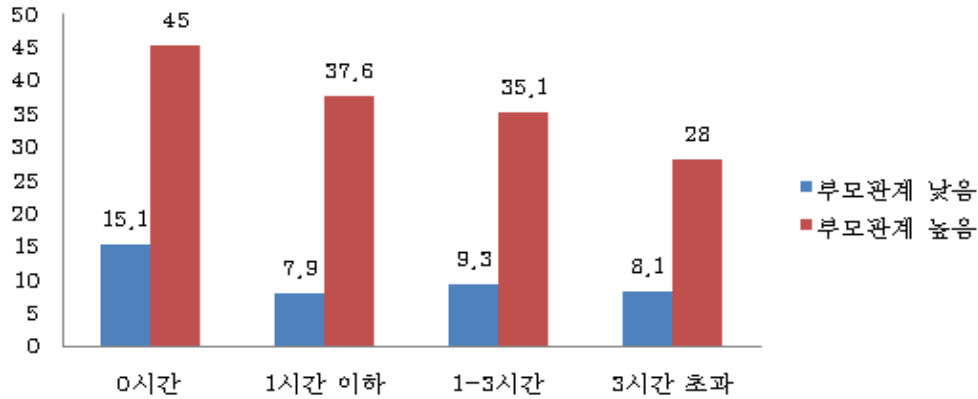
(단위 : %)



- 부모와의 관계 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해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중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에서 전반적으로 약 34배의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집단 간 차이가 초등학생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은 집단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도 이 비율이 약 2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4-9〉 부모관계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과 주관적 행복 _ 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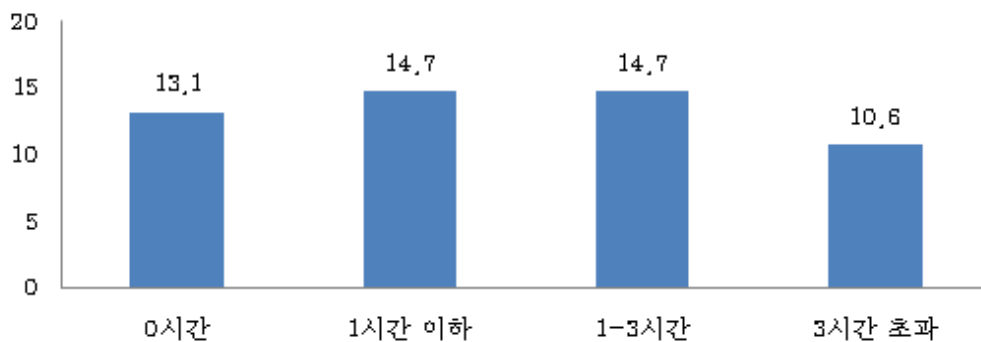
(단위 : %)



- 다음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중학생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한 특징을 보였다. 또한, 이 비율은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스마트폰 비이용자층에서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13.1%였으며,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하루 3시간을 초과할 때는 이 비율이 10.6% 였다.

〈그림 4-10〉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주관적 행복 _ 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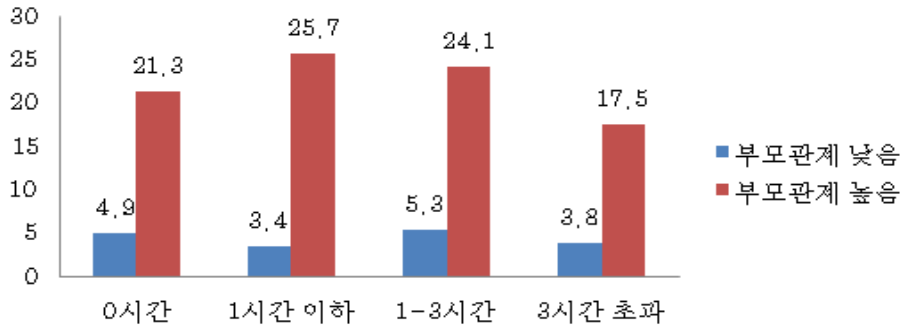
(단위 : %)



- 부모와의 관계 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해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관계없이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에서 약 4.6배의 차이를 보였다. 즉 이 차이가 중학생 집단과 비교해 더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1시간 이하인 집단에서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부모와의 관계 수준에 따라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은 집단은 전반적으로 약 20% 이상이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부모관계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과 주관적 행복 _ 고등학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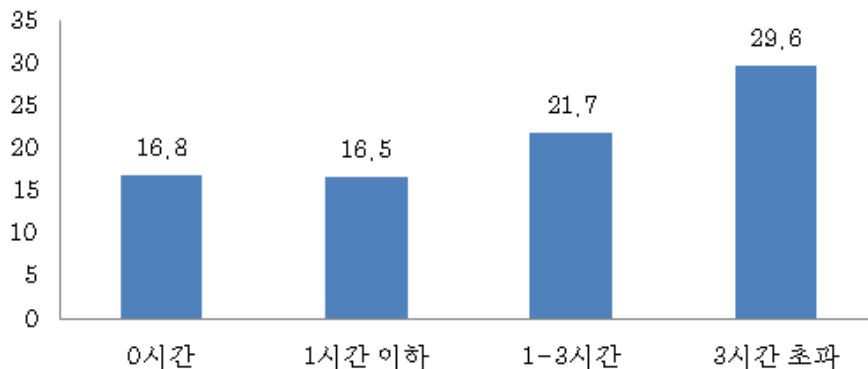


5)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가출충동 경험

- 가출충동을 경험한 비율이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1시간 이하인 집단에서 가출충동을 경험한 비율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집단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 이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림 4-12〉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가출충동 경험 _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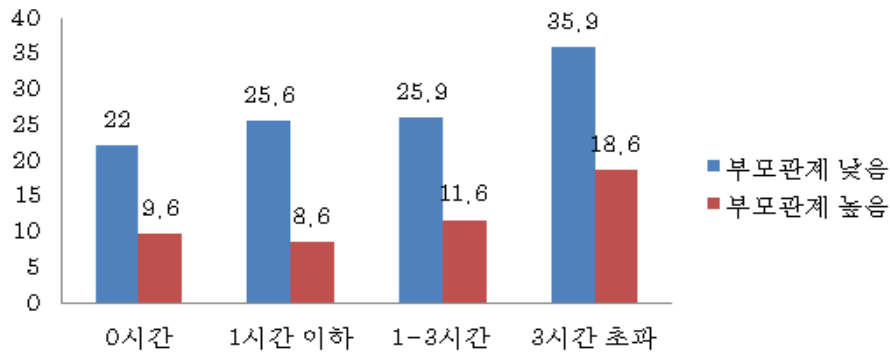
(단위 : %)



- 부모와의 관계 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해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가출충동 경험 비율은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2-3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하루 3시간을 초과할 때 두 집단 모두에서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은 집단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3시간 이하일 경우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4-13〉 부모관계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과 가출충동 _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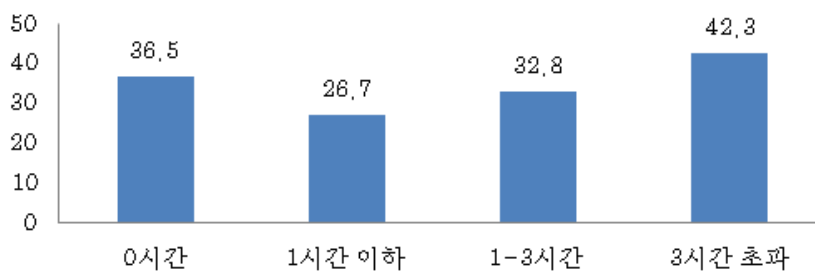
(단위 : %)



- 다음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 보았다. 흥미롭게도, 스마트폰을 3시간 이하로 사용하는 집단의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충동 경험비율은 스마트폰을 1시간 이하로 사용할 때 26.7%로 가장 낮았으며, 스마트폰을 3시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42.3%로 가장 높았다.

〈그림 4-14〉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가출충동 경험 _ 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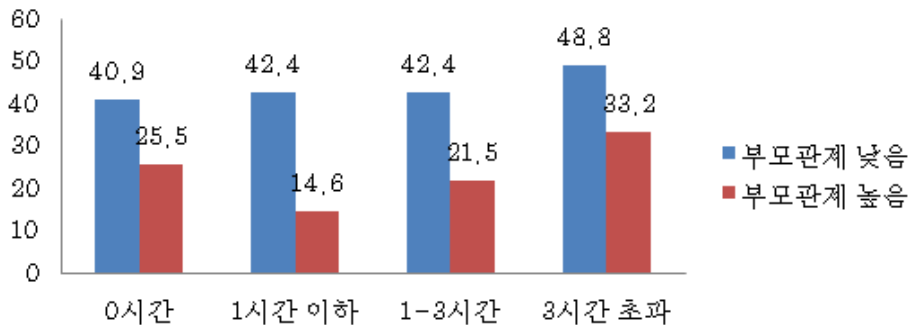
(단위 : %)



- 부모와의 관계 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해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가출충동 경험 비율 차이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1시간 이하일 때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의 가출충동 경험 비율은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집단의 가출충동 경험 비율은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1시간 이하일 때와 3시간 초과할 때 2배 이상 큰 폭으로 차이가 났다.

〈그림 4-15〉 부모관계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과 가출충동 _ 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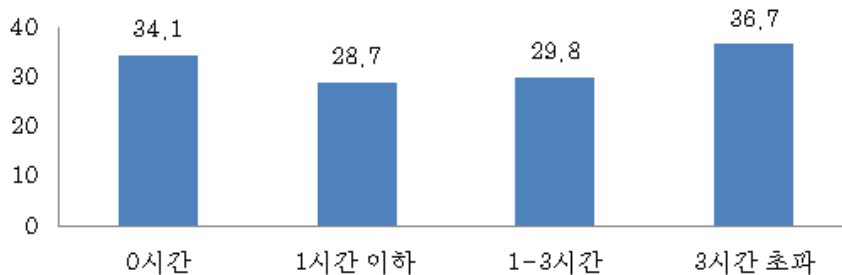
(단위 : %)



- 다음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가출충동 경험 비율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하루 3시간 이하 사용하는 집단의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으며, 스마트폰을 3시간 넘게 사용하는 집단의 가출충동 경험 비율도 36.7%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집단(34.1%)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4-16〉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가출충동 경험 _ 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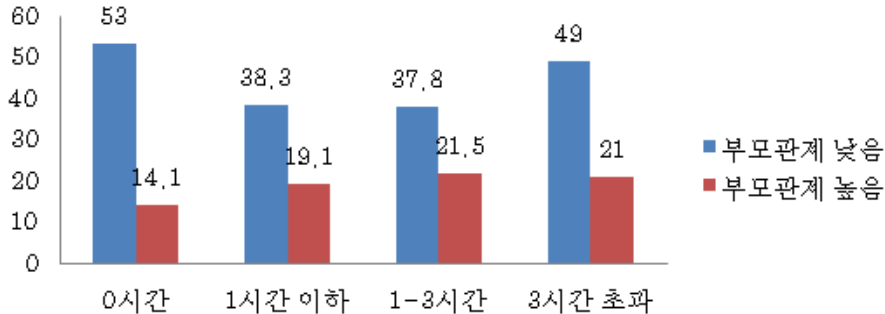
(단위 : %)



- 고등학생도 부모와의 관계 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해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가출충동 경험 비율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가출충동 경험 비율은 스마트폰 비이용자층에서 3배 이상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났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은 집단에서는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한편,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집단의 경우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스마트폰을 3시간 넘게 사용했을 때 크게 높아졌다.

〈그림 4-17〉 부모관계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과 가출충동 _ 고등학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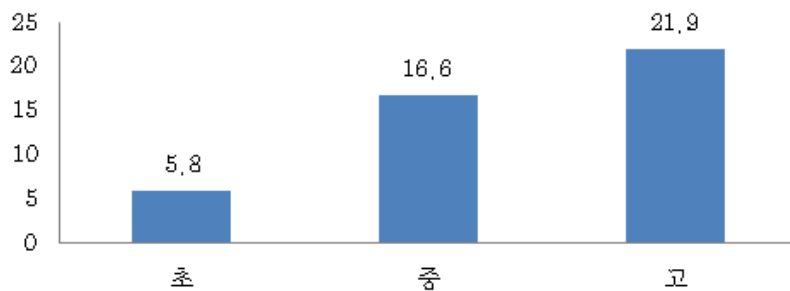


6) 스마트폰 이용과 일상생활 12)

-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이 초중고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를 측정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문항은 크게 4개 범주(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서는 각 범주를 대표하는 문항을 사용했다. 즉,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가족이나 친구와 있는 것보다 더 즐겁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 노력해 보았지만 실패한다’ 이다.
-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5.8%로 가장 낮은 한편, 고등학생은 21.9%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생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학교성적 하락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8〉 “스마트폰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_ 학교급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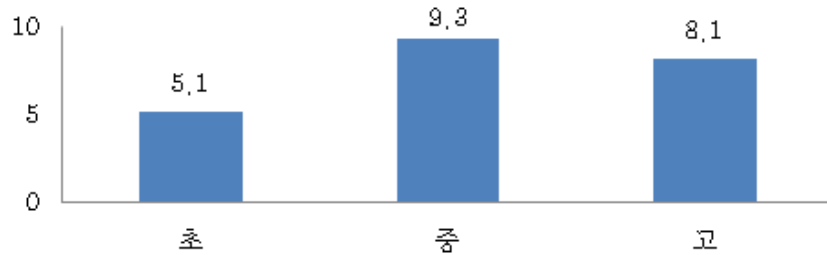


-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가족이나 친구와 있는 것보다 더 즐겁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이 9.3%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생은 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2) 2014년도 신규문항

〈그림 4-19〉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가족이나 친구와 있는 것보다 더 즐겁다” _ 학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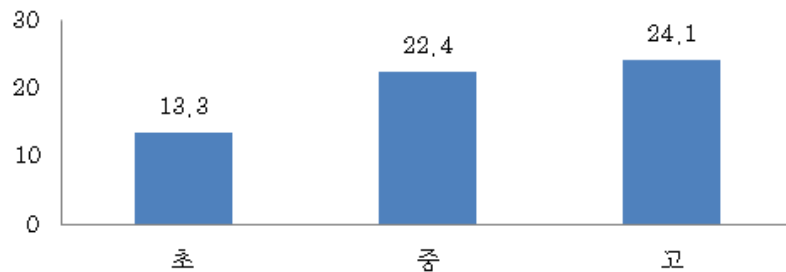
(단위 : %)



-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 노력해 보았지만 실패한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22.4%, 24.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한편, 초등학생은 13.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4-20〉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 노력해 보았지만 실패한다” _ 학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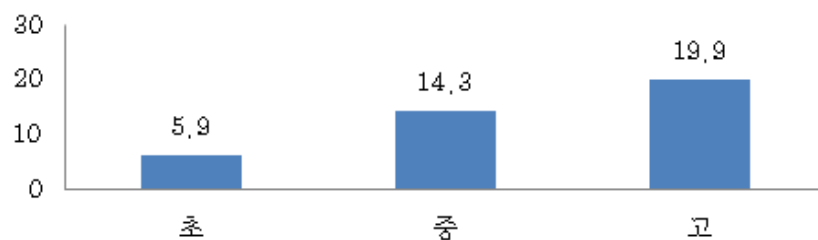
(단위 : %)



-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전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문항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약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즉, 고등학생층에서 이 비율이 19.9%로 가장 높게 나타난 한편, 초등학생은 5.9% 수준이었다.

〈그림 4-21〉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전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_ 학교급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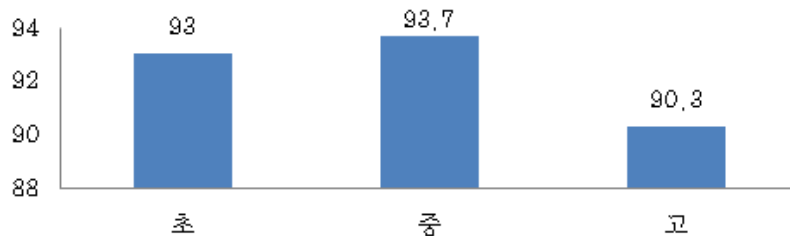
2. 게임 이용 실태 13)

1) 게임 이용률

- 스마트폰과 더불어 게임은 어린아·청소년들의 생활습관 및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률을 확인한 결과, 교급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이, 전체 초·중·고생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92.3%(10명 중 9명 이상)가 컴퓨터, 비디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게임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2〉 게임이용 경험 _ 학교급별

(단위 : %)



2) 최근 6개월간 게임 빈도

- 최근 6개월간 얼마나 자주 게임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초·중·고생의 1/4에 해당하는 25.7%가 '1주일에 1-2회' 게임을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매일 게임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4.2% 수준이다. 한편, 게임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4.1%를 나타냈다.
- 학교급별로는 전반적으로 중학생들의 게임 빈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1/3에 해당하는 29.3%는 '1주일에 1-2회' 정도 게임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20.9%는 거의 게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는 매일 게임을 하는 비율이 17.1%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엔 '매일 한다'는 응답률이 11.1%, '거의 하지 않는다'가 30.6%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게임 빈도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남학생의 경우 17.6%가 매일 게임을 하고,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2.3%에 불과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엔 매일 한다는 비율은 9.9% 수준이고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8.5%에 달해, 전반적으로 남학생들의 게임 빈도가 여학생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 성적 수준과 게임 빈도 사이에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발견된다. 성적이 높을수록 게임을 적게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성적 상위집단의 경우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9.8%, '매일 한다'가 10.4%인데 비해 성적 하위집단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0.3%, '매일 한다'는 18.1%로 두 집단 간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13) 2014년도 신규 문항

〈표 4-26〉 최근 6개월간 게임 빈도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사례수	6,388	1,595	2,402	2,391	3,508	2,880	1,303	2,621	1,859
매일	14.2	14.3	17.1	11.1	17.6	9.9	10.4	13.1	18.1
1주일에 5-6회	14.6	14.7	16.5	12.6	17.4	11.2	10.6	14.9	16.9
1주일에 3-4회	21.5	20.8	23.4	20	24.7	17.5	20.5	22.3	22
1주일에 1-2회	25.7	29.3	23.4	25.7	28	22.9	28.6	26.4	22.7
거의 하지 않았다	24.1	20.9	19.7	30.6	12.3	38.5	29.8	23.3	2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최근 6개월간 하루 평균 게임 시간

- 최근 6개월간 하루 평균 게임 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초중고생의 42.2%는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4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비율은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에 따른 게임 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는 절반인 50.4%가 ‘1시간 미만’이고, ‘4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게임에 할애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은 편은 아니다. 반면, 고등학생은 ‘2-3시간 미만’ 17.6%, ‘3-4시간 미만’ 10.0%, ‘4시간 이상’ 7.3%라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게임에 의존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최근 6개월간 하루 평균 게임 시간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사례수	6,375	1,596	2,397	2,382	3,503	2,872	1,301	2,620	1,850
1시간 미만	42.2	50.4	37.6	41.3	24.9	63.2	54.1	43.9	31.4
1-2시간 미만	26.8	26.9	29.9	23.7	32.8	19.5	26.7	26.3	27.8
2-3시간 미만	16	10.7	18	17.6	22	8.8	10.3	15.9	20
3-4시간 미만	8.5	6	8.8	10	11.6	4.7	4.7	7.9	12.1
4시간 이상	6.4	6	5.8	7.3	8.6	3.7	4.1	6	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성별에 따른 게임 시간에서는 매우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남학생들의 게임 시간이 여학생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해보면 여학생은 63.2%, 남학생은 24.9%로 나타났고, ‘4시간 이상’의 고이용자 비율에 있어서도 여학생은 4.7%인데 비해 남학생은 11.6%의 응답률을 보임으로써 큰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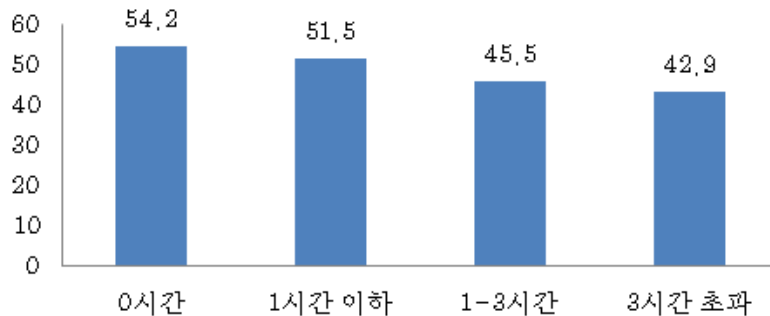
- 성적 수준별로는 성적이 낮은 하위집단으로 갈수록 ‘1시간 미만’ 비율은 낮아지고 ‘4시간 이상’의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성적과 장시간의 게임 의존이 관련성을 짐작하게 한다.

4) 게임이용 시간과 주관적 행복

- 게임이용 시간대별로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게임이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이 비율은 게임경험이 없는 집단이 54.2%로 가장 높았으며, 게임이용 시간이 하루 3시간을 초과할 때 42.9%로 감소했다.

〈그림 4-23〉 게임이용 시간과 주관적 행복 _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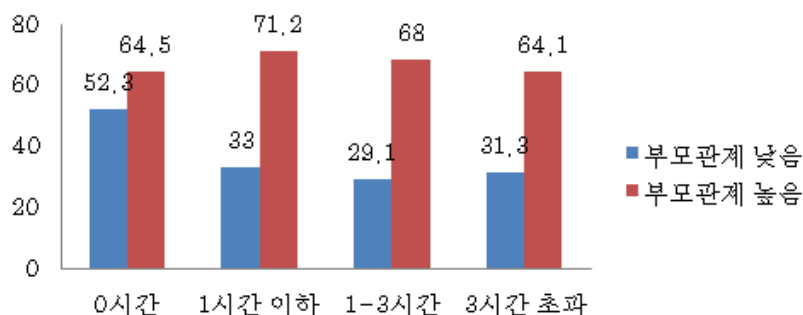
(단위 : %)



- 부모와의 관계 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해 게임이용 시간에 따라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은 집단의 경우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60%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 비율이 게임이용 시간에 따라 큰 폭으로 변하지 않았다. 한편,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집단은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집단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 약 20%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 4-24〉 부모관계에 따른 게임이용과 주관적 행복 _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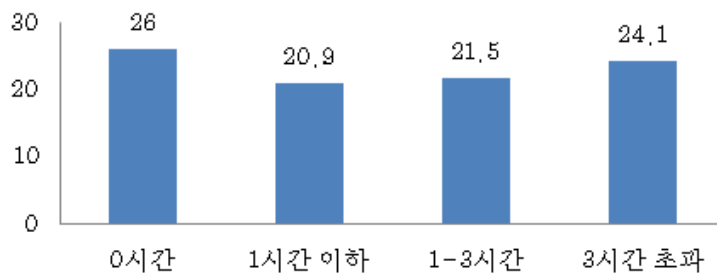
(단위 : %)



- 다음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게임이용 시간에 따라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중학생의 경우 게임이용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게임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층의 경우에는 게임이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게임 이용시간이 하루 1시간 이하일 때 이 비율이 20.9%로 가장 낮았고, 3시간을 넘을 때 24.1%로 가장 높았다.

〈그림 4-25〉 게임이용 시간과 주관적 행복 _ 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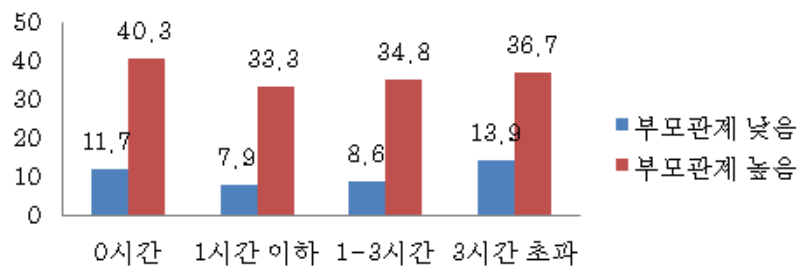
(단위 : %)



-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관계 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해 게임이용 시간에 따라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두 집단의 차이가 초등학교와 비교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즉, 두 집단이 게임이용 시간대별로 약 2.5배~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은 집단에서는 이 비율이 전반적으로 약 30% 중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한편, 부모와의 관계 질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14%를 넘지 못했다.

〈그림 4-26〉 부모관계에 따른 게임이용과 주관적 행복 _ 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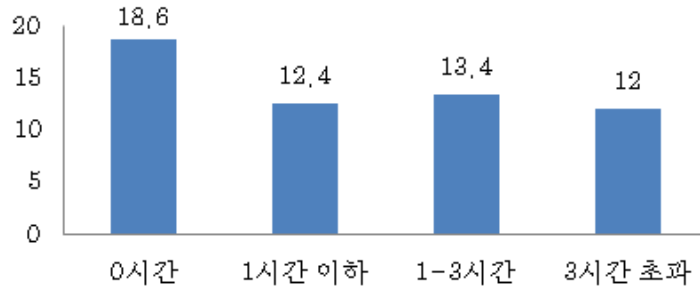
(단위 : %)



- 다음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이용 시간에 따라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게임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이 비율이 18.6%로 가장 높았으며, 게임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층 사이에서는 이 비율이 이용시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4-27〉 게임이용 시간과 주관적 행복 _ 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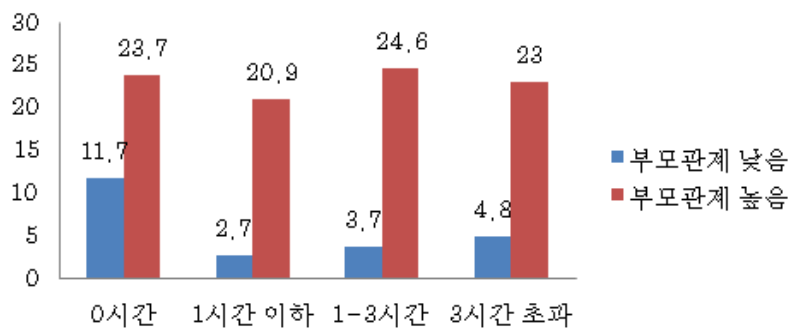
(단위 : %)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관계 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해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게임이용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게임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두 집단의 차이가 약 2배 수준이었으나, 게임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층에서는 이 비율의 차이가 약 5배~7배로 확대되었다.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은 집단에서는 이 비율이 20% 이상 수준을 나타냈으며, 게임이용 시간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부모와의 관계 질이 낮은 집단에서는 게임 이용자의 경우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5%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그림 4-28〉 부모관계에 따른 게임이용과 주관적 행복 _ 고등학생

(단위 : %)



5) 최근 6개월간 주 게임 장소

- 최근 6개월간 주로 게임을 했던 장소를 질문한 결과, 전체 초중고생의 79.8%가 ‘집에서’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PC방인 것으로 나타났다(15.1%).
- 학교급별 게임장소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는 집에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92.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중학생의 경우는 집이 82.4%, PC방이 14.4%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집이 68.9%, PC방이 24.1%로 나타남으로써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집에서보다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8〉 최근 6개월간 주 게임 장소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사례수	6,377	1,599	2,398	2,380	3,504	2,872	1,301	2,622	1,852
집	79.8	92	82.4	68.9	71.8	89.4	84.7	82.1	73.8
학교	1.7	0.7	1	3.1	1.5	2	1.8	1.3	1.6
PC방	15.1	2.9	14.4	24.1	24.3	3.9	10	13	21.8
친구 집	0.7	1.6	0.5	0.2	0.5	0.8	0.9	0.9	0.3
기타	2.7	2.9	1.6	3.6	1.8	3.8	2.6	2.7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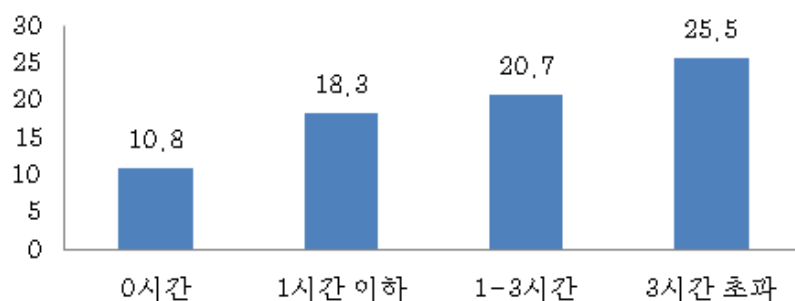
- 성별로는 남녀학생 모두 집에서 게임을 하는 비율이 각각 71.8%와 89.4%로 가장 높았으나, PC방에서의 게임 비율은 남학생 24.3%, 여학생 3.9%로서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다.
- 게임 장소의 성적 수준별 차이에서는 성적이 낮은 하위집단으로 갈수록 PC방에서의 게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집단 10.0%, 중간집단 13.0%, 하위집단 21.8%).

6) 게임이용과 가출충동

- 게임이용 시간에 따라 가출충동을 경험한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학생은 게임 이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가출충동을 경험하는 비율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게임경험이 없는 학생층에서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10.8%로 가장 낮은 한편 게임 이용시간이 하루 3시간을 넘을 때 이 비율은 25.5%로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게임이용 경험이 없는 집단과 게임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은 가출충동 경험 비율에서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 4-29〉 게임이용 시간과 가출충동 _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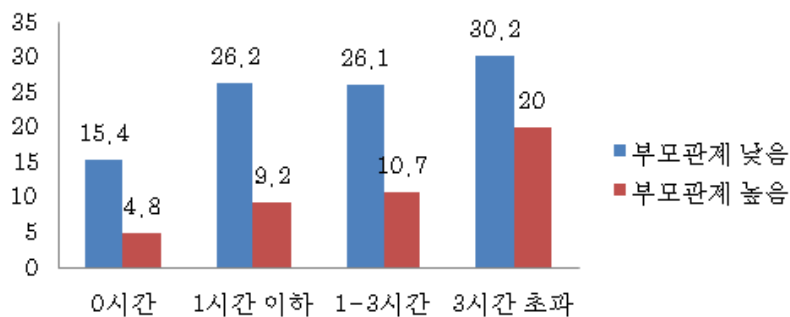
(단위 : %)



- 부모와의 관계 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해 게임이용 시간에 따라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은 집단에서는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게임이용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만 이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와의 관계 질이 낮은 집단에서는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게임이용 시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4-30〉 부모관계에 따른 게임이용 시간과 가출충동 _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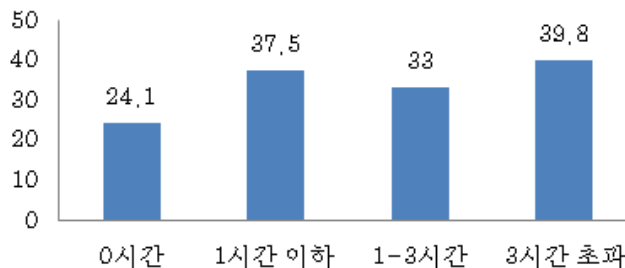
(단위 : %)



- 중학생을 대상으로 게임이용 시간에 따라 가출충동 경험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중학생의 가출충동 경험 비율은 초등학생과 비교해 게임이용 시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게임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층에서 가출충동 경험 비율은 24.1%로 가장 낮았으며, 게임이용 시간이 하루 3시간을 넘을 때 이 비율이 39.8%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게임 이용자층에서는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게임이용 시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4-31〉 게임이용 시간과 가출충동 _ 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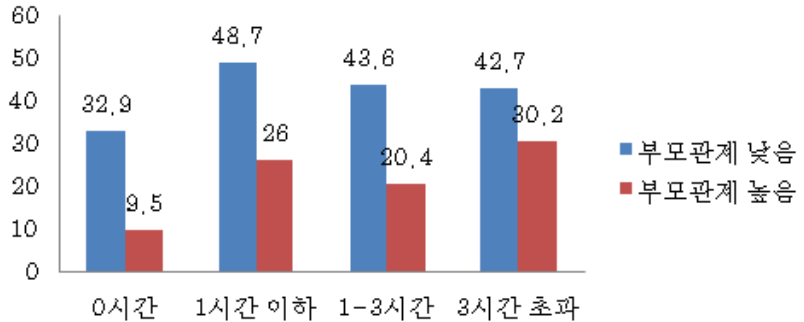
(단위 : %)



-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관계 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해 게임이용 시간에 따라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은 집단에서는 게임이용 시간이 하루 3시간을 넘을 때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30.2%로 가장 높았으며, 게임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층에서는 이 비율이 9.5% 수준이었다. 한편, 부모와의 관계 질이 낮은 집단에서는 게임이용자의 경우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40%를 넘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4-32〉 부모관계에 따른 게임이용 시간과 가출충동 _ 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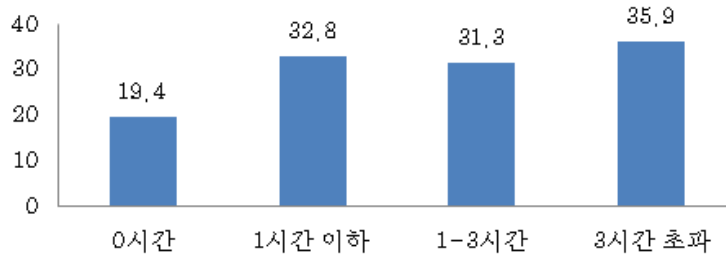
(단위 : %)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이용 시간에 따른 가출충동 경험 변화를 살펴보았다. 고등학생의 가출충동 경험 비율은 중학생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즉 게임 비이용자층에서 19.4%로 가장 낮았으며, 게임 이용 시간이 3시간을 넘을 때 35.9%로 가장 높았다. 한편, 게임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가출충동 경험 비율은 게임이용 시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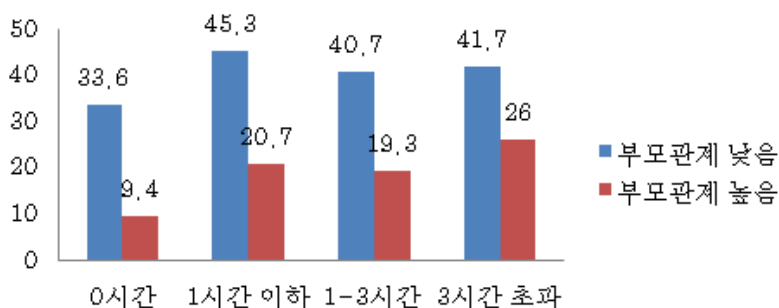
〈그림 4-33〉 게임이용 시간과 가출충동 _ 고등학생

(단위 : %)



〈그림 4-34〉 부모관계에 따른 게임이용 시간과 가출충동 _ 고등학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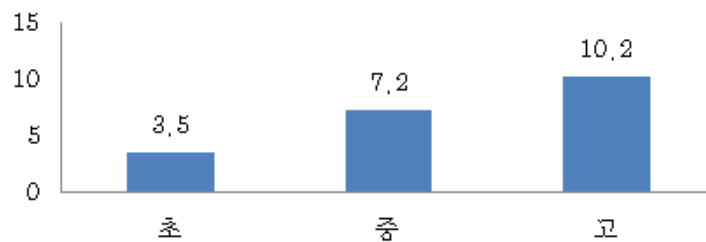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관계 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해 게임이용 시간에 따라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두 집단의 가출충동 경험 비율은 전반적으로 약 1.5배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은 집단에서는 게임이용 경험이 없을 때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9.4%로 가장 낮았으며, 게임이용 시간이 하루 3시간을 초과할 때 이 비율은 26%로 가장 높았다. 한편, 부모와의 관계 질이 낮은 집단에서는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게임 이용자의 경우 이용시간에 관계 없이 40%를 넘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7) 게임이용과 일상생활

- 게임중독을 측정하는 문항을 이용해 게임이용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게임중독 문항은 크게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내성, 금단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각 범주를 대표하는 문항을 이용했다. 즉, ‘나는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지만 게임을 계속 하게 된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생각하며 보낸다’, ‘나는 게임을 할수록 점점 오랜 시간 해야 직성이 풀린다’, ‘나는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이다.
- 먼저,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지만 게임을 계속 하게 된다’는 문항에 대해 ‘자주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급이 올라갈수록 게임이용이 공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비율은 고등학생이 10.2%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은 7.2% 수준이었고, 초등학생은 3.5%로 가장 낮았다.

〈그림 4-35〉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지만 게임을 계속하게 된다” _ 학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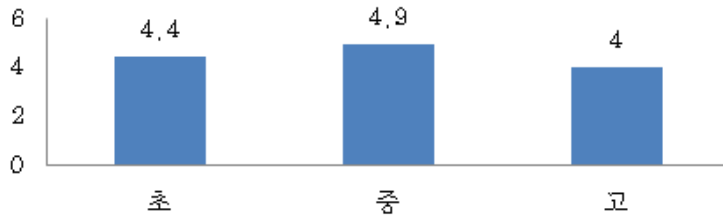
(단위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생각하며 보낸다’는 문항에 대해 ‘자주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 비율은 교급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중학생이 4.9%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4.4%, 고등학생은 4% 수준이었다.

〈그림 4-36〉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에 생각하며 보낸다” _ 학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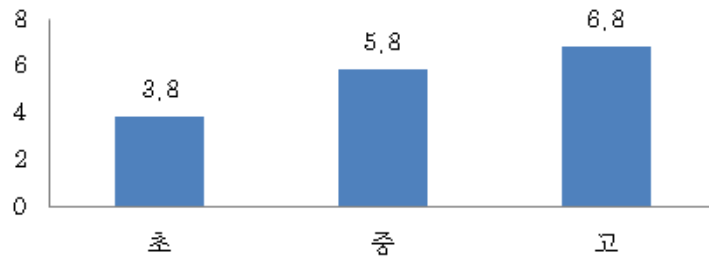
(단위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게임을 할수록 점점 오랜 시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자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 비율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가 3.8%로 가장 낮았고, 중학생 5.8%, 고등학생은 6.8%로 가장 높았다.

〈그림 4-37〉 “게임을 할수록 점점 오랜 시간 해야 직성이 풀린다” _ 학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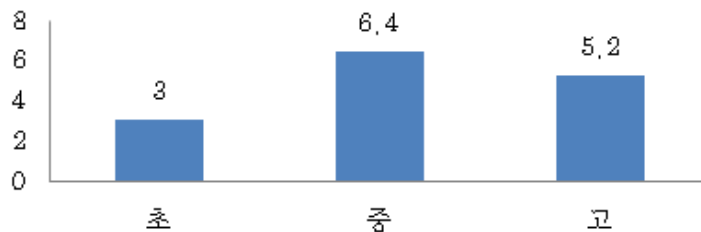
(단위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는 문항에 대해 ‘자주’ 또는 ‘항상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비율은 초등학교가 3.0%로 가장 낮았으며, 고등학교 5.2% 수준, 중학생이 6.4%로 가장 높았다.

〈그림 4-38〉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_ 학교급별

(단위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E. 용돈 및 소비 실태 ¹⁴⁾

1. 월 평균 용돈 규모 (중고생 대상)

- 중고생의 월 평균 용돈은 약 4만 6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절반 가량인 51.3%는 한달에 '3만원 이하', 6.2%는 '10만원 이상'의 용돈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 남학생들의 평균 용돈 액수(4만 7천원 정도)가 여학생들(4만 4천원 정도)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미 있는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 성적 수준별로는 흥미롭게도 성적이 낮은 하위집단의 용돈 규모가 4만 9천원 정도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월 평균 용돈 규모

(단위 : %, 원)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사례수	4,839	2,407	2,432	2,604	2,234	824	1,639	1,807
3만원 이하	51.3	69.5	33.3	50.5	52.2	56.9	53.3	46.5
3만-5만원 이하	25.9	20.1	31.6	24.2	27.8	24.8	26.2	26.9
5만-10만원 이하	16.6	8.3	24.8	18.3	14.6	12.8	15.5	19.1
10만원 이상	6.2	2.2	10.3	7.0	5.4	5.4	5.0	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원)	46,242	30,427	61,894	47,654	44,596	44,106	42,032	49,680

2. 월 평균 지출 규모

- 중고생들의 한달 평균 지출 규모를 조사한 결과, 전체 중고생 평균 한달에 약 4만 5천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지출 규모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은 월 평균 약 2만 5천원을, 고등학생은 월 평균 약 6만 4천원의 용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지출 규모가 중학생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평균 한달에 약 4만 7천원, 여학생 평균 한달에 약 4만 3천원 정도의 용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적 수준에 따른 용돈 지출 규모에서도 차이가 발견되는데, 성적이 낮은 집단의 용돈 지출 규모가 상위, 중간 두 집단보다 1만원 이상 많은 월 평균 5만 1천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14) 2014년도 신규문항

〈표 4-30〉 월 평균 지출 규모

(단위 : %, 원)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사례수	4,872	2,399	2,473	2,609	2,262	835	1,665	1,829
3만원 이하	59.9	79.0	41.5	58.2	62.0	67.8	63.2	53.1
3만-5만원 이하	19.5	13.4	25.4	19.3	19.7	16.5	19.1	21.8
5만-10만원 이하	14.3	6.0	22.2	15.2	13.2	11.1	12.8	17.3
10만원 이상	6.3	1.6	10.8	7.3	5.2	4.6	4.9	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원)	45,258	25,464	64,459	47,394	42,794	38,755	39,684	51,239

3. 지난 1년간 수입명품, 유명 브랜드 구매 지출 규모

-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들, 특히 중고생을 중심으로 운동화, 가방, 의류 등 일상 소비재 구매에 있어서 고가의 수입명품 및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한 선호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점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수입명품이나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데 어느 정도의 지출을 했는지를 조사하였다. 지출 규모를 살펴본 결과, 전체 초중고생들의 명품 및 유명 브랜드 구매 비용은 연 평균 약 2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해당하는 49.9%는 ‘10만원 이하’ 수준이나, ‘50만원 이상’ 지출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13.2%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연 평균 약 26만 7천원 수준, 고등학생 연 평균 약 29만 5천원 수준으로 지출 규모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흥미로운 것은 여학생(연 평균 약 26만 9천원) 보다 남학생들의 지출 규모(연 평균 약 29만 1천원)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소비재에 대한 관심과 지출에 여성들이 보다 민감하다고 여겨지는 점을 고려하면 특이할만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표 4-31〉 지난 1년간 수입명품 및 유명브랜드 구매 지출 규모

(단위 : %, 원)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가정경제 수준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상	중	하
사례수	4,090	2,034	2,056	2,218	1,871	716	1,440	1,555	544	3,120	373
10만원 이하	49.9	52.0	47.8	50.5	49.2	48.4	47.8	51.2	40.6	49.9	64.4
10만~30만원 이하	23.4	22.8	24.0	21.7	25.5	22.7	24.2	23.4	19.6	24.8	18.0
30만~50만원 이하	13.5	12.8	14.2	12.9	14.2	14.3	15.6	11.7	14.8	13.6	10.7
50만원 이상	13.2	12.3	14.0	14.9	11.1	14.5	12.4	13.7	24.9	11.7	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원)	281,112	267,133	294,941	291,366	268,957	312,691	282,064	266,142	510,754	252,418	173,320

- 성적 수준별 차이도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연 평균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성적 상위집단 약 31만 3천원, 중간집단 28만 2천원, 하위집단 26만 6천원으로 조사되어, 성적 수준과 명품 소비 규모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앞에서 제시된 평소 용돈 규모와 지출 규모에 대한 조사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즉 평소 용돈액수와 소비에서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 규모를 나타낸 것과 달리 고가의 명품 및 유명 브랜드 소비에서는 반대로 지출 규모가 작게 나타난 것이다.
- 가정경제 수준에 따른 명품 및 유명 브랜드 지출 규모에서는 다른 어떤 변수들에서보다 두드러진 차이가 발견된다. 즉 가정경제 수준이 높은 상위집단이 연 평균 51만원 정도, 중간집단이 25만원 정도, 하위집단이 17만원 정도로 조사되어, 경제적 형편이 여유로울수록 고가 브랜드 및 수입 명품 소비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상위집단의 지출 금액은 중간집단의 약 2배, 하위집단의 약 3배에 이르는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F.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미래 전망

1. 기대학력

1) 기대학력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최종학력에 대한 기대를 확인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6.5%가 4년제 대학을 선택했고, 대학원 이상의 최종학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응답도 16.3%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전체 72.8%가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최종 기대학력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가정경제 수준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상	중	하
사례수	6,873	1,695	2,551	2,628	3,642	3,231	1,425	2,803	1,991	1,200	5,011	532
초등학교 졸업	0.9	3.6	0.0	.00	1.2	0.6	0.6	1.5	0.6	2.1	0.6	0.7
중학교 졸업	1.7	2.1	3.1	0.0	1.9	1.4	0.6	1.6	2.1	2.0	1.6	1.8
고등학교 졸업	10.1	9.1	10.6	10.1	11.1	8.9	3.6	7.6	17.3	6.6	9.2	26.6
2년제 대학교졸업	14.5	21.7	12.7	11.7	14.3	14.8	7.8	14.8	19.3	13	14.5	18.5
4년제 대학교졸업	56.5	38.7	59	65.6	53.8	59.6	57.2	58.8	52.2	49.7	59.7	42
대학원 이상	16.3	24.8	14.6	12.6	17.7	14.8	30.2	15.8	8.7	26.5	14.5	1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년제 + 대학원이상	72.8	63.5	73.6	78.2	71.5	74.4	87.4	74.6	60.9	76.2	74.2	52.4

- 학교급별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4년제 대학졸업에 대한 기대 비율이 높아지며,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이상'을 기대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초등학생 63.5%, 중학생 73.6%, 고등학생 79.2% 등으로 나타나, 고학력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기대가 청소년들에게도 폭넓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졸업'에 대한 기대 비율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높게, '대학원 이상'에 대한 기대 비율은 반대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 성적 수준별로도 차이가 발견되는데, 우선 '4년제 대학졸업'에 대한 기대 비율은 성적과 무관하게 5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반면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에 대한 기대는 성적 상위집단과 하위 집단 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상위집단 30.2%, 하위집단 8.7%). 성적 하위집단의 기대 학력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현저히 높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상위집단 3.6%, 중간집단 7.6%, 하위집단 17.3%). 하위집단의 경우 최종학력에 대한 기대에 자신들의 현재의 성적 수준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기대학력 변화 추이 (2011년~2014년)

- 2011년부터 2014까지의 최종 기대학력에 대한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4년제 대학졸업 기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과의 비교에서는 1.9%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년제 대학졸업'과 '대학원 이상'을 합한 고학력 기대 비율도 2013년에 비해 0.8% 포인트 증가해, 근소한 폭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고학력 지향 추세가 초·중·고생들에게도 여전히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33〉 2011년~2014년 최종 기대학력 변화 추이 _ 전체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증감
사례수	6,347	4,905	7,070	6,873	
초졸	2.1	2.4	1.6	0.9	▽ 0.7
중졸	2.2	2.5	1.3	1.7	▲ 1.4
고졸	7.7	10.0	10.3	10.1	▽ 0.2
2년제 대졸	16.0	15.1	14.8	14.5	▽ 0.3
4년제 대졸	50.7	49.9	54.6	56.5	▲ 1.9
대학원 이상	21.3	20.1	17.4	16.3	▽ 1.1
계	100.0	100.0	100.0	100	-
4년제 대졸 + 대학원 이상	72.0	70.0	72.0	72.8	▲ 0.8

2. 장래 희망직업

1) 희망직업

- 미래 희망직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3에 해당하는 67.9%가 ‘사무/전문관리직’이라고 응답했으며, ‘판매/서비스영업직’이 17.0%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은 편이나, 성별 및 성적 수준에 따라서는 몇 가지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녀학생 모두 약 68%가 ‘사무/전문관리직’을 희망하는 것은 공통적이나, ‘판매/서비스영업직’의 희망 비율에서는 여학생이, ‘생산/기술/노무직’의 희망비율에서는 남학생이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 다음으로 성적 수준에 따라서는 성적이 높은 집단으로 갈수록 ‘사무/전문관리직’ 희망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성적이 낮은 집단일수록 ‘판매/서비스영업직’ 및 ‘생산/기술/노무직’ 등 기타 직업에 대한 희망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성적 수준에 대한 인식이 미래의 직업 선택에 대한 기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34〉 장래 희망직업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사례수	6,867	1,696	2,542	2,628	3,637	3,230	1,424	2,801	1,988
사무/전문관리직	67.9	66.1	69.1	67.9	67.8	67.9	76.4	69.5	60
판매/서비스영업직	17	18.1	17.3	16.1	13	21.6	12.8	16.5	20.6
생산/기술/노무직 _노동자	6.6	5.2	5	9	10.6	2	5.1	5.6	9
자영업 _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5.1	5.6	5.2	4.7	5.9	4.2	3.9	4.7	6.6
주부	1.4	3.5	1.1	0.3	0	3	0.9	2.1	0.8
농림어업	0.4	0.5	0.4	0.4	0.4	0.4	0.2	0.4	0.6
무직/기타	1.6	1	1.9	1.6	2.2	0.9	0.6	1.3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2011~2014 희망직업 변화 추이

- 청소년들의 희망직업에 대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변화는 ‘사무/전문관리직’ 희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전년 대비 ▲11.2% 포인트).

〈표 4-35〉 2011년~2014년 장래 희망직업 변화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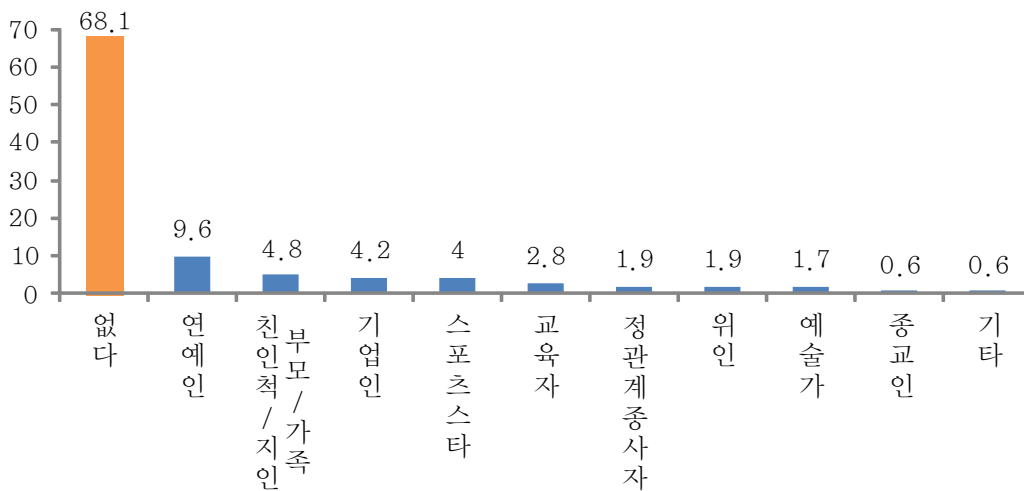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증감
사례수	6358	4902	7053	6867	
사무/전문/관리직	53.2	54.5	56.7	67.9	▲ 11.2
판매/서비스/영업직	18	18	15.3	17	▲ 1.7
생산/기술/노무직_노동자	5.3	5.6	6.0	6.6	▲ 0.6
농림어업	0.3	0.5	0.3	0.4	▲ 0.1
자영업_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6.2	5.4	6.2	5.1	▽ 1.1
주부	2.4	2.7	1.5	1.4	▽ 0.1
무직/기타	14.6	13.3	14.1	1.6	▽ 12.5
계	100.0	100.0	100.0	100.0	-

3. 멘토 및 역할모델 15)

- 초중고생들에게 역할모델이나 멘토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1%가 ‘없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이 꼽은 역할모델 및 멘토 1순위는 ‘연예인(9.6%)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기업인(4.2%), ‘스포츠스타(4.0%) 등으로 조사되었다. 멘토나 역할모델을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유명인들이 대부분이고, ‘부모/가족친인척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역할모델을 찾은 경우는 4.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9〉 멘토 및 역할모델

(단위 : %, N=6946)



15) 2013년도 신규 문항



2014년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제5장 학교폭력 및 일탈행동

A. 학교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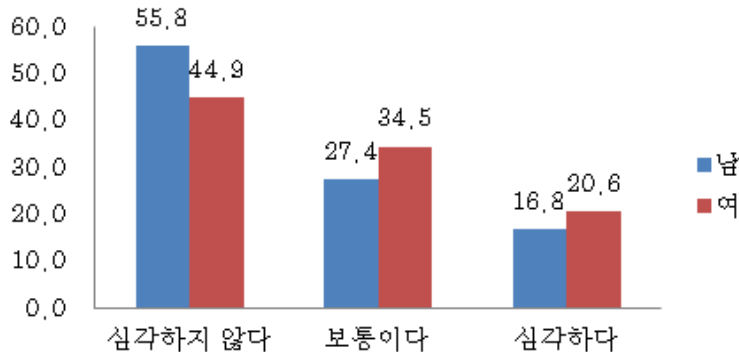
1. 학교폭력 인식 수준

1)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

-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50.7%, 보통이다는 30.7%, 심각하다는 응답은 18.6%로 나타났다. 즉, 다섯명 중 1명꼴로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_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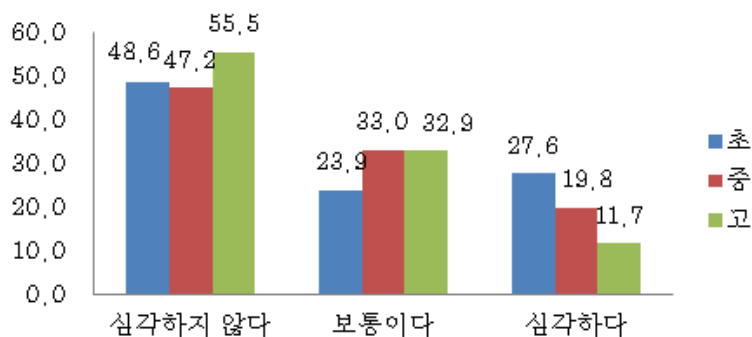
(단위 : %)



-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에 심각하다는 응답이 16.8%이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20.6%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심각하다는 응답이 27.6%이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19.8%,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1.7%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5-2〉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_학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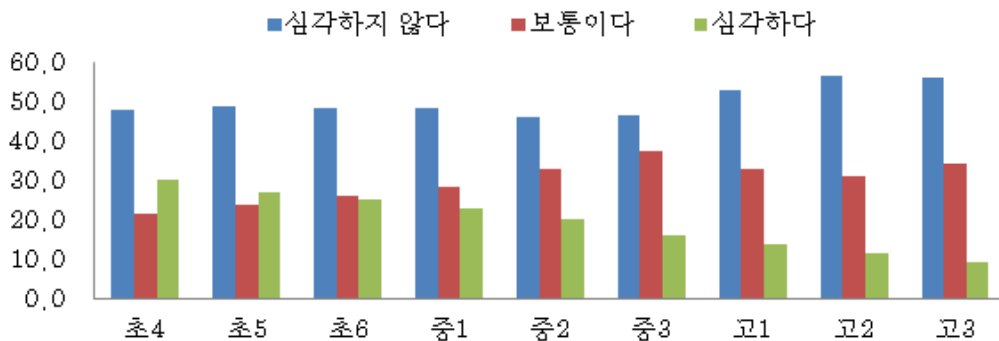
(단위 : %)



-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및 고등학생 모든 학교급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5-3〉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_학년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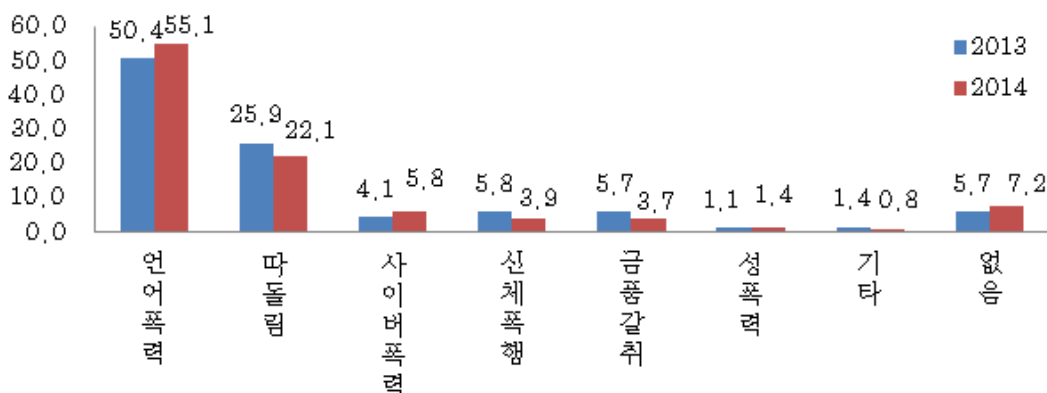


2)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

-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따돌림(22.1%), 사이버폭력(5.8%), 신체폭력(3.9%), 금품갈취(3.7%), 성폭력(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신체폭력’, ‘금품갈취’ 등 물리적 폭력보다 ‘언어폭력’, ‘따돌림’ 등 정신적·심리적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언어폭력은 증가(50.4% → 55.1%)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따돌림은 감소(25.9% → 22.1%)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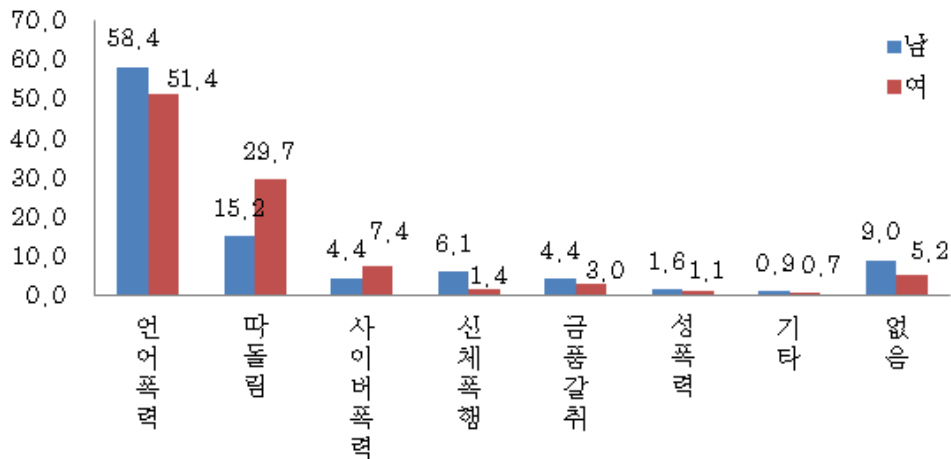
(단위 : %)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언어폭력’과 ‘신체폭행’이 여성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남성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림 5-5〉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_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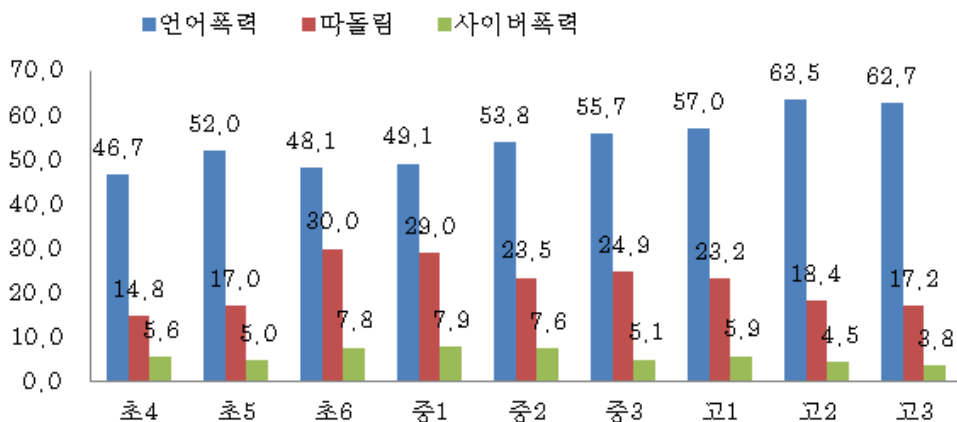
(단위 : %)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언어폭력’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보다 고등학생의 경우에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따돌림’과 ‘신체폭행’은 중학생의 경우 다른 학교급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사이버폭력’은 고등학생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금품갈취’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학년별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 초등학생의 경우 ‘언어폭력’은 5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그림 5-6〉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_학년별

(단위 : %)



- 중학생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언어폭력’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따돌림’은 1학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언어폭력’은 학년이 올라감과 함께 더욱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반면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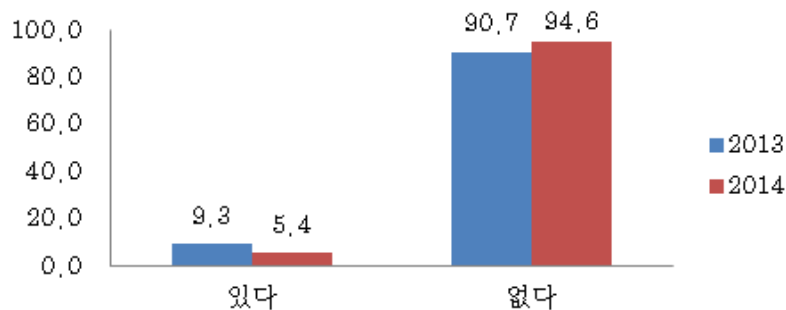
2. 학교폭력 피해 실태

1)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4%로 나타났다.

〈그림 5-7〉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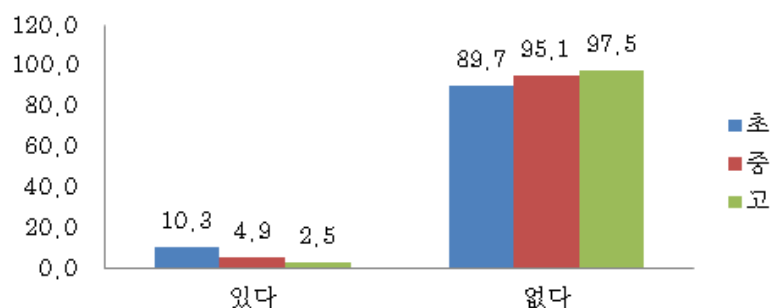
(단위 : %)



-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감소(9.3% → 5.4%)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이나 학교급을 비교하여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5-8〉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_학교급별

(단위 : %)



-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에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3%, 여학생 5.5%로 비슷한 수준의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0.3%이고, 중학생은 4.9%, 그리고 고등학생은 2.5%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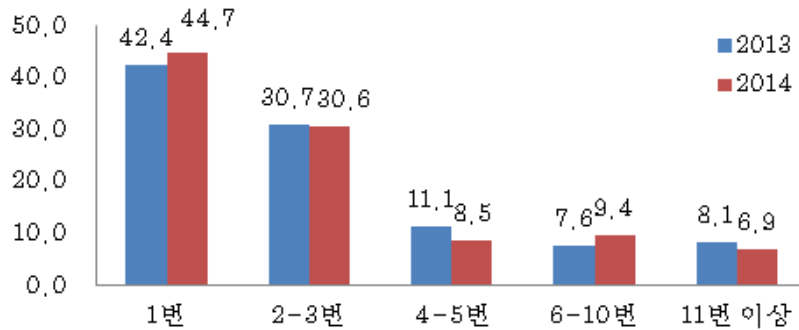
2) 최근 1년간 당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횟수

① 학교폭력 피해 경험 횟수

- 최근 1년간 당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횟수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 횟수가 1번이라는 응답은 44.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3번(30.6%), 4~5번(8.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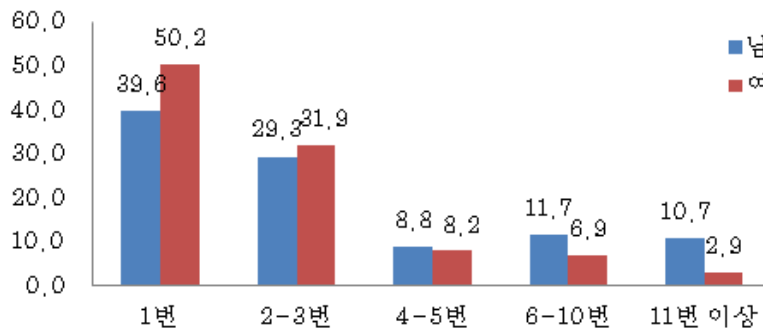
<그림 5-9>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횟수

(단위 : %)



<그림 5-10>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횟수_성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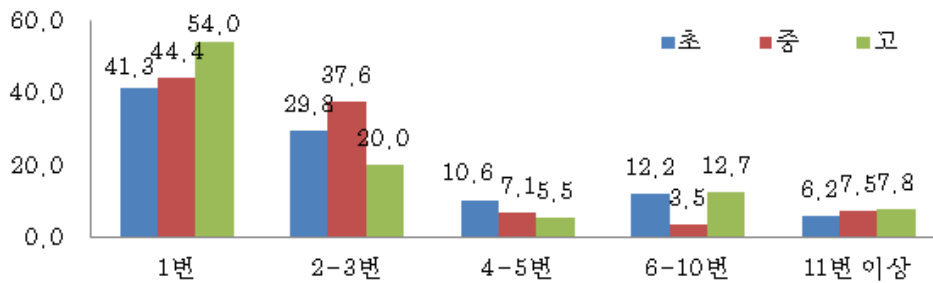
-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 횟수가 1번이라는 응답이 39.6%로 여학생(50.2%)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6~10번과 11번 이상이라는 응답은 각각 11.7%, 10.7%로 여학생(각

각 6.9%와 2.9%)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평균 횟수가 남학생인 경우에 4.56번으로 여학생(2.63번)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인 경우에 학교폭력의 피해가 더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학교급별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횟수가 1번이라는 응답이 초등학교생인 경우에 41.3%, 중학생은 44.4%, 그리고 고등학교생의 경우에는 54.0%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2-3번 응답한 비율의 경우 중학생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37.6%), 4-5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초등학교생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각각 12.4%). 고등학교생의 경우 1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54%) 6-10번(12.7%), 11번 이상(7.8%)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다른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학교 폭력의 반복적 피해가 다소 양극화 되어있음을 보여주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 평균 횟수는 초등학교생의 경우에 3.76번, 중학생은 3.25번, 그리고 고등학교생은 3.97번으로 나타났다.

〈그림 5-11〉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횟수 _ 학교급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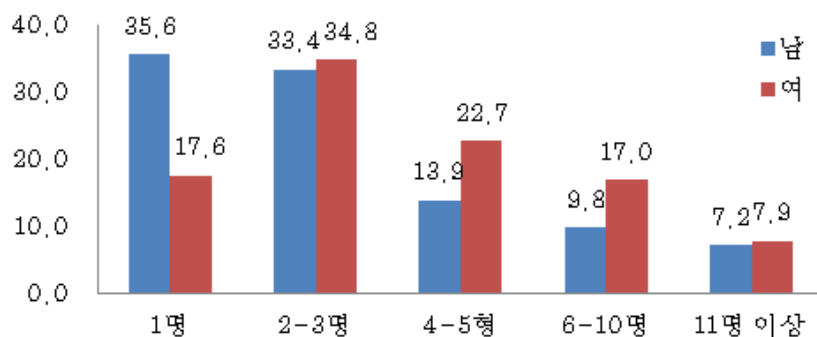


② 학교폭력 피해를 입힌 가해자 명수

-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가해자의 수를 설문한 결과 평균 4.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2〉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입힌 가해자 명수_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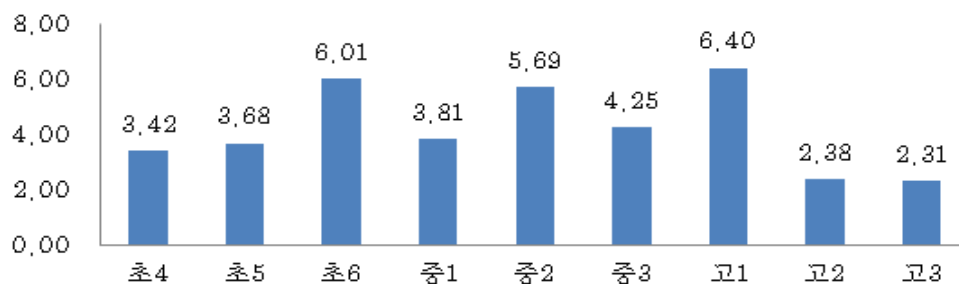
(단위 : %)



-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이 평균 4.66명으로 남성(3.95명)보다 평균 더 많은 대상에게 가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이 4.73명으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 들어서서는 각각 2.38명과 2.31명이라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5-13〉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입힌 가해자 명수_학년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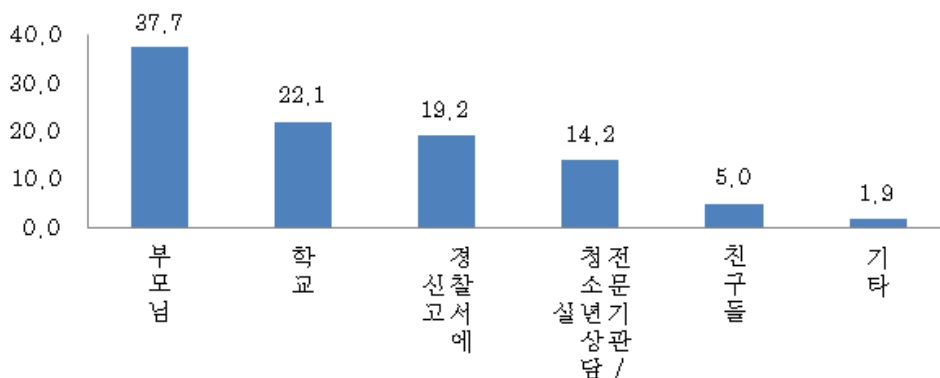


3) 학교폭력 피해 당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기관

- 학교폭력 피해 당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기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님이라는 응답이 37.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22.1%), 경찰서에 신고(19.2%), 학교폭력 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상담실(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14〉 학교폭력 피해 당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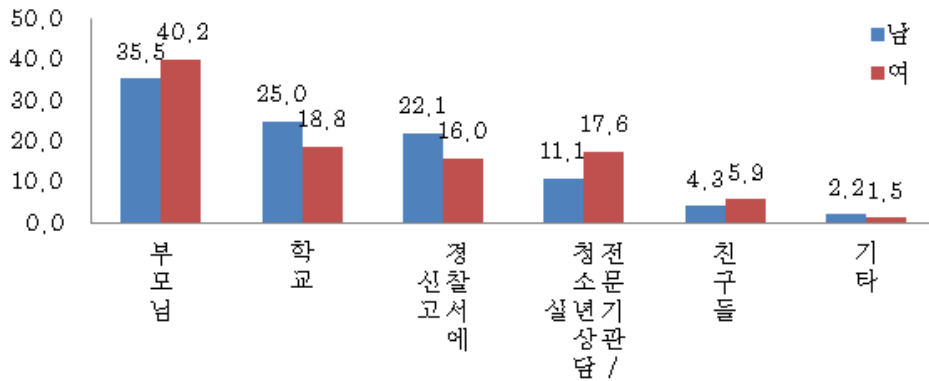
(단위 : %)



-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학교’, ‘경찰서 신고’에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 ‘부모님’, ‘학교폭력 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상담실에 신고’에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그림 5-15〉 학교폭력 피해 당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기관 _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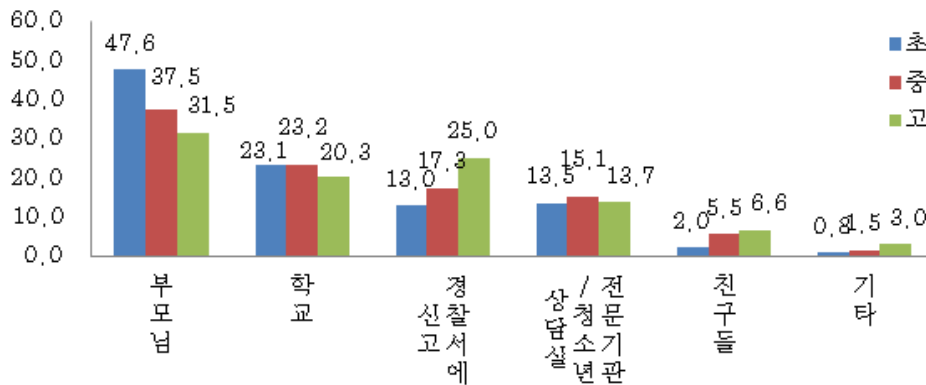
(단위 : %)



-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폭력 발생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기관으로 부모님과 학교를 선택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응답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5-16〉 학교폭력 피해 당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기관 _ 학교급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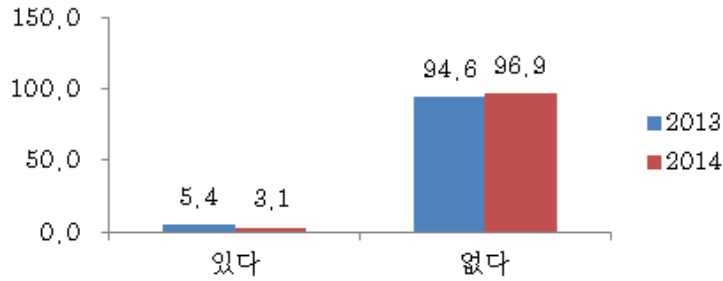
3. 학교폭력 가해 실태

1) 학교폭력 가해 경험률

-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응답 대상의 3.1%로 나타났다.
-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2013년에 비해 학교폭력 가해 경험은 감소(5.4% → 3.1%)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급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학교폭력 가해 경험은 모두 감소하였다.

〈그림 5-17〉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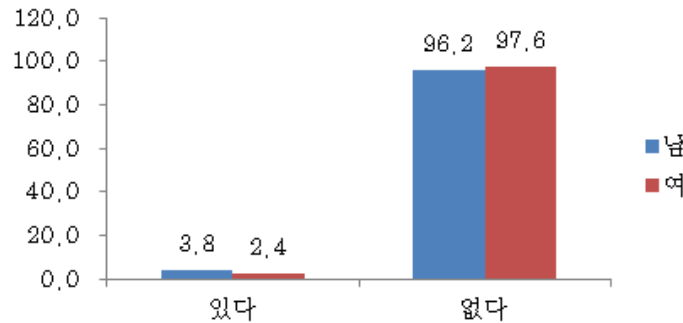
(단위 : %)



- 성별로는 남학생의 3.8%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2.4%로 남학생의 비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림 5-18〉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 _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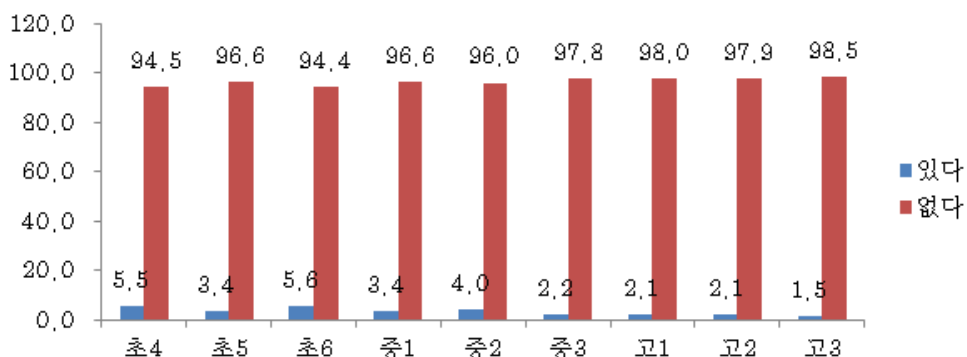
(단위 : %)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가해 경험 비율이 4.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생(3.2%), 고등학생(1.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19〉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 _ 학년별

(단위 : %)



-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4학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비율이 5.4%로 나타나고 있다. 5학년의 경우에는 3.5%로 4학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6학년의 경우에는 5.7%로 다른 학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2학년의 가해 경험비율이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1학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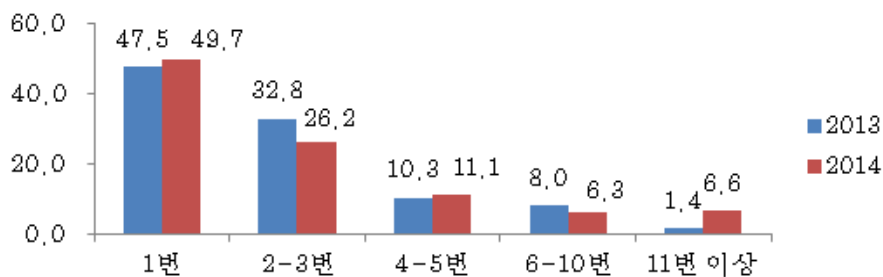
2) 최근 1년간 행한 학교폭력 가해 경험 횟수

① 학교폭력 가해 경험 횟수

-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횟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3.44번의 가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전체 평균은 2013년 2.69번에서 2014년에 3.44번으로 증가하였다. 횟수 구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2-3번’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013년에 32.8%로 2014년의 26.2%보다 많았던 반면, ‘11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013년에 1.4%로 2014년의 6.6%보다 적었다.

〈그림 5-20〉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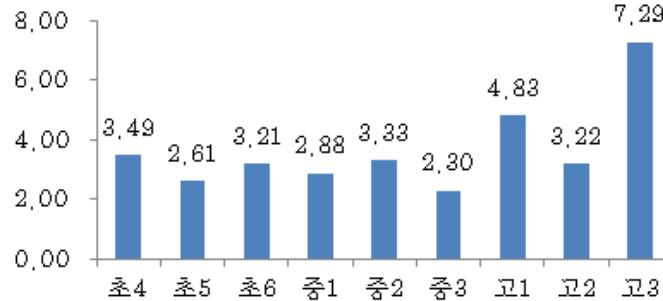
(단위 : %)



-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3.94번이고, 여학생은 2.57번으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학교 폭력 가해 경험 횟수가 더 많았다.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4.71번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생(3.18번), 중학생(2.93번)의 순이었다.
- 학년별 최근 1년간 내가 행한 학교폭력 가해 경험 횟수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4학년이 평균 3.49번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중학생의 경우 2학년이 3.33번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고등학생의 평균 가해 경험 횟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3학년이 가장 높은 횟수(7.29번)를 기록하였다. 가해 경험의 횟수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 5-21〉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횟수 _ 학년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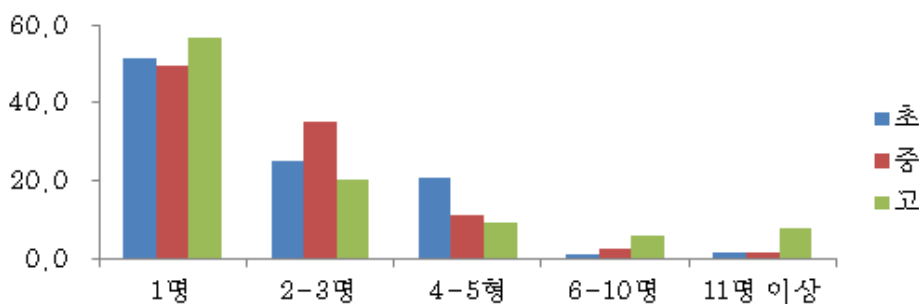


② 학교폭력 가해 대상 명수

- 최근 1년간 가해 대상 명수는 평균 2.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평균 2.93명으로 여성(2.21명)보다 평균 더 많은 대상에게 가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3.49명으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6-10명'과 '11명 이상'에 각각 5.8%, 7.9%의 응답 비율을 보여 다른 학교급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5-22〉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대상 명수 _ 학교급별

(단위 : %)



4.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특성

1) 학교폭력 경험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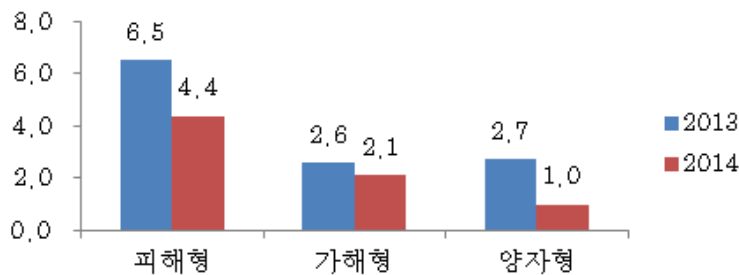
- 학교폭력 경험 유형을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 그리고 무경험형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우선 피해형은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은 없고, 피해경험만 있는 경우이다. 반면 가해형은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은

없고, 가해경험만 있는 경우이다. 양자형은 학교폭력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있는 경우이고, 무경험형은 학교폭력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없는 경우이다.

- 2014년의 응답을 살펴보면 무경험형이 9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피해형(4.4%), 가해형(2.1%), 그리고 양자형(1.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2014년에는 무경험형 비율이 증가하였으며(88.1% → 92.5%),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비율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3〉 학교폭력 경험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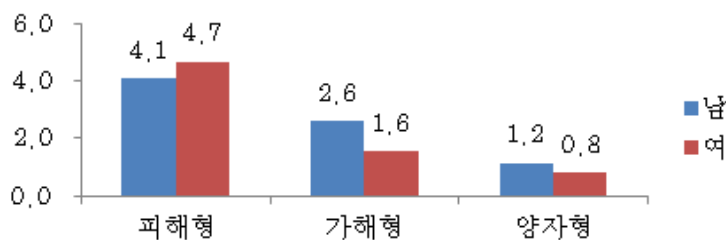
(단위 : %)



- 성별로는 여학생의 경우 피해형이 4.7%로 남학생의 경우(4.1%)보다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가해형의 경우에는 남학생이(2.6%) 여학생보다(1.6%)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형의 경우에도 남학생은 1.2%, 여학생은 0.8%로 남학생의 상대적 비율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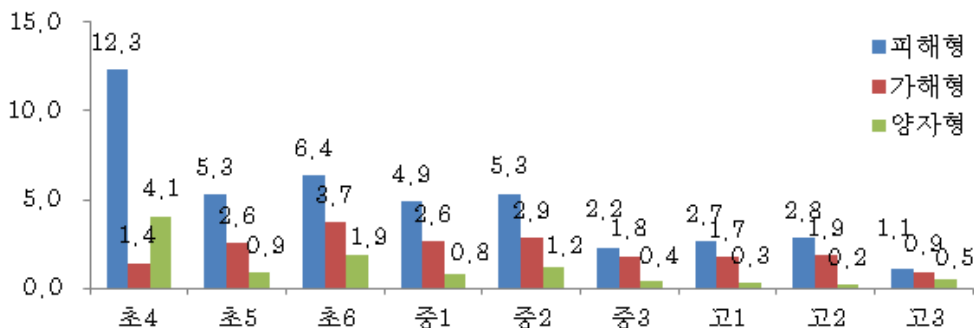
〈그림 5-24〉 학교폭력 경험별 유형 _ 성별

(단위 : %)



〈그림 5-25〉 학교폭력 경험별 유형 _ 학년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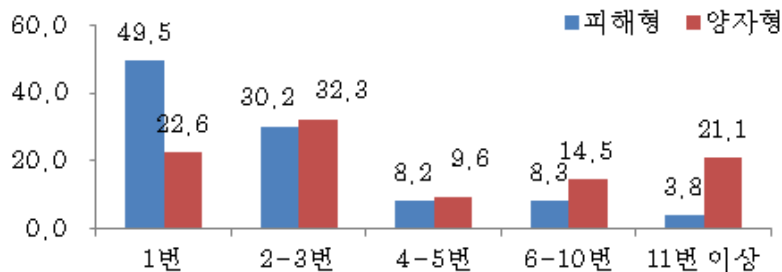
- 학교급별로는 살펴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모든 학교폭력 경험 유형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비율 크기는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 역시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의 순서가 유지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인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학교폭력 경험별 유형별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횟수

-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 피해형의 경우에 최근 1년간 2.98번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양자형의 경우에는 6.63번으로 피해형보다 더 높은 횟수를 기록하였다. 학교폭력 피해만 받는 학생들보다 피해, 가해 경험이 모두 있는 학생들의 경우 피해 행위의 횟수가 더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6〉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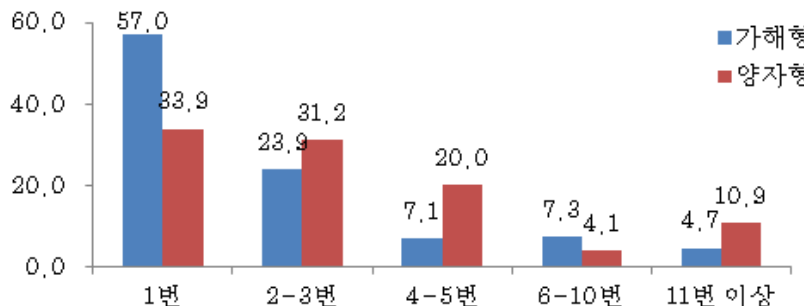
(단위 : %)



-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있는 가해형의 경우에 최근 1년간 3.00번의 학교폭력 가해 횟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양자형의 경우에는 4.39번으로 가해형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해만 하는 학생들보다 가해, 피해 경험이 모두 있는 학생들의 경우 가해 행위의 횟수가 더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7〉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횟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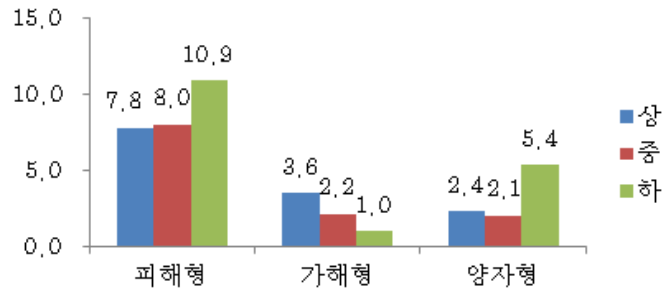


3)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경제수준

-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경제 수준이 낮아질수록 피해형과 양자형의 비율이 증가하고 가해형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8〉 가정경제수준별 학교폭력 경험 유형 _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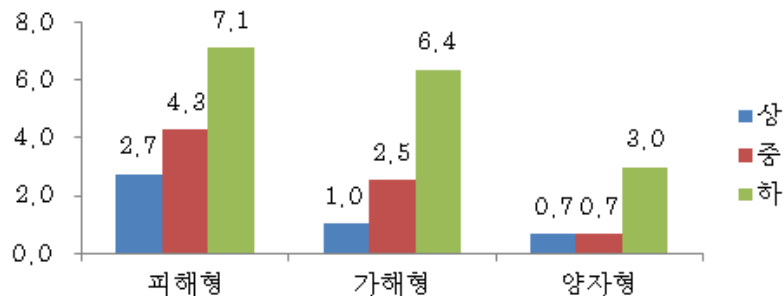
(단위 : %)



- 중학생을 살펴보면, 가정경제수준 낮아질수록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 모든 학교 폭력 경험 유형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림 5-29〉 가정경제수준별 학교폭력 경험 유형 _ 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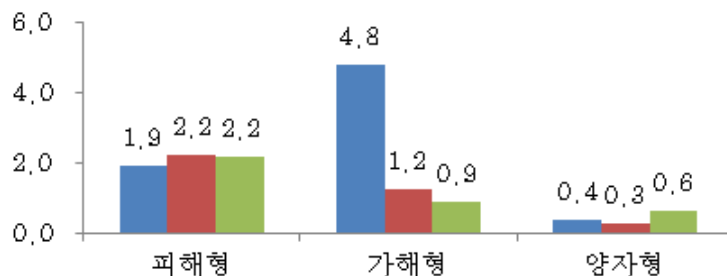
(단위 : %)



- 고등학생의 경우 가해형 비율을 살펴보면 가정경제수준이 ‘상’일 때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그림 5-30〉 가정경제수준별 학교폭력 경험 유형 _ 고등학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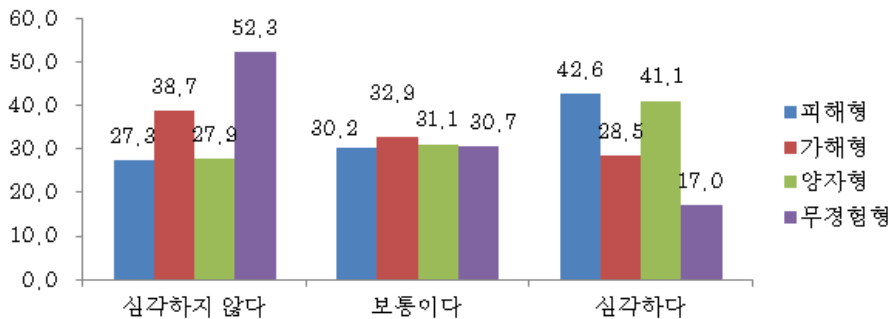


4)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수준

-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형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양자형(41.1%), 가해형(28.5%), 그리고 무경험형(17.0%)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 피해형과 양자형인 경우에 다른 유형들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5-31〉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수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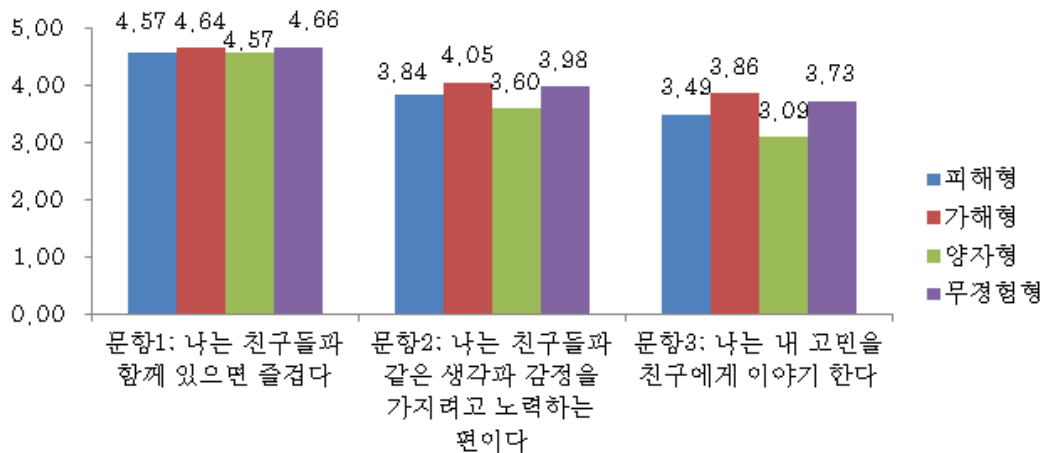


5)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구와의 관계

①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구 관계 점수

〈그림 5-32〉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친구과의 관계

(단위 : 5점척도)



-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형과 양자형의 경우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의 평균 점수가 4.57로 다른 학교폭력 경험 유형 집단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나는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내 고민을 친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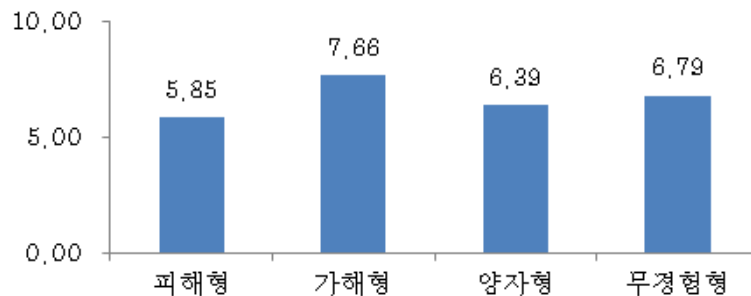
이야기한다'의 경우 양자형이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기록하였다(각각 3.60, 3.09). 가해형의 경우 모든 평균 점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나는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내 고민을 친구에게 이야기한다'의 경우에는 무경험형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각각 4.05, 3.86).

②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구의 수

- '학교친구, 학원친구, 동네친구들 중에서 평소 매우 자주 어울리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몇 명 있는지 물었을 때, 평균 6.76명의 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6-10명이라고 응답하였으며(35.8%). 아주 친한 친구가 전혀 없거나(3.0%) 1명(3.2%) 인 학생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구의 수를 살펴보면, 가해형인 경우 평균 친구수가 7.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피해형의 학생들이 가장 낮은 평균 친구 숫자를 보여주었다(5.85명).

〈그림 5-33〉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친구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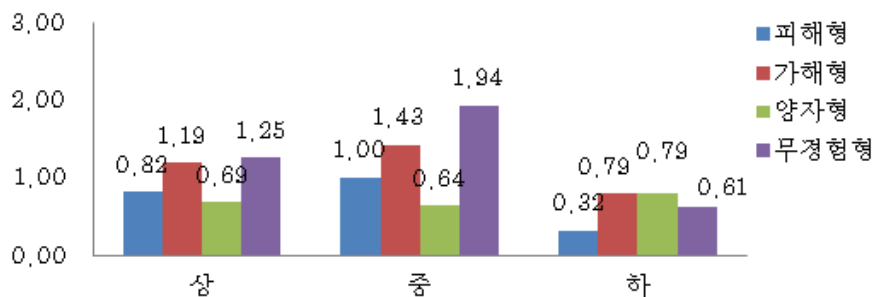
(단위 : 명)



③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친구의 유형

〈그림 5-34〉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친구의 특성 _ 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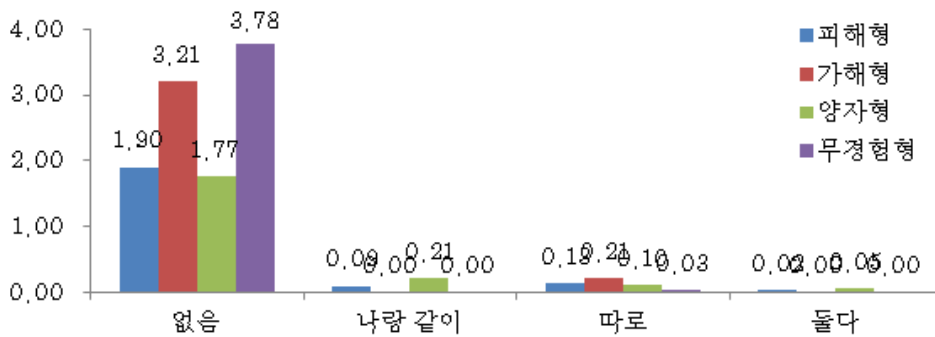
(단위 : 명)



- 아주 친한 친구 중 7명을 골라 각 친구의 성적 및 학교 폭력 경험을 기술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평균 친구 수를 살펴보면 피해형(2.15명)과 양자형(2.12)이 비교적 낮은 숫자를 보여주었으며, 가해형(3.49명)과 무경험형(3.83명)이 높은 숫자를 기록하였다.
- 친구의 성적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성적이 '상'인 친구(1.25명)와 '중'인 친구(1.94명)를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형은 무경험형보다는 적었지만 다른 두 집단보다는 많은 수의 성적 '상'인 친구(1.19명)와 '중'인 친구(1.43)를 보유하고 있었다.
- 친구의 학교폭력 경험을 살펴보면, 양자형인 경우 나와 함께 폭력을 당하거나(0.21명) 함께 폭력을 가하는(0.25명) 친구 숫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가해형의 경우, 나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친구 수는 거의 없고(0명) 따로 피해를 당하는 친구는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0.21명), 나와 함께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친구(0.51명)와 따로 행사하는 친구(0.14명) 수는 모두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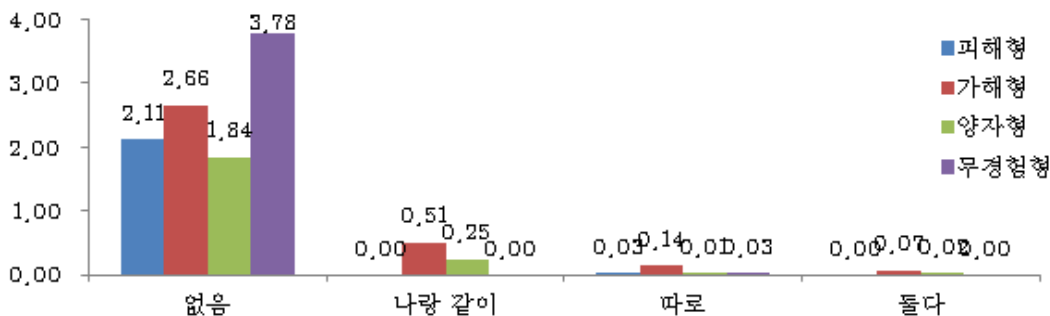
〈그림 5-35〉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친구의 특성 _ 피해의 경험

(단위 : 명)



〈그림 5-36〉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친구의 특성 _ 가해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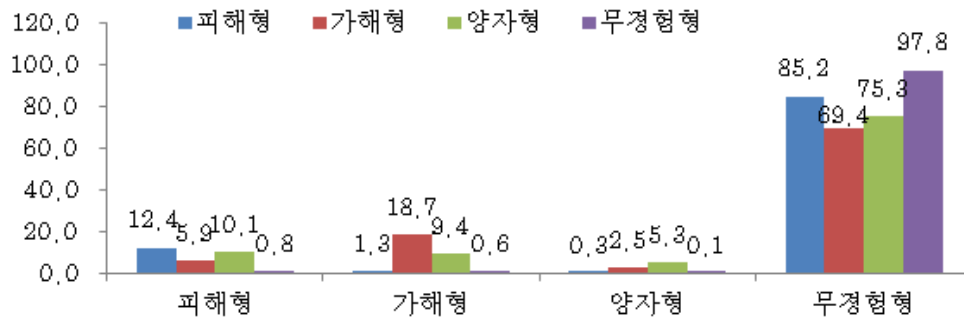
(단위 : 명)



- 아주 친한 친구를 적어도 한 명 이상 기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구의 폭력 유형 비율을 살펴보면, 피해형은 다른 유형의 학생들에 비해 패해형과(12.4%), 가해형은 가해형과(18.7%), 양자형은 양자형과(5.3%), 무경험형은 무경험형과(97.8%) 높은 비율로 친구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5-37〉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친구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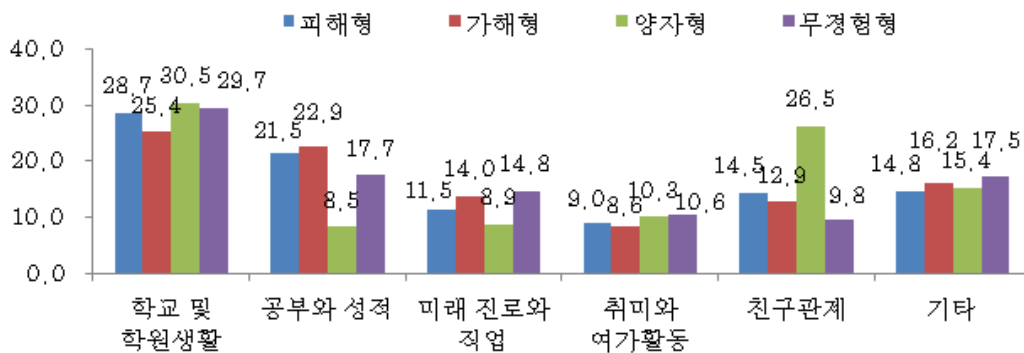
(단위 : 명)



6)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부모와의 평소 대화 내용

〈그림 5-38〉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부모와의 평소 대화내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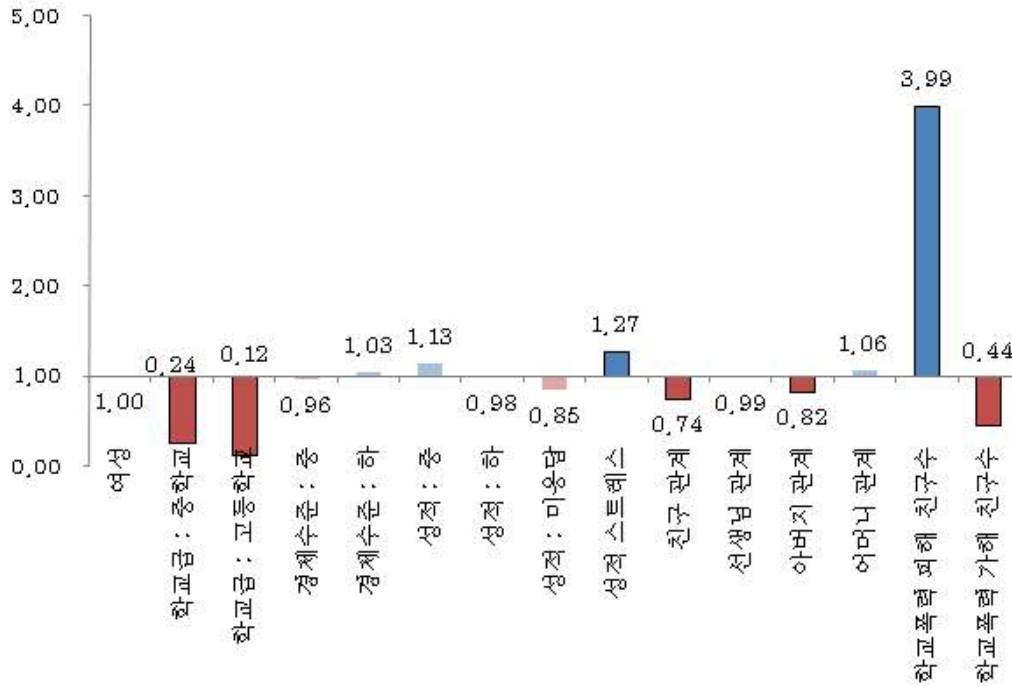


-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부모와의 평소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학교 및 학원생활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양자형의 경우 다른 학교폭력 피해 유형 집단과 달리 ‘친구관계’에 대하여 부모님과 대화하는 비율이 26.5%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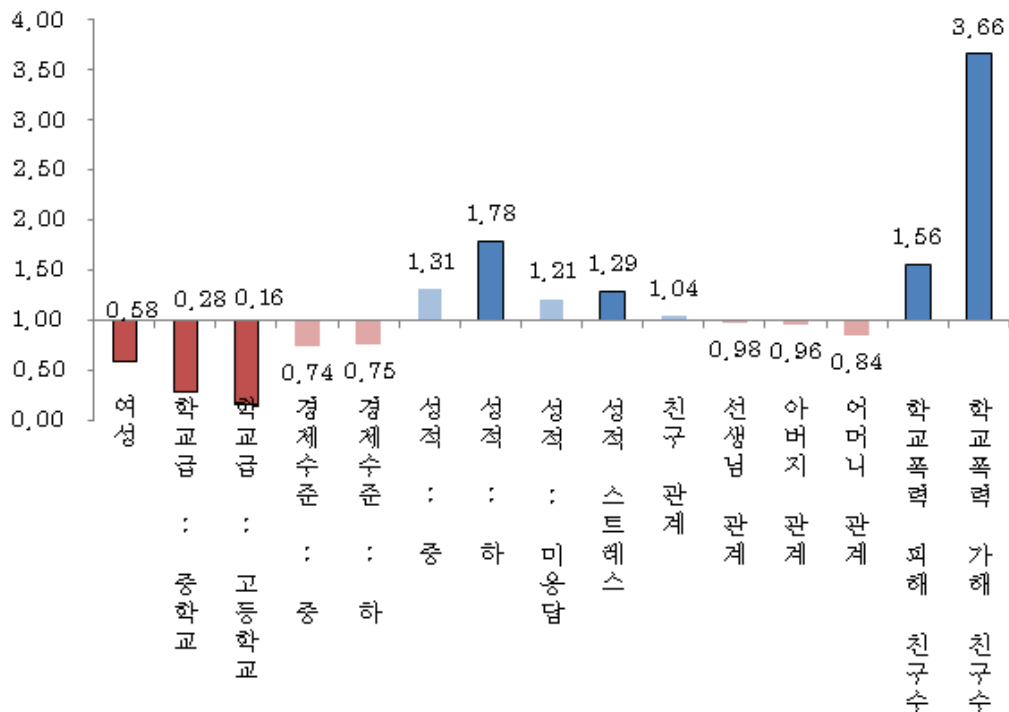
7)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학교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보다 중학생(0.24배)과 고등학생(0.12배)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더욱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으나, 성적 스트레스의 증가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적 스트레스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1 단위가 증가할 때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1.27배로 증가하였다). 친구 관계와 아버지 관계가 좋은 학생들은 학교폭력 피해를 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피해친구 숫자가 한 명 늘 때 학교폭력 피해 경험 확률은 3.99배 상승하는 반면 가해친구 숫자가 한 명 늘 때 피해 확률은 0.44배로 감소하였다.

〈그림 5-39〉 학교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로지스틱 회귀분석
(값은 오즈비, 진한 막대는 95%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5-40〉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로지스틱 회귀분석
(값은 오즈비, 진한 막대는 95% 수준에서 유의함)



-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은 남성의 0.58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보다 중학생(0.28배)와 고등학생(0.16배)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더욱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하'인 학생은 '상'인 학생보다 학교폭력 가해를 경험할 확률이 1.7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일수록 가해 경험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적 스트레스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가해 경험 확률이 1.29배로 증가한다). 친구, 선생님 및 부모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학교폭력 피해 친구가 한 명 증가할 때 가해 확률은 1.56배, 가해 친구가 한 명 증가할 때 가해 확률은 3.6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가출 및 자살

1. 가출

1) 가출충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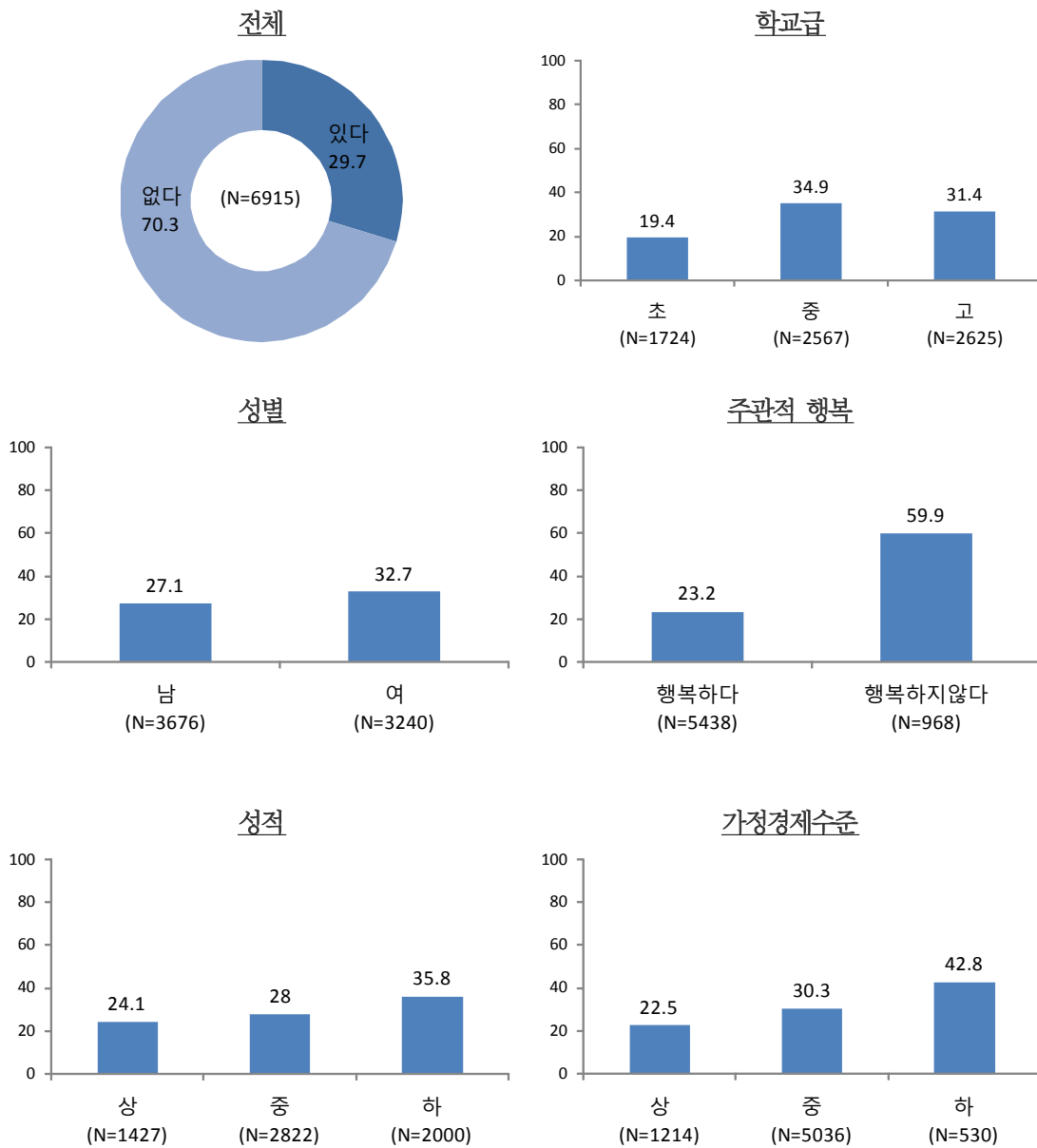
① 가출충동 경험률

- 전체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동안 한 번 이상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7%로 평균 3명 중 1명은 가출에 대한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19.4%, 중학생 34.9%, 고등학생 31.4%로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생의 가출에 대한 충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가출충동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남학생 27.1%, 여학생 32.7%).
- 주관적 행복의 정도, 성적 수준, 가정경제 수준 등에 따라서도 의미있는 차이점들이 발견되었다. 먼저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집단의 가출충동 경험률은 23.2%인데 비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집단에서는 무려 59.9%가 가출에 대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성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적 수준이 낮아질수록 가출충동 경험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적 하위집단의 경우 35.8%로 상위집단(24.1%) 및 중간집단(28.0%)과 큰 격차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가정경제 수준에 따라서도 체계적인 차이가 발견되는데, 가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하위집단으로 갈수록 큰 폭으로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상위집단 22.5%, 중간집단 30.3%, 하위집단 42.8%).
- 가출충동 경험에 대한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출이라는 일탈행동이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성적, 가정형편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출은 회피하고 싶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자 방편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않고, 학교 성적에서도 열등하다고 평가받으며, 가정형편도 넉넉하지 못한 경우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질 수 있고, 이러한 부정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가출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더불어 주목해야 할 점은 ‘행복하다’는 집단 및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여유로운 상위집단에서도 적지 않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행복하다’는 집단의 23.2%, 성적 상위집단의 24.1%, 가정경제 상위집단의 22.5% 등 평균 4.5명 중의 1명 꼴로 가출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복감, 성적, 가정형편 등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에서 스트레스나 좌절감을 갖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5-41〉 가출충동 경험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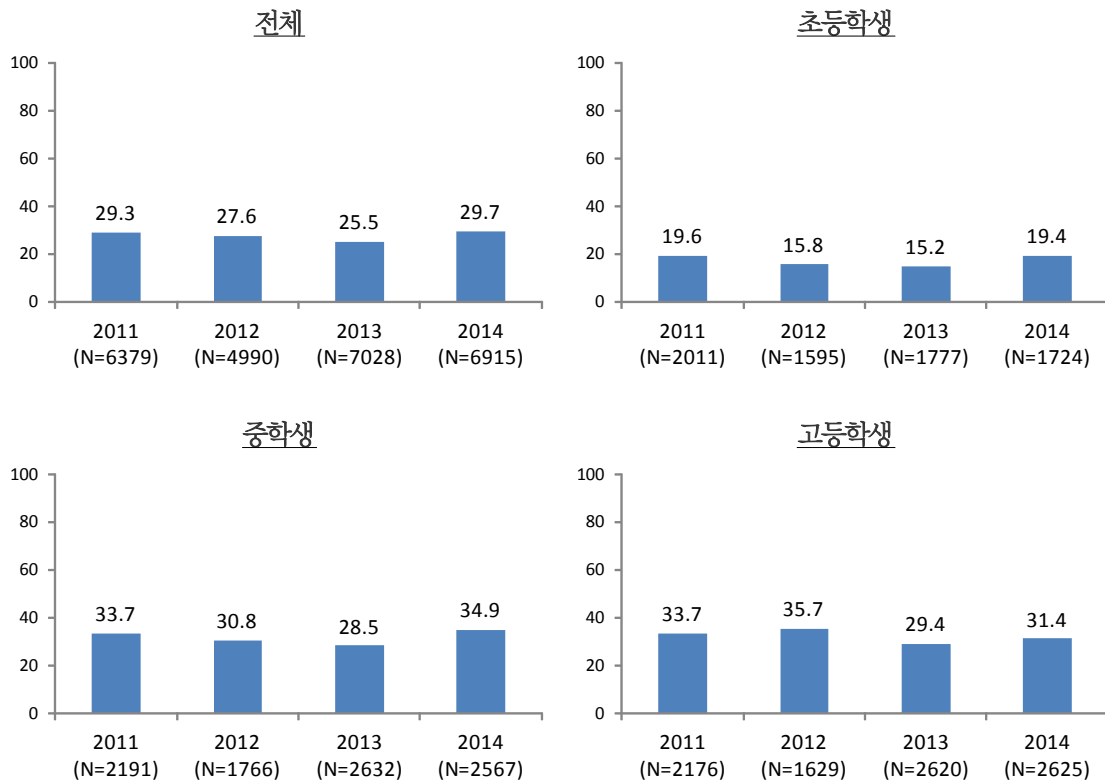


② 가출충동 경험률 변화 추이 (2011년~2014년)

-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가출충동 경험률 변화 추이는 전체적으로 지난 해까지는 매년 약 2%씩 감소해오다가 올해는 지난 해보다 4.2% 포인트 증가해 29.7%를 나타냈다.
- 전년대비 증감 추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중고생 모두 지난 해보다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급별 전년 대비 증감률은 초등학생 ▲4.2% 포인트, 중학생 ▲6.4% 포인트, 고등학생 ▲2.0% 포인트 수준이다.

〈그림 5-42〉 2011년~2014년 가출충동 경험률 변화 추이

(단위 : %)



2) 가출충동 발생 이유

① 가출충동 발생 이유

- 가출충동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부모와의 갈등’이 75.1%로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에게 가출충동을 불러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 하락’ 때문에 가출을 생각했다는 응답은 6.6%를 차지했다.

- 학교급별로는 초중고생 집단 모두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가출충동 발생의 가장 큰 이유로 꼽혔으며, 상대적으로 중고생들의 응답률이 초등학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주위의 무관심’(4.8%)과 ‘친구들과의 갈등’(2.1%)이 중고생에 비해 높은 편이고, 중학생의 경우엔 ‘성적하락’의 응답률이 7.2%로 초등, 고등학생 두 집단보다 약간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출을 생각했다는 응답이 2.5%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성별 및 성적 수준에 따라서는 크게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1〉 가출충동 발생 이유 (가출충동 경험자 대상)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사례수	2,053	334	896	823	993	1,060	343	790	716
부모님과의 갈등	75.1	69.4	76.4	76	74.1	76.1	76.3	77	72.8
성적 하락	6.6	6	7.2	6.2	7.9	5.4	4.1	5.5	8.2
주위의 무관심	3	4.8	3.3	1.9	2.6	3.4	3.3	3.2	2.7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6	0.2	1.3	2.5	1.2	1.9	0.9	1.8	1.7
친구들과 어울려서	1	0.1	0.8	1.6	1.4	0.6	0.9	0.6	1.5
선생님과의 갈등	0.6	0.8	0.5	0.7	0.8	0.5	0.6	0.2	0.8
친구들과의 갈등	0.6	2.1	0.4	0.2	0.3	0.9	0.3	0.7	0.6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0.4	0.9	0.5	0.1	0.5	0.3	0.3	0.2	0.4
기타	11	15.6	9.5	10.8	11.1	11	13.2	10.7	1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가출충동 발생 이유 변화 추이 (2011년~2014년)

〈표 5-2〉 2011년~2014년 가출충동 발생 이유 변화 추이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증감
사례수	1,855	1,367	1,784	2,053	
부모님과의 갈등	70.2	71.0	74.7	75.1	▲ 0.4
성적 하락	7.4	6.7	6.8	6.6	▽ 0.2
주위의 무관심	3.5	3.2	3.4	3	▽ 0.4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7	1.7	1.7	1.6	▽ 0.1
친구들과 어울려서	1.7	2.4	1.3	1	▽ 0.3
친구들과의 갈등	2.4	1.2	0.6	0.6	-
학교에서의 폭력때문에	0.8	0.9	0.6	0.4	▽ 0.2
선생님과의 갈등	0.6	0.7	0.5	0.6	▲ 0.1
기타	11.6	12.2	8.6	11.0	▲ 2.4
계	100.0	100.0	100.0	100.0	-

- 가출충동 발생 이유에 대해 2011년에서 2014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부모님과 의견의 갈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전년 대비 ▲0.4% 포인트), 나머지 요인들은 근소한 수준에서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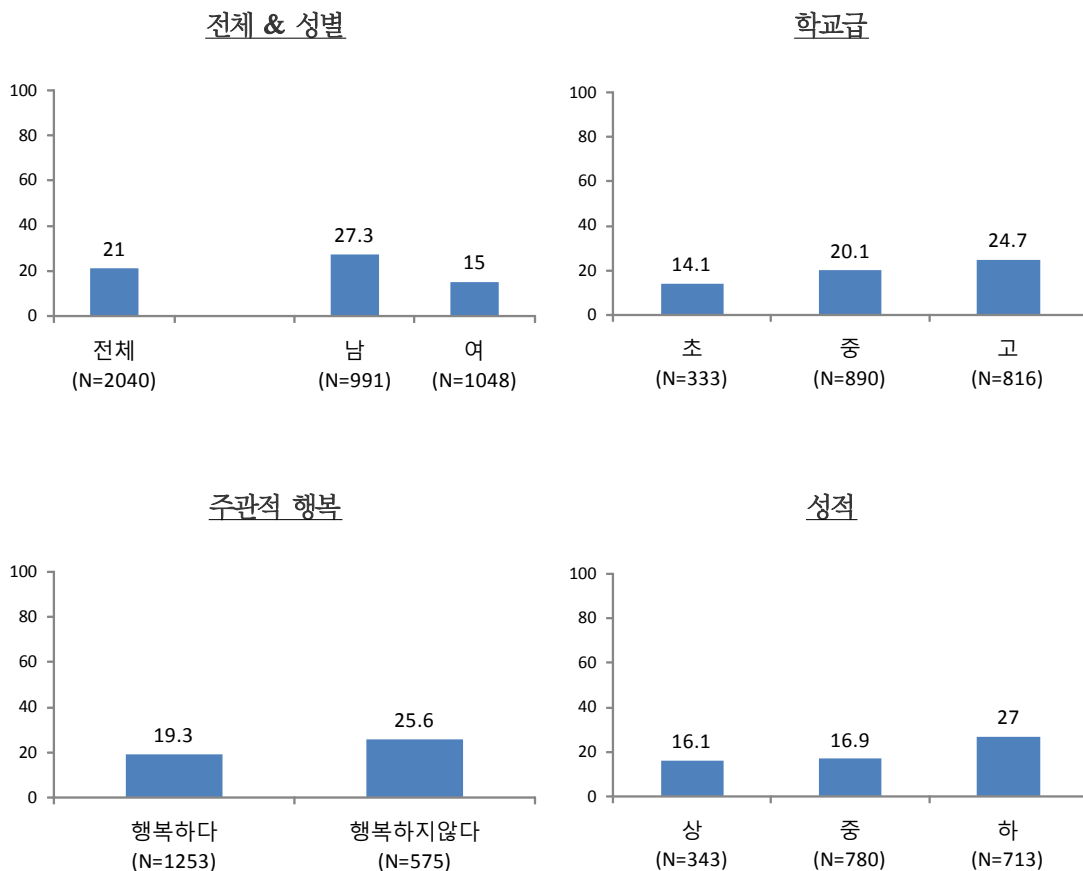
3) 가출 시도 경험

① 가출 시도율 (가출충동 경험자 대상)

- 가출에 대한 충동이 실제 가출시도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출충동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가출 시도 경험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21.0%가 실제로 가출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 학교급별로는 가출충동을 느낀 청소년들 중 초등학생 14.1%, 중학생 20.1%, 고등학생 24.7%가 가출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교급이 올라갈수록 가출 시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3〉 가출 시도 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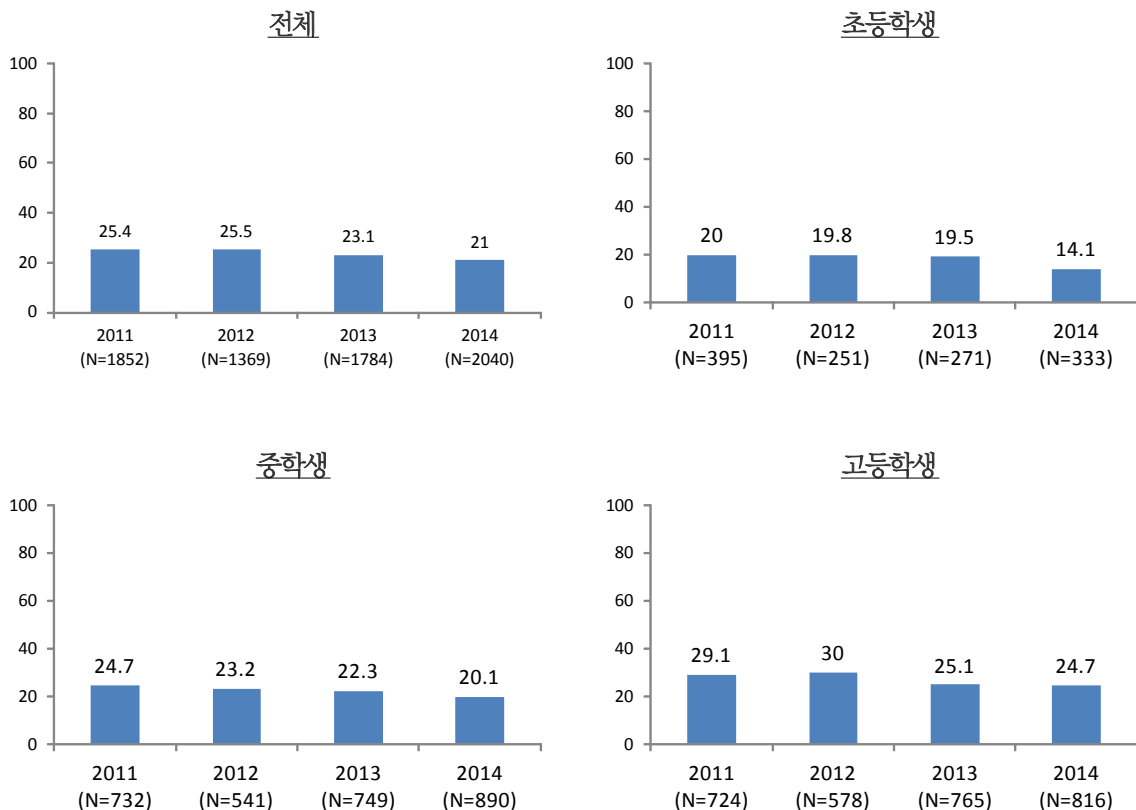


- 가출시도율의 차이는 성별, 주관적 행복감, 성적 수준에 따라서도 나타났다. 먼저, 성별 차이에서는 남학생들의 가출시도율(27.3%)이 여학생들(15.0%)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 분석한 가출충동 경험률과 실제 가출시도율을 성별로 비교해봤을 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충동’이 실제 가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학생 : 충동경험 32.7%, 가출시도율 15.0%, 남학생 : 충동경험 27.1%, 가출시도율 27.3%)
-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를 ‘행복 집단’과 ‘행복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해 가출시도율을 살펴본 결과, 행복하지 않은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의 가출시도율이 25.6%로써 행복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인 행복감이 낮을수록 가출충동이 실제 가출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짐을 시사한다. 한편, 행복 집단의 청소년들 가운데에서도 19.3%가 가출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출충동 경험자들 중 5명에 1명꼴). 이는 가출이라는 일탈행위의 발생 요인이 ‘행복감’의 정도만으로 변별되지 않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성적 수준에 따른 차이도 뚜렷한 편이다. 성적이 낮은 하위집단의 가출시도율이 27.0%로써 상위 및 중간집단(각각 16.1%, 16.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② 가출시도율 변화 추이 (2011년~2014년)

〈그림 5-44〉 2011년~2014년 가출시도율 변화 추이

(단위 : %)



-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가출시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2011년(25.4%)과 2012년(25.5%)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2013년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23.1%였으며, 올해는 지난 해보다도 2.1% 감소한 21.0%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가출시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지난 해보다 가출시도율이 다소 감소했으며 특히 초등학교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큰 편이다.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초등학교생들 가운데 가출을 시도한 비율은 2013년 19.5%, 2014년 24.7%로 지난 해보다 5.4% 포인트 감소했고, 중고생의 경우도 전년 대비 각각 2.2% 포인트와 0.4%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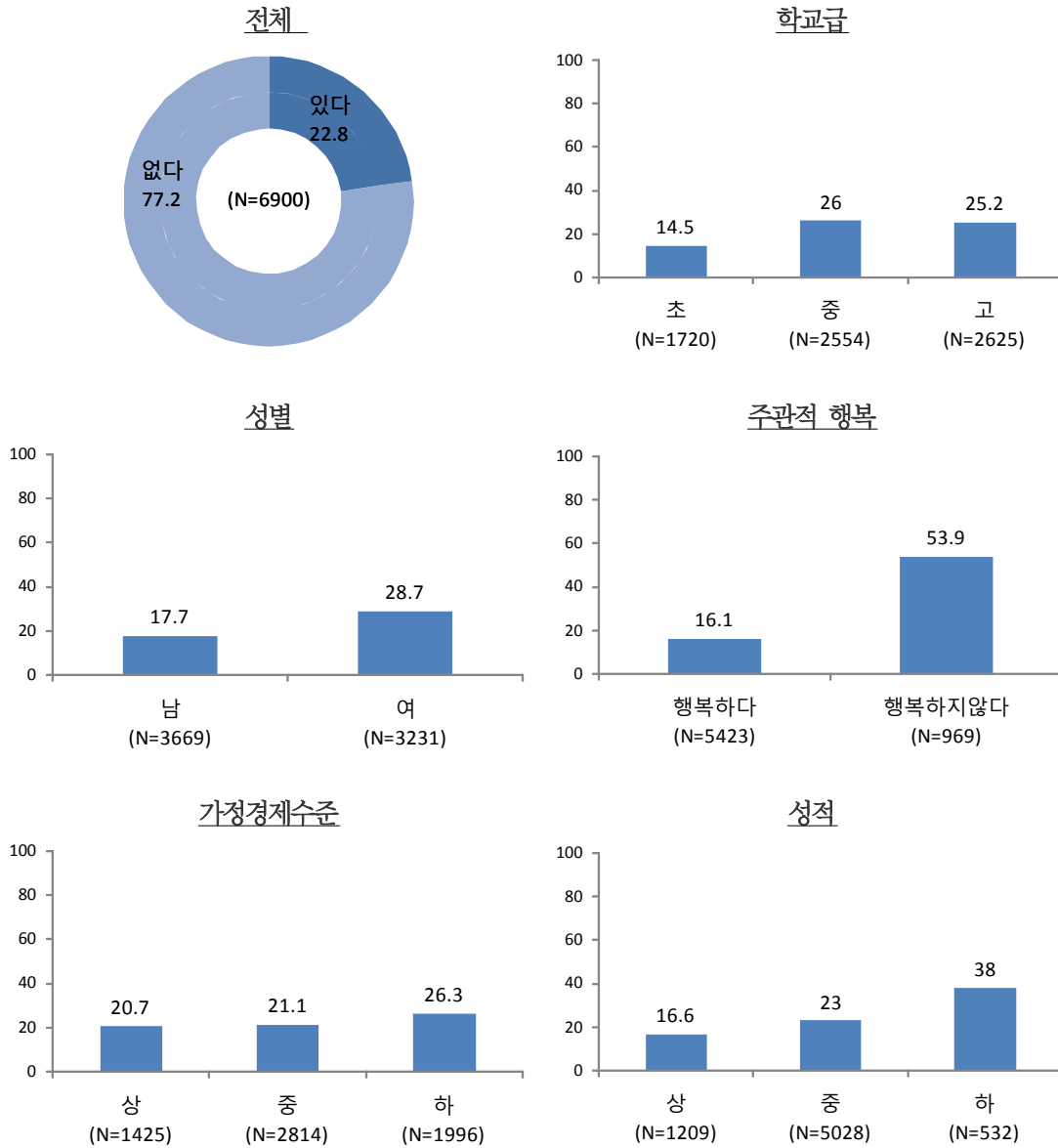
1) 자살충동 경험

① 자살충동 경험률

- 최근 수년 사이 청소년들의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살과 관련된 질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2.8%가 자살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 학교급별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생의 14.5%, 중학생의 26.0%, 고등학교생의 25.2%가 자살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가출충동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자살에 대한 충동을 경험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차이에서도 앞에서 살펴본 가출충동 경험과 마찬가지로 남학생(17.7%)에 비해 여학생(28.7%)의 자살충동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를 행복 집단과 행복하지 않다는 집단으로 구분해 응답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역시 가출충동과 마찬가지로 ‘행복하지 않다’는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의 자살충동 경험 비율이 53.9%로 행복 집단(16.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출충동 경험률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복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 중에서도 자살충동을 느낀 비율이 16.1%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자살충동에 대한 경험은 가정경제 수준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가정형편이 여유로운 상위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비율이 16.6%인데 비해 중간집단은 23%, 하위집단에선 38.0%로 나타남으로써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자살에 대한 충동을 경험한 비율도 비례하는 것을 보여준다.
- 주목할만한 점이 있다면 성적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성적 상위집단 20.7%, 중간집단 21.1%, 하위집단 26.3%로 성적이 낮을수록 조금씩 자살충동 경험률이 높아지긴 하나, 이러한 차이는 앞서의 주관적 행복감이나 가정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45〉 자살충동 경험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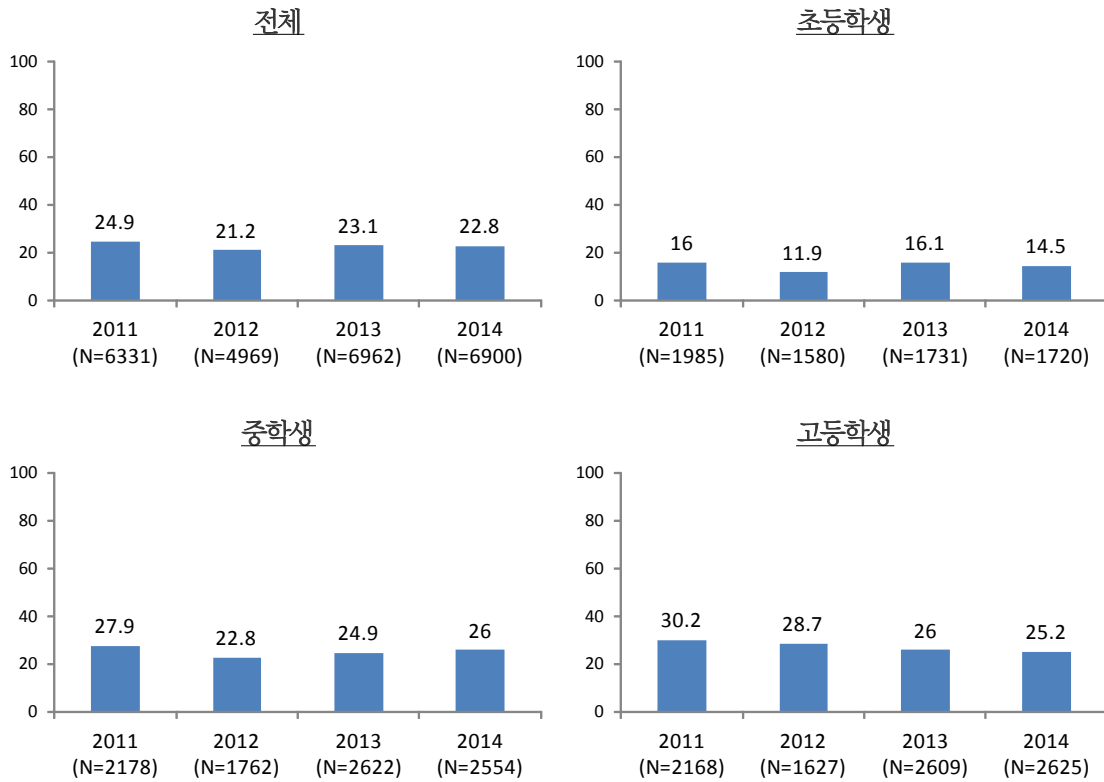


② 자살충동 경험률 변화 추이 (2011년~2014년)

-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살충동 경험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2011년 24.9%, 2012년 21.2%, 2013년 23.1% 등으로 소폭의 증감을 보이다가 올해에는 지난 해 보다 0.3% 포인트 증가한 22.8%로 조사됨으로써 매년 2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5-46〉 2011년~2014년 자살충동 경험률 변화 추이

(단위 : %)



- 학교급별로 전년 대비 증감폭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지난 해 보다 1.6% 포인트 감소, 중학생의 경우는 1.6% 포인트 증가, 고등학생의 경우는 0.8%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자살충동 경험 비율이 대체로 조금씩 줄어드는 것과 달리 중학생 집단의 응답률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2) 자살충동 발생 이유

① 자살충동 발생 이유

- 자살충동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확인한 결과, 가출충동을 이유와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갈등’ 요인이 전체 응답자 기준 39.3%로 1순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은 요인은 ‘성적 하락’ (11.8%), ‘친구들과의 갈등’(9.5%), ‘주위의 무관심’(5.8%), ‘학교폭력’(3.7%) 등의 순이다.

- 학교급별로 자살충동을 느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중고생 동일하게 ‘부모와의 갈등’이 1순위로 나타났으나 이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주위의 무관심’ 요인이 10.4%로 중고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중학생들의 경우엔 ‘친구들과의 갈등’이 12.3%로 다른 두 집단보다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고등학생의 집단의 응답률 2순위는 ‘성적 하락’ 요인으로 15.6%를 차지했다. ‘성적 하락’을 자살충동 발생 이유로 꼽은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5-3〉 자살충동 발생 이유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사례수	1,570	249	661	660	644	926	295	592	524
부모님과의 갈등	39.3	41.6	41.1	36.5	44.1	35.9	38.5	39	39.5
성적 하락	11.8	6.2	10.1	15.6	13.1	10.9	10.1	12.4	11.7
친구들과의 갈등	9.5	7.6	12.3	7.4	2.8	14.2	9	9	9.4
주위의 무관심	5.8	10.4	5.1	4.7	5.6	5.9	6.4	6.4	5.8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3.7	7.3	4.6	1.3	4	3.4	5.4	3.7	2.5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2.8	1.1	2.9	3.3	2.9	2.7	2.1	2.1	3.9
선생님과의 갈등	0.9	2	0.8	0.6	1.6	0.4	0	0.9	1.3
친구들과 어울려서	0.8	1.2	0.9	0.6	1.2	0.5	0.9	0.3	1.2
기타	25.5	22.6	22.3	29.9	24.7	26.1	27.7	26.1	2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살충동과 가출충동의 발생 이유를 비교해볼 때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먼저 가출과 자살충동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모와의 갈등’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나, 그 비율에 있어서는 가출충동의 경우 75.1%, 자살충동의 경우 39.3%로 큰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가출충동의 발생 이유에선 언급되지 않거나 비중이 크지 않았던 ‘친구들과의 갈등’(9.5%)이나 ‘주위의 무관심’(5.8%), ‘학교폭력’(3.7%) 등이 자살에 대한 충동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즉, 자살에 대한 충동은 가출에 비해 그 원인이 보다 다양할 뿐 아니라 친구를 비롯한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학교폭력 등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자살충동 발생 이유 변화 추이 (2011년~2014년)

-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살충동 발생 이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이래 자살충동 발생의 1순위를 차지한 요인은 ‘부모와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와 비교할 때 전년 대비 응답률이 증가한 항목은 ‘부모와의 갈등’(▲2.5% 포인트), ‘친구들과의 갈등’(▲0.2% 포인트), ‘선생님과의 갈등’(▲0.1% 포인트) 등이고, 반대로 ‘성적 하락’(▽2.5% 포인트)를 포함한 여타 요인의 응답률은 조금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2011년~2014년 자살충동 발생 이유 변화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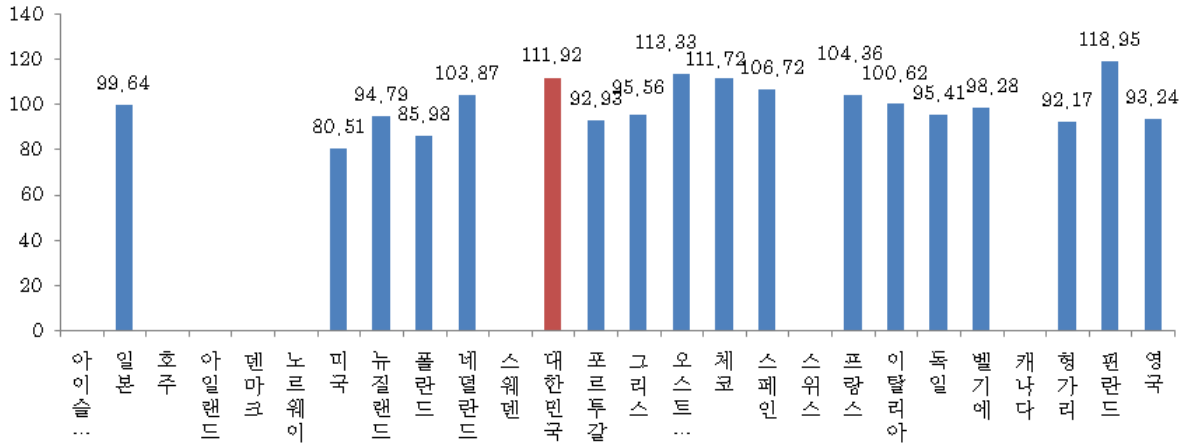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사례수	1570	1047	1598	1570	
부모님과의 갈등	37.2	36.2	36.8	39.3	▲ 2.5
성적 하락	15.9	12.6	14.3	11.8	▽ 2.5
친구들과의 갈등	9.4	8.7	9.3	9.5	▲ 0.2
주위의 무관심	5.4	6	8.1	5.8	▽ 2.3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2.8	3.3	4.2	2.8	▽ 1.4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1.7	3.4	4.8	3.7	▽ 1.1
친구들과 어울려서	1	1	0.9	0.8	▽ 0.1
선생님과의 갈등	0.5	0.9	0.8	0.9	▲ 0.1
기타	26	28	20.9	25.5	▽ 4.6
계	100	100	100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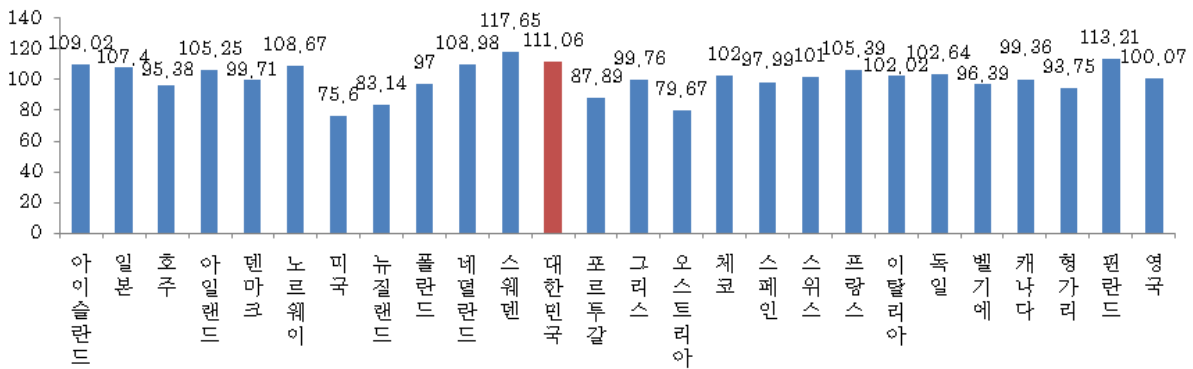
2014년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부록1. OECD국가의 행복지수
영역별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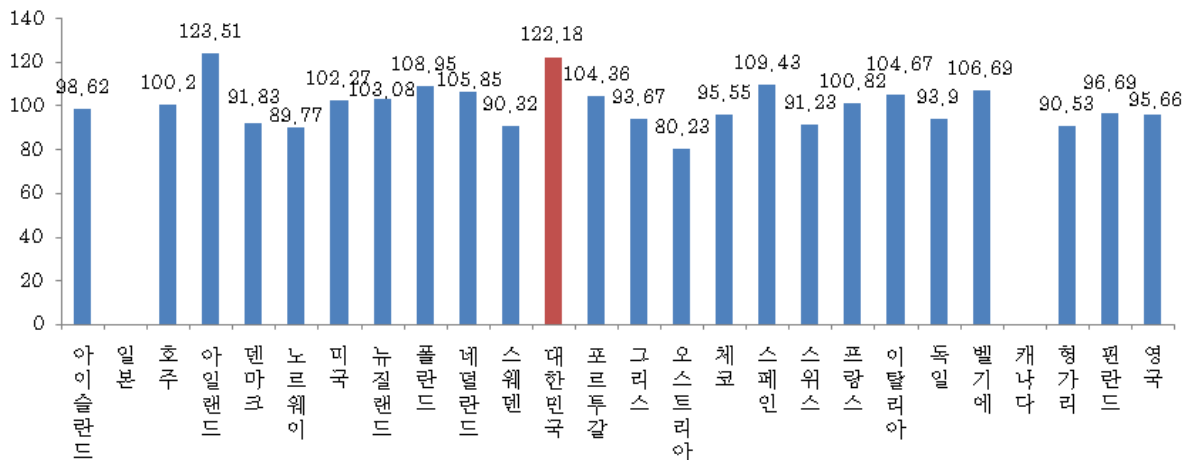
〈그림 6-1〉 물질적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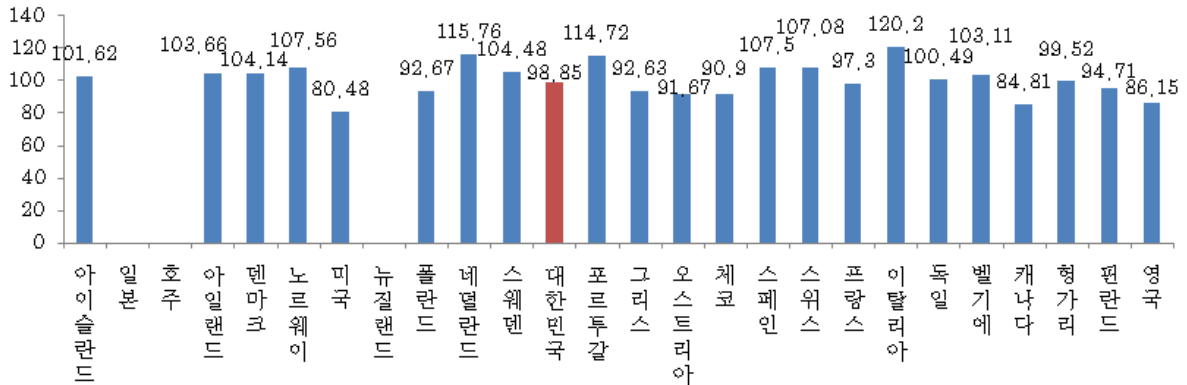
〈그림 6-2〉 보건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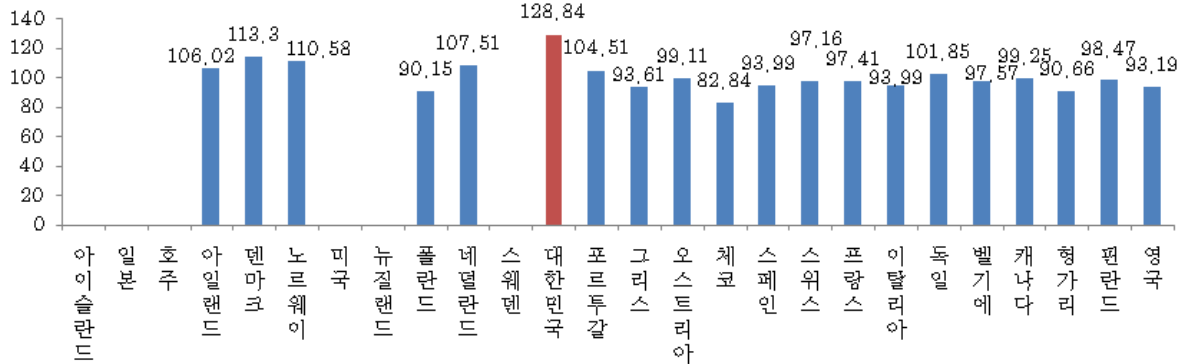
〈그림 6-3〉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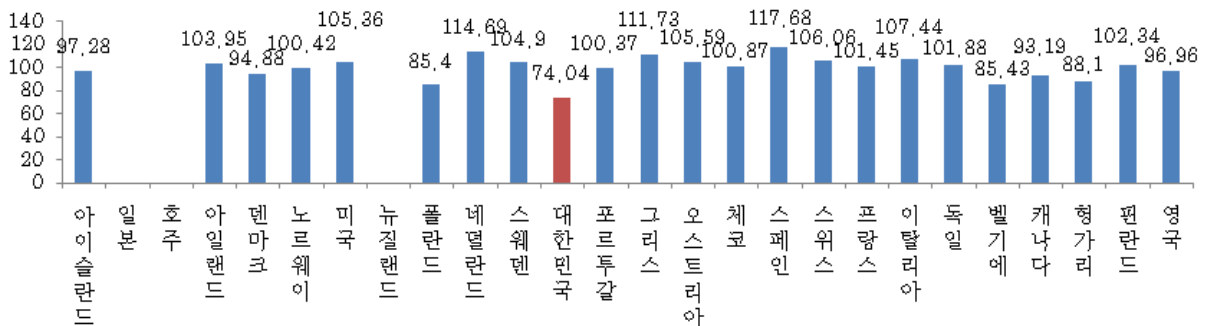
〈그림 6-4〉 가족과 친구관계



〈그림 6-5〉 행동과 생활양식



〈그림 6-6〉 주관적 행복





2014년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부록2. 설문지